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족제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금주의 법구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다.
〈수행본기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359-536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삼성암 (02)988-1996
독성기도 매월 3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약수사 (02)877-7514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지비도량참법기도 매월 18일(음)
관음예찬법회 매월 24일(음)

천축사 (02)954-1474
삼일관음기도 매월 1일(음)
인등기도 매월 7일(음)
산신재일기도 매월 16일(음)

수원 용광사 (0331)46-4879
정기법회 매월 8일
입시법회 넷째 토 오전 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둘째 일 오후 8시

김해 연화사 (0525)36-304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안동 대원사 (0571)858-263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화 오후7시
대불련법회 매주 목 오후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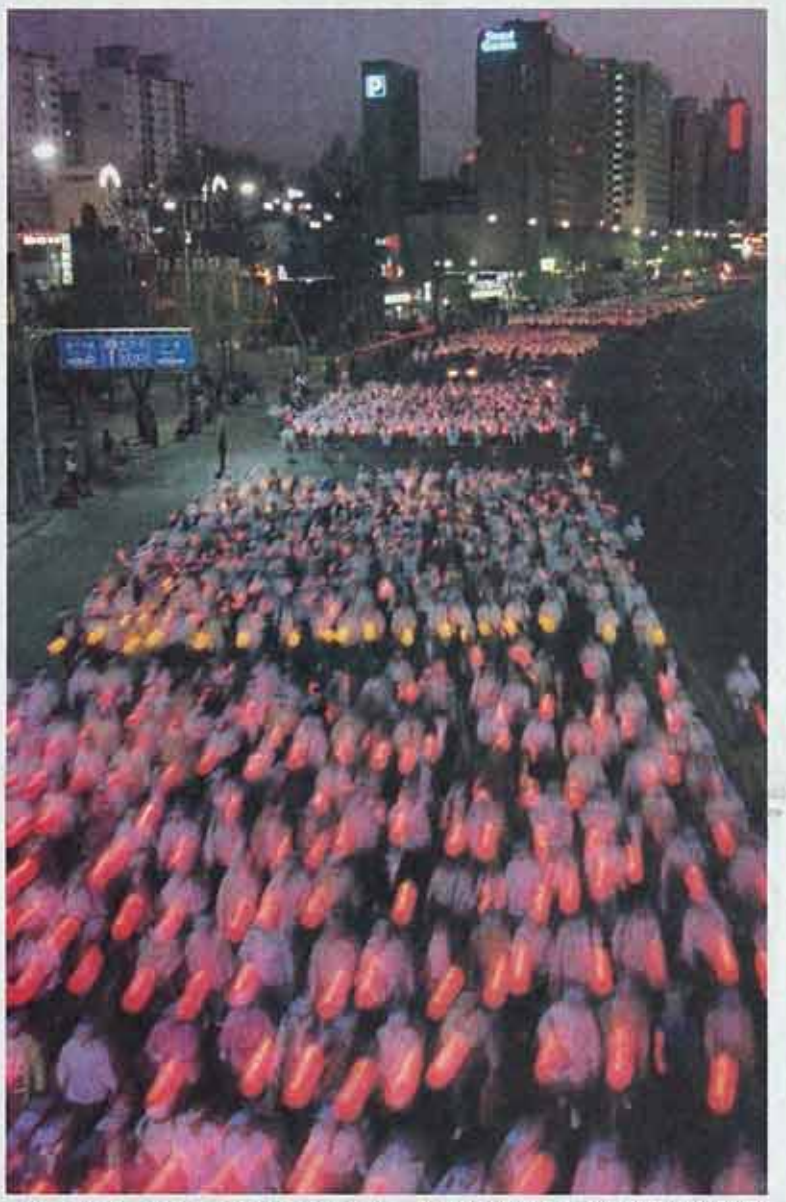
낙산사포교당 (0396)671-4167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일본신도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대구 참사에 '大悲의 燈'을

"아픔 나누자"…성금모금·헌혈 교계 확산



다 함께 깨달음의 사회로 지난 29일 여의도 봉축대법회를 마친 5만여 시부대중은 손에 손에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을 정근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염원하면서 조계사까지 장장 4시간의 제등행렬을 가졌다. 〈관련기사 18면〉 〈사진=박재완 기자〉

지난 28일 발생한 대구 가스폭발 참사에 불교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은 사고직후 성명을 통해 모든 불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줄 것과 각 사찰에서 희생영가들을 위한 극락왕생 기도를 매일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도 대구경북 종무원을 중심으로 희생자 49재와 천혼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천태종등 각 종단별도 희생자들을 위한 천혼재 및 유가족에 위로금 전달 등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른 회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구사원 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와 대구·경북 5개 본사 주지스님들은 사상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불교병원등 13개 병원을 차례로 방문 희생자들에 대한 보참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대구사원주지연은 6일 열릴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회를 사상자들을 위한 위령재와 병행키로 결정하고 성금모금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비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무공스님(동화사 주지)등 스님 10여명은 28일과 30일 오후 사고대책본부를 방문 원주 총무원장 스님이 기탁한 조의금 1천만원과 3백만원을 각각 전달하고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했다. 대구 사원연 스님 40여명도 오후 5시 이번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남중학교 앞에서 희생당한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했다.

대구 대불련 학생불자들은 28일 헌혈증서 50여장을, 대전 대불련도 29일 헌혈후 헌혈증서를 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 (사)불국토(이사장 정관스님)와 영주암(주지 법산스님)이 오는 7일 영주암에서 사고 부상자돕기 헌혈을 실시할 계획에 있는 등 전국 각 사찰 및 신행단체들이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인권위도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전 불교도들은 이번 참사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기업인들의 보시온정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10억원을, 쌍용그룹 김석준 회장이 3억원을 각각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관련기사 18면)
〈한명우·이윤호 기자〉

청교련·본사등 성금 모금

본사는 한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시현스님)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주간불교와 함께 대구 참사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부처님 오신 날인 7일까지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종각역 제일은행 본점앞 광장에서 모금한다. 735-8165(청교련) 733-3363(불교사회복지회)737-8881(본사)

부처님 오신 날 특집 28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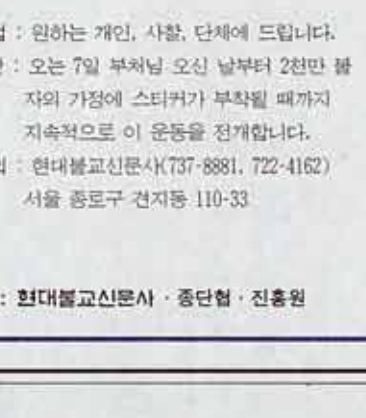
53 선재들의 발원 — 2면
명사들이 좋아하는 법구 — 6면
타종교 성직자 봉축 설법 — 8면
마라도서 통일백일기도 — 19면

봉축특집-전법

21면 — 내가 가본 녹야원
23면 — 좌담 '차세대 포교'
24면 — 포교사 설문조사
27면 — 사카족의 후예들

집집마다 「불자 가정」 스티커 붙입시다

7일부터 배부



◇스티커 시안 견본.

'나는 불자' 자부심으로
부처님 세상 만들기
앞장서는 서원실천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불자의 집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보급 방법 : 원하는 개인, 사찰, 단체에 드립니다.
■기 간 : 오는 7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2천만 불자의 가정에 스티커가 부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보급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737-8881, 722-4162)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종단협 · 진흥원



스스로를 의지하라.
眞理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眞理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가르침의 긴 旅行은 시작되었다.
영겁의 歲月이 흐른 지금에도
인도라는 땅 곳곳에서
배어나오는 苦行의 발자국 —
大韓航空이 봄베이로 每週直行합니다.

예약 및 문의 : (02) 756-2000

21세기 큰 하늘을 여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부처님 오신 날 특집

53 선재들의 발원

백두산으로 소풍갈 수 있었으면…

어린이들의 가슴에도 부처님이 오셨다. 뚤망뚤망한 새싹 불자들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러 부처님이 오셨다. 어른들의 세상은 어두워도 천진동자·동녀들의 세상은 밝기만하다.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미래불교의 주인공이 될 53명의 선재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소박한 다짐과 소망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1. 김민선〈부천 석왕사 어린이 일요학교 부안국 6년〉=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한가지의 물건을 쓰더라도,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배어 있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나, 부모님께 효도는 다하였나, 웃어른은 잘 공경하였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나를 항상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2. 고형근〈제주중앙국 4년〉=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세계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 김은영〈경기 법륜유치원, 7세〉= 엄마 아빠가 항상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착한 은영이가 되게 해 주세요.

4. 김동현〈전북 선원사 어린이법회, 남원중앙국 5년〉=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저는 다음 고운 어린이가 되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16. 박지남〈충남 예산 신암국 2년〉=부처님처럼 착하게 살고 싶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청소도 열심히 할래요.

17. 김은규〈충북 청원 도원국 4년〉=부처님도 맨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대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나도 부처님이 될래요. 부처님이 고마워요.

18. 승진주〈수원 포교당연꽃어린이법회〉=햇빛같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마음 어린이 부처님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연등이래 모인 어린이들은 부처님이 오시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듯 가슴이 설레인다.

전쟁과 가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서 부모님이 기뻐 하시길…

른 아이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스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듣고 저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5. 강타정〈경기 관음포교원, 내산국 6년〉=새로운 학교에서도 적응 잘하게 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너그러운 부처님처럼 대하게 해 주시고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존대말을 항상 쓸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6. 엄은지〈경기 관음포교원, 거학국 6년〉=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따돌린다든지, 무시하는 행동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공부 잘하고, 우리집이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7. 원창혁〈금룡사 법연 어린이회, 북제주 김녕국 6년〉=절에 다닌 이후에는 항상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잘 배우고 실천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8. 허은영〈제주 천진불어린이우용단, 신제주국 6년〉=엄마의 권유로 불교 무용단에 입단해 14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춤을 추며 자랑스런 불교 무용단원이 되겠습니다.

9. 김도연〈홍법정사 아일다 어린이법회, 제주남국 6년〉=나는 이 다음에 크면 공부도 잘하고 키도 커져서 좋은 대학에 가 신나는 농구를 해 국가대표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0. 손승아〈경주 신라국 6년〉=부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가난한 이웃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얻고, 집없는 이들이 따뜻한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세요.

11. 김태은〈경기 관음포교원, 장서국 5년〉=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2. 채아영〈전북 군산 흥천사 반야어린이회, 경포국 6년〉=부처님!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와는 우정을 돈독히 하고 형제와는 사랑을 다하게 해 주세요.

13. 안희경〈안양 한마음선원 어린이회, 삼성국 6년〉=전 언제나 웃고 있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14. 김선희〈충남 천안 구성국 1년〉=우리 엄마가 부처님처럼 살래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거예요.

15. 김하미〈대전 대흥국 5년〉=초파일이 오면 대웅전은 물론 절 마당에는 울긋불긋 연등이 아름답습니다. 연등처럼 그리고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9. 김경민〈강릉 초당국 1년〉=엄마, 아빠와 함께 관음사에 부처님 만나러 갈때가 가장 즐거워요. 부처님께 절하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저도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이쁘게 절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도와 주세요.

20. 정재우〈대전 삼문사어린이회〉=법회 때마다 스님은 '부처님을 가장 잘 따르는 방법은 효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1. 배현정〈대전 중앙국 6년〉=나는 학용품을 조금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문방구로 달려가 또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용품을 아껴 쓰겠습니다.

22. 이동효〈조계사어린이회 6년〉=제가 스님이 된다면 설법을 잘하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어린이회 친구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23. 박태영〈대전 홍도국 5년〉=저는 부처님이 정말 좋아요.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법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4. 박정은〈충남 당진 탑동국 6년〉=부처님 탄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5. 김유미〈울산 남북국 5년〉=부처님 지금 지구 저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전쟁을 없애주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26. 최슬기〈경북 화원읍 화원국 6년〉=부처님,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지도록 도와주세요. 통일이 되어 수많은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우리들은 백두산으로 소풍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27. 김기영〈경주 황남국 6년〉=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28. 안치우〈서울 은석국 6년〉=저는 매년 찬불가대회에 나가 노래 부를 수 있어 즐거웠는데 올해는 번성기라서 참가를 못 해요. 그렇지만 교리퀴즈대회 등 재미있고 신나는 게임에 많이 참석하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저랑 같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많이 참석해 자랑스런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29. 김성희〈대구 봉덕국 6년〉=요즘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이 나쁜 사람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30. 김현정〈용화정사 어린이회 광주남국 4년〉=나는 부처님께 기도 드리고 싶은게 많습니다. 뭐냐구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보고 싶어요.

31. 유명한〈강원 용동국 4년〉=부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친구를 사귀고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2. 백성훈〈전남 장흥국 2년〉=부처님 기도 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33. 조유미〈강원 양구 임당국 3년〉=항상 웃고 계시는 부처님이 참 좋아요. 부처님 오신날에는 더욱 밝게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함박웃음꽃이 피어 날거예요.

34. 김진영〈경기 이천국 6년〉=저는 지금까지 욕심이 많고 게을러서 부모님께는 효도를, 친구들에게는 믿음과 의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처님 말씀 작은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5. 김모란〈홍익대 부속국 4년〉=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집에 비추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간에 친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36. 유원경〈서울 북가좌국 6년〉=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노력이 따라야 하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부처님 도와 주세요.

훌륭한 과학자 되고 싶어요

엄마·아빠 서로 사랑했으면…

37. 박세연〈대전 가약국 6년〉=어머니와 하루에 30분 이상은 독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켰는데 요새는 책만 펴놓고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38. 신지아〈전남 장흥국 1년〉=부처님! 전 가끔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써 엄마를 속상하게 해 드려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시는대로 절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39. 박지현〈서울 미동국 6년〉=항상 헐없는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감싸주시는 자비로우신 부처님! 초파일에는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며 거리를 행진하도록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40. 전정현〈강원 교동국 4년〉=엄마 아빠 말씀 잘듣고 반찬투정도 안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부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세요.

41. 김문수〈경남 촉석국 4년〉=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린이 5계도 잘 지키겠습니다.

42. 강은정〈경남 기람국 4년〉=열심히 공부도 하고 방청소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쁠때나 슬플때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43. 권수연〈서울 은석국 6년〉=부처님! 성적이 날로 향상하고 친구들과 우애있게 지내게 해주세요. 또, 연꽃처럼 맑고 티없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해 주세요.

44. 장슬기〈대구 반야월국 4년〉=부처님! 저는 지희 반에서 반장직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좀 잘 따르도록 해 주세요.

45. 전창훈〈부산 남천국 1년〉=게임기가 갖고 싶은데 부처님이 어머니께 말씀 좀 잘 드려 주세요.

46. 한영진〈서울 리라국 6년〉=저희 학교에는 부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47. 최경희〈부산 양정국 5년〉=부처님,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보살펴 주세요.

48. 김동우〈강원 초당국 4년〉=부처님 저는요,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법회에 나가 스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재미있는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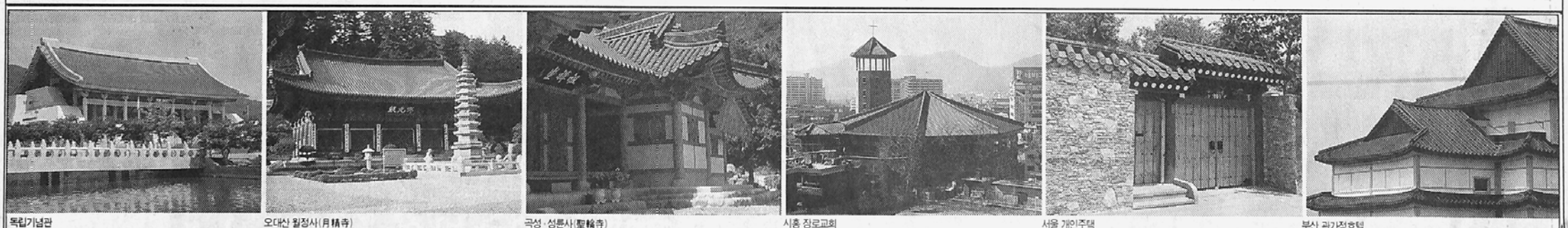
49. 김나래〈경남 평거국 5년〉=앞으로 어머니 말씀도 잘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어려운 친구도 도와 주겠습니다.

50. 정현주〈광주남국 6년 용화정사 어린이법회〉=부처님!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되게 부처님이 좀 도와 주세요.

51. 이은정〈강원 강릉국 5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세분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부처님입니다. 또한 저의 바램은 부처님처럼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52. 천창식〈부산 광남국 3년〉=부처님, 전 너무 뚱뚱해서 걱정이예요. 살이 5kg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군것질이 하고 싶어도 꾹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3. 탁은경〈경주 월성국 1년〉=부처님! 경주를 찾는 관광객 어른들이 제발 질서를 좀 잘 지키게 해 주세요. 어른들이 공중도덕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곡성 성륜사(聖輪寺)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가정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銅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연기암, 하동 칠불사, 부산 관가정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상주 원적사, 상주 극락정사, 곡성 성륜사,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강천사, 대구 관암사, 태백 한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흥세제기, 성남 한국도로공사, 이리 동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화계사

봉축사설

청소년 가슴에 부처님 말씀 심자

5월 7일은 부처님 오신 날. 꽃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다. 만산에 아롱진 꽃자수와 향내음 속에 기쁨에 넘친 새들이 歡喜踊躍한다. 밤거리에는 슬프건 기쁘건, 잘살거나 못살거나, 고귀한 이 못난 이, 할 것 없이 어둠을 쫓는 등불을 밝히고 있다. 가로에 늘어진 등불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고개 숙이면서도 그 가르침을 한갓 지식으로 장식하고만 못난 제자들을 슬프게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적정의 세계에 들어가신지 어언 2539년. 누구나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면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참다운 정신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삼으리라. 정녕 보살의 삶을 보여 주리라. 기필코 일체의 중생을 건지리라" 고 결연히 존재의 의의를 설파하신 분.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보살의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평생을 교화에 몸바친 위대한 교육자.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면의 자기 주인공을 깨닫는 것이라며 관념적 우상을 타파하신 초절한 종교가….

온 누리가 기쁨과 희망 속에 약동하는 꽃의 축제로 맞이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결코 짐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이 오신 날을 머리 숙여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은 결코 기쁨과 희망으로 들떠 있지 않다. 약육강식의 생존논리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범람 속에 방황하고 있다. 개방내지 세계화란 미명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국적불명의 퇴폐문화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최근 각 여론조사기관에선 청소년들의 생활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속속 발표한 바 있다. 그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사회윤리의 마비로 인한 성도덕의 문란, 공동체 의식의 결여, 생명의 경시, 마약, 절도, 폭력 등의 풍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가족윤리의 부재로 존속살인 내지 상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들은 전통의 가치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서구모방적 세태를 만들어 가치의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어느덧 청소년의 문화적 정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사랑스럽고 자애하신 손과 눈길이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기성과 함께 들놀이를 나왔다 방황하던 '야사'란 청소년을 교화했던 그 덕화가 오늘 다시 피어오르길 바라는 것이다. 청소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척도이자 국가의 미래, 인류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도 답답하기만 한 것은 한국의 부처님 제자들이 청소년 교화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사찰에 청소년이 오도록 계몽하기는 커녕 오는 것을 귀찮아 한다는 조사가 있다.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기 때문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포교환경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청소년 포교에 등한히 한다면 한국의 불교는 국민적 추앙을 받는 민족종교의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성을 심어주어 생명의 존엄함을 느끼게 하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선 일군의 제자들이 생기자 당신을 따라 다니지 말고, 우매한 중생들을 깨우치도록 '길 떠나라'는 당부를 하셨다. "인간과 하늘의 이익을 위해 떠나라. 한 길로 두명이 가지 마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착해야 한다…"라는 전도선언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요 민중을 깨우치는 횃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불기 2539년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전도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 교화에 힘쓰라는 청소년 헌장이 될 것이다. '청소년은 이 사회의 지광이다. 미래를 가늠케하는 척도다. 따라서 이 사회와 백성을 위해 청소년을 교화하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착해야 한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전국에 밝힌 모든 등불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록 기원하는 등불이 되길 앙망한다. 나무석가모니불.

작은 실천이 '큰 세상' 만든다

불자 108명이 말하는 생활청규

질서·검소·거짓말 않기 등 계행 삼아
'1일 1선 생활화' 탐욕 버리기 노력

'내눈에 보이는 모든것은 부처님이 없고 내 행위 하나 하나가 기도요 정진이다.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자'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어떠한 덕목을 가장 중요한 생활청규로 삼고 있을까?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지역 재가불자 108명에게 '불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청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자유롭게 응답한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1일1선(21.3%)을 생활청규의 으뜸으로 삼았고 자비(13%),질서(10.1%), 검소(9.2%) ,불망어(8.4%), 예절과 공경(8.3%), 기도(7.4%)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불사음(4.7%),불살생(4.6%),화합(3.7%),불투도(3.7%)를 실천덕목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부처님 가르침 실천

이번조사의 결과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행동이 우선으로 꼽힌 것은 불자들이 스스로의 생활에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행동화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실천행이 없는 불교는 뿌리없는 나무일 뿐이다. 믿음과 실천이 함께할 때 예토에 뿌리를 두고 피어난 연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것이며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상도 기약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너와 내가 모든것을 조건없이 나누어 가지는 자비는 반드시 지켜야할 청규라는 대답이 상당수 나왔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타인을 위하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하여 남을 먼저 생각하고는 것이 응답자들이 내놓은 실천방안이다.

또 질서지키기를 청규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자들의 질서의식이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회를 처음 나온 초심자였을 때 사찰과 법당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질서의식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신발하나도 가지런히 놓았던 불가의 대중생활의 규율을 재가불자들의 생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초월하여 지족으로 생활하는 승가의 생활풍토를 재가에서도 정착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검소와 청빈이 승가만의 덕목으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와함께 자기를 속이고 남까지도 속이는 거짓말은 진리의 종자를 끊고 믿음의 종자를 부패시키는 큰 죄업이므로 '바른언어의 생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날로 타락해 가는 사회 현실에서 이시대를 살리는 맥박으로 예절의 필요성도 불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예절에 바탕한 공경심의 표명으로 자연스럽게 악업을 멀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 실현 솔선

기도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원으로 힘과 마음의 풍요를 키우는 일이므로 자신에게 국한된 기도만이 아니라 '남과 사회를 위해 항상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데도 많은 불자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기도가 생활청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견지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계율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평등성과 존엄성을 지니라고 가르쳤다. 불사음은 단순한 성적 도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귀성을 일깨운 것이다.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지양하고 청정하고 밝은 지혜를 증득하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불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대답도 커다란 설득력을 갖는다.

불살생의 계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산 목숨을 죽이는 레저생활(낚시,사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방생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화합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대중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분열의 사회에서 화합의 사회를 꿈꾸는 불제자는 항상 '하심의 자세'로 남의 허물을 감싸주며 화합의 중생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은 중년층에서 많이 나왔다.

끝으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인간의 성실성의 가치기준인 불투도의 계를 지키기위해 '무소유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불자도 있었다.

이번 질문에서 불자들은 오계에 입각한 보다 실천적인 규율들을 삶속에 용해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계행이나 청규는 생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불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의 가치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에서는 계율자체가 등한시된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계행이 피안을 향하여 가는 칫걸음이라고 볼 때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불자들의 인식이다.

〈김원우 기자〉





생활 속의 불교 ㉕

"오늘 같이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뜻은"

불기 2539년. 까마득한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잠시 몸을 나투셨지만 부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투신 모습, 장소가 다를 뿐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항상 함께 하신다. 과거·현재·미래가 따로 없다.

부처님께서는 삼계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지옥에도 극락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더러운 곳, 깨끗한 곳, 어느 한 곳이라도 비워두시는 곳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이든 배척하는 곳이든 일체 유·무정물이 있는 곳에 부처님은 계신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나투신다. 일체 만법이 다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고 일체처가 다 부처님 도량 아닌 곳이 없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일체처가 평등 장엄한 불국토이지만 부처님을 대하는 중생들의 업이 제각기 다르므로 부처님도 중생의 마음 차원에 따라 나투신다.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우리에 들어가야 하고 물고기를 건지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부처님은 처처에 그렇게 나투신다.

그러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일체를 포함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이다. 옛 선사들이 부처를 똥 막대기라 했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겠다고 한 것도 개별적인 대상으로 보는 견해를 부수고자 한 때문이다.



부처님은 우러러보는 시선, 높이는 말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위대하다, 부처님은 높다 라는 것은 다만 세간의 말일 뿐이다. 차라리 부처님은 가장 낮다고 하는 편이 옳다. 진정으로 높은 이에겐 높낮이가 없다.

부모가 위대한 것도 자녀를 위해 모든 힘과 정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부모가 높기만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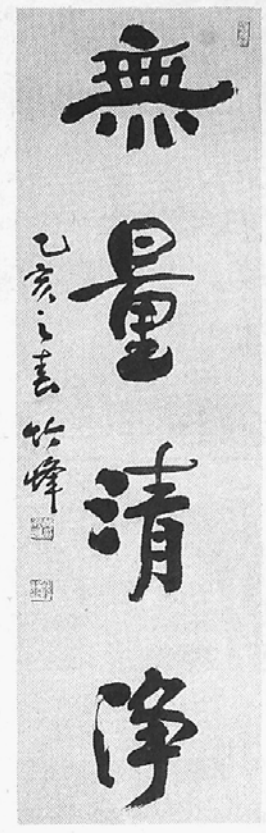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끔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가장 잘 호념하는 것이 된다.

협찬:허 연 자
부산시 중구 창선동 2가 동부백화점

부처님 오신 날 특집

각 종단 봉축 법어

"한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으니"



무량청정
온 우주가 맑고 깨끗해 끝이 없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청정한 마음 갖기를 발원해 보지.

◇ 황성현(호:竹峰): 한국서예작가협회이사.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 개인전 8회 개최 서예비디오 교재 제작.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머슴

조계종



◇월하 종정

모든 생명을 찬탄합니다.
생명의 존귀함은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각박한 현실이라도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여 내가 이기기 보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남을 기쁘게 합시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그 고통을 받습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내 고통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일체중생의 교주가 아니라 일체중생의 머슴입니다. 오늘은 말이 끊기고 생각이 다하는 날입니다.
물따라 산이 가고
산을 따라 물 흐릅니다. 억!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여 내가 이기기 보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남을 기쁘게 합시다."

참마음에 진정한 행복 있어

태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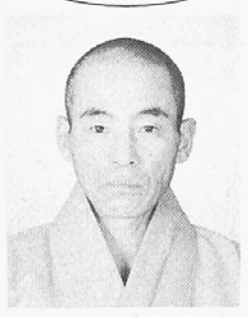


◇보성 종정

불타의 광명은 진리의 빛입니다. 너와 나의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으며 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온갖 삿되고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욕망은 강하고 절제는 부족하며 이기의 목소리는 높고 공존의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치가 상실되고 참다운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우주와 내가 한몸이라는 광범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에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인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헛된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잘못된 지견을 바르게 일깨워 사람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웃과 사회 그리고 온 인류를 내몸처럼 생각하는 동체대비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는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타의 참뜻을 다시한번 되새겨 사랑과 자비와 공존의 평화가 깃든 극락정토를 건설해 나갑시다.

화합으로 연화정토 건설을

천태종



◇도용 종정

부처님은 무명 중생계를 밝게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능문명의 진보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의 편의는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소외 그리고 육체본위적인 퇴폐사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 상실과 물질주의의 전도된 가치관과 퇴폐풍조의 범람으로 우리의 빛나는 정신문화와 전통이 흔들리고 인륜·도덕의 기본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인간정신계의 혼탁과 위기를 구제하는 길은 인간의 존엄성과 대자비·대평등을 밝히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즉 불성을 자각케 하고 비인간으로 전락된 중생을 인간본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과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화합정신과 동체대비의 이타행원의 실천으로 이땅에 연화정토를 건설하는 위업에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남북이 화합하고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길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남에게 회향하는 노력을

진각종



◇각해 총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청정한 법신이시면서 사바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셨던 분이니 부처님 오심은 삼계의 광명이요, 법계의 무한한 은덕이며 인류의 더없는 영광입니다.
중생의 본원성은 화해의 터전이요, 법계의 본연상은 화합의 만다라궁이니 이곳의 모든 유정은 은혜의 복전이라. 무릇 육대를 체로 하고 연기된 삼라만상은 상호 인연관계로써 맺어져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돕고 의지해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화의 불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법계의 본래면목을 깨달아 은혜를 잊지 말고, 수원은 일시라도 두지 맙시다. 은혜는 본유적인 것이요, 수원은 아상에 의해 전도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我)라 함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익과 안락만을 생각함이니 이 아상으로 인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탓하게 되니 먼저 남의 탓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회합시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업적을 남에게 돌리려 노력합시다.
실천하지 못할 것을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수원이 있는 곳에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화합과 행복의 만다라 세계가 장엄할 것이요, 웃음 넘치는 기쁨의 불국정토는 건설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 오심을 진정으로 봉축하는 것입니다.

팔만 세계 비추는 한줄기 광명

대한법화종



◇구암 종정

一老東照八千土
(일노동조팔천토)
한줄기 자비광명이 팔만공간을 비추니

大地山河如果日
(대지산하여고일)
온누리 억조창생의 가슴마다 충만하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어두운 무명을 깨뜨리고 온 법계를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비추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생노병사의 고해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을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니 어두움속에 방황하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눈빛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은 부처님의 손길을, 게으름과 좌절에 빠져 나약할 때 고행을 배워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오심의 뜻을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축하한다면 행복과 평화와 보은이 충만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생명 보호해야

법륜종



◇금암 종정

한량없은 공덕장이신 삼보님께 지성 귀의합니다.
만 생명의 어버이신 부처님께서 저 진리의 청정계에서 이 국토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거룩하셔라.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찍이 수많은 계법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불살생계를 설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남도 죽이지 말고 스스로도 죽이지 말라. 필경에 생명의 진리인 불성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자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면 필경에 존재의 실상인 자성을 대각하여 부처님께서 이땅에 화신으로 오신 그 은혜에 보답합시다.
모든 불자들은 거룩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존재의 실상을 바로 깨닫도록 수행정진합시다.
불자들이여, 무명으로 인한 모든 번뇌를 깨끗히 씻고 부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원합시다.

고해중생 제도코자 나투셔

관음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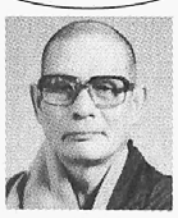


◇대천 종정

세존께서는 삼계화택의 생사고해에서 부침출몰하는 수많은 고통속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여 천백억화신으로 몸을 나투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일찍이 선교양문을 열으셨고 백천방편으로 수많은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시고, 도를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는 그 정도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는 지혜의 등을 밝혀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평등하게 베풀게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대법륜을 항상 시현하심이 어언 3천년이라.
바다와 같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 거룩하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넓고 높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항상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가득 넘치는 불국토를 이루도록 불제자 모두 축원합시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부처

삼론종



◇대산 종정

부처님은 오고 가심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를 깨달아서 비로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처인 것입니다.
석존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본래부터 부처여서 부처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은 본래에 입각한 평등관인 것인데 그러면 부처여야 할 우리가 어리석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생사번뇌의 지옥고를 겪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상만을 보고 현상에 휘말려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평등관을 망각한 차별관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면에 나타난 파도같은 생활이 아니라 바다전체와 같은 생활일 때, 겉으로 움직이되 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있듯이 현상의 갖가지 차별위에 살면서도 나는 본래부터 부처라는 평등관을 투철히 지닌 사람은 현상에 걸려서 증애(憎愛)의 감정에 휘말리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성을 지키어 밝고 바르고 착한 보살의 생활 무포외(無怖畏) 무고뇌(無苦惱) 대청정(大淸淨) 대안락(大安樂)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 침 의 소 리 나 누 는 기 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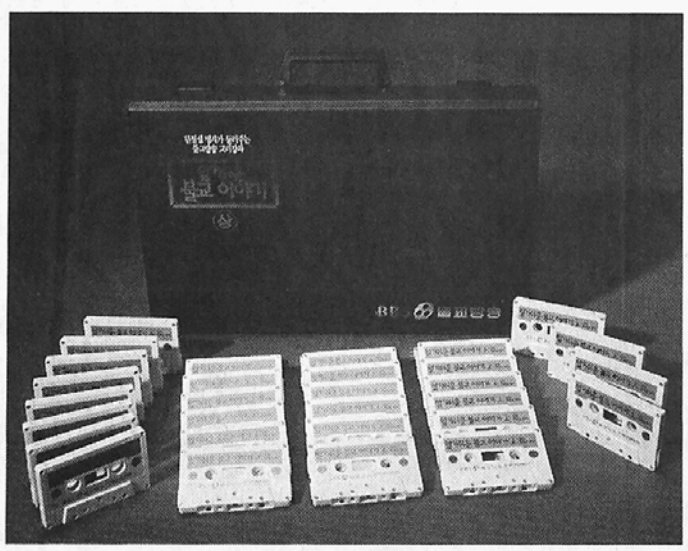
불·교·방·송·교·리·강·좌

알기쉬운 불교 이야기

강의:한정섭 법사

불교 교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쉽게 해설하여 올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도록 제작한 교양프로그램

포교일선에서 30년 동안 활동해온 한정섭 법사가 장장 6개월에 걸쳐 강의한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청취자들의 소망에 따라 상·하편의 오디오 테잎으로 만들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上篇 부처님의 탄생·출가·구도·전법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佛紀年代와 名號 家系, 석가족의 생활과 연혁을 고고학적인 자료와 풍부한 설화를 통하여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베일속에 가려져 있던 신비의 부처님이 친숙한 인간석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下篇 부처님의 말년 생활과 부처님 열반후 분열된 교단 속에서 대승불교가 싹트는 교리발달의 상황을 그 배경을 따라 설명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교리강좌를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는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올바른 불교 이해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성금동참가격: 상110,000원(C60×33EA), 하110,000원(C60×33EA)

어·린·이·불·교·만·화·영·화

우리들의 부처님

부처님 일대기, 만화영화로 본다!!

어린이 포교용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영화 '우리들의 부처님'은 상·하 2부작으로 각 35분씩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위대한 탄생(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제2편 '괴로움의 그림자(사문 출유)'
제3편 '길을 찾아서(고행)'
제4편 '새벽하늘의 별빛(성도)'
제5편 '자비의 발걸음(초전법륜)'
제6편 '널리 퍼지는 가르침(열반)'



숫도다나왕의 아들로 태어난 부처님이 한 예언자로부터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구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태자는 생·노·병·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되며 마침내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을 걸으며 5명의 수행자를 만났다 헤어지고,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들의 온갖 술수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여 가르침을 널리 펴시다 80세에 거룩한 열반에 들게 된다.

만화영화의 잇점을 살려 쉽고 친근감 있게 만들었으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금동참가격 : 상·하33,000원 (VHS35×2EA)

BBS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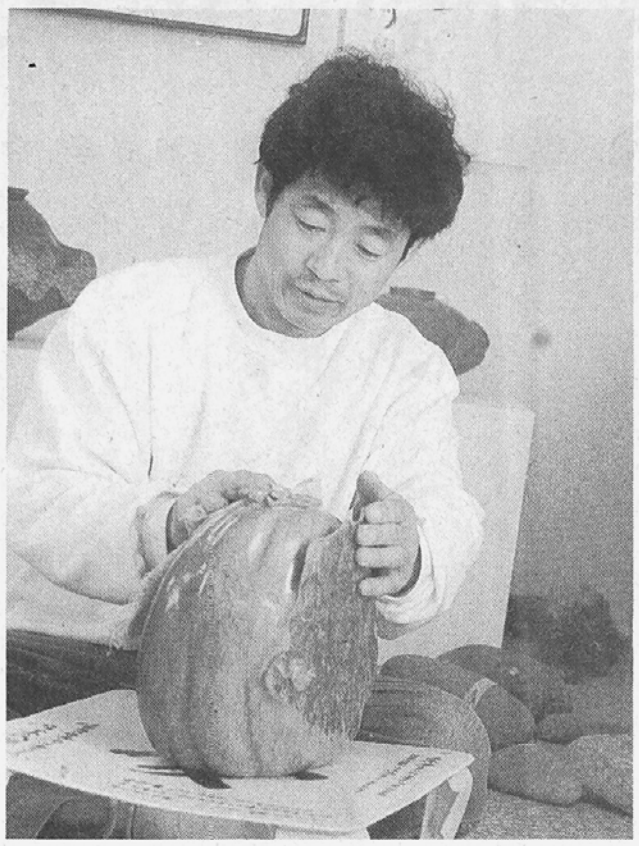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기타 지세한 문의는 불교방송 사업부 전화(02) 705-5302~6및 각 사침이나 불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중앙국 02-705-5302~6/부산지국 051-644-5114/광주지국 062-520-1114/서울제1사업소 02-706-3502/서울제2사업소 02-745-6015-6/서울제3사업소 02-705-5308/서울제4사업소 02-705-5308/서울제5사업소 02-212-6306/서울제6사업소 02-705-5308/충청사업소 02-703-1181-2/강원사업소 0371-761-1276/대구사업소 053-755-9537/안동사업소 0571-52-0585~6/부산사업소 051-647-3393

서울101.9MHz 부산89.9MHz 광주89.7MHz

돌속에 돌 빼내는 일 내 작업

산문밖의 수행자

석공예가 김봉준 씨



강원도 원통에서 14㎞를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한 천도리는 맑은 곳이다.

물이 맑고 바람과 하늘이 맑으며 사람들이 맑다. 거기다 돌을 다듬어 부처님을 만들고 벼루, 화병, 술병을 만드는 김봉준씨가 있어서 천도리는 더욱 맑다.

'돌을 쪼다가 도를 통한 사람'

중광스님과 소설가 이외수씨, 가수 이남이씨가 붙여 준 김봉준씨의 별명이다.

"그저 돌 속에 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뿐"이라며 "별명처럼 되라는 질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지만 김씨는 '도를 통한 사람'의 경지를 아는 사람이란 생각은 지울 수 없게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나무뿌리가 돌을 뚫고 수맥에 닿아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뿌리가 돌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씨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면 불 보살님의 얘기 소리가 들리고 거북의 움직임, 꽃이 화사하게 담긴 꽃병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더러는 몇 달이 또 더러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가져다 둔 돌덩이를 자르고 깎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 번 시작한 작품에 생사를 건 정성을 들인다. 마음으로 들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본 돌 속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천도리에 살게 된 것도 도화석(桃花石)이 이곳에서만 나기 때문이다.

돌은 이름도 많다. 옥석, 토중석, 난초석, 월광석…. 그 많은 돌의 이름도 결국 김씨의 마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명(改名)을 해야 한다. 수억겁을 두고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부처님이 태어났듯이, 그래서 수많은 이름으로 법계를 가득채운 부처님들의 회상이 아름답듯이.

"내가 나를 잊은 곳에서 그것들을

"이름내기 맛들이면 我相에 사로잡히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만들기 生死건 정성들여

"생명이 지나가려는데 어찌 돌이 비켜주지 않겠습니까."

이쯤되면 김씨가 도인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돌을 다듬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돌 사랑하는 방법 체득

4대째 돌다듬기 가업을 잇고 있는 김씨는 "돌을 다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돌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렇게 생겨먹은 돌덩어리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부처님과 보살님 혹은 꽃병과 거북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돌 속의 형상이 보이고 그 형상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야 비로소 김씨는 작업을 시작한다.

"처음 돌을 가져다 놓고는 그냥 못 본 체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돌이 돌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 혹은 거북이나 꽃병으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다시 못 본 체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

쪼고 다듬는데 돌인들 자신의 이름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작업실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날마다 거북, 꽃병, 수병, 벼루들의 생일날입니다. 완성이 되든 작업중이든 매일매일이 그날 하루만큼의 탄생일인 것입니다. 나의 손에서 뭔가의 이름을 얻기까지 돌들은 다만 무명의 씨앗일 뿐입니다."

김씨는 그 이름없는 씨앗에 뜨거운 예술혼으로 '황옥 부처님' '난초석 술병' '월광석 꽃병' 등의 새 이름을 얹어 주는데 보통 한 작품에 수개월 내지 2~3년까지의 시간을 쏟는다.

그런 철저한 장인정신을 이미 여러 곳에 소문이 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대통령들의 낙관을 도맡아 새겼으며 제주도를 방문했던 고르바쵸프도 김씨가 다듬은 낙관을 선물받아 갔다. 요즘도 전직 대통령들이 귀한 선물을 하기 위해 그에게 주문을 한다.

"이름이 난다는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이름 내기에 맛들이면 내 몸속에 너무 많은 내가 생겨나서 못씁니다. 내게서 이름을 빼야 비로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김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를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2등일 수 없다는 김씨는 "똑같은 1등끼리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사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자신의 세계관을 털어 놓기도 한다.

"오히려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2등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빼내는 작업은 커녕 자꾸 채우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채우다 보면 점점 더 채워야 하고 그런 와중에 인간세계는 극도로 흉폭해 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그 위험수위를 넘긴 시기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김씨는 마음 닦는 공부야말로 유치원생들의 산수보다 쉽다고 잘라 말한다. 덧셈과 곱셈, 나눗셈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저 뺄셈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자신을 빼는 것이 마음 닦는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김씨.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빼고 죽음과 삶 마저도 빼어버린 곳이라고 정의내린다.

"돌 속에는 돌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돌 속에서 돌을 빼내는 것이 내 작업입니다. 쓸데없는 돌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작품이지요."

천도리의 맑은 냇물이 굽이도는 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돌을 깎다가 국화차를 마시고 국화향이 방안을 채우면 먹을 찍어 산과 달, 학이나 메기를 그리거나 시를 쓰는 김봉준씨. 그는 돌 속의 돌을 빼내다가 자신에게서 자신을 빼내버린, 그래서 해맑은 웃음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작업실에 걸린 그의 시 한 수에서는 스스로를 빼내버린 사람의 향기가 삶과 죽음마저 뛰어넘은 곳까지 흐르고 있다.

내 죽어 제사지낼 때 풍악을 울리거라.
향불대신 진달래 산국화 꽂아 놓고 덩실덩실 춤추어라.
내 이 세상에 나왔다가 마음껏 놀다 가노라.

〈원통=임연태 기자〉



삽화 · 이기선

연기법으로 일체평등 증명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㉕

부처님

오신뜻 예찬 반야의 등 켜자

종로 네거리에 수많은 등불이 밤을 밝힌다. 환한 대낮 같다. 부처님의 등불을 사람마다 하나씩 헌등하였으니 사바가 극락이다. 산간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도 갖가지 연등으로 세상을 밝히는 천하제일 금수강산이 연꽃으로 장엄된다.

아!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저토록 가난한 노파도 등불을 밝히고 한없이 가멸한 재벌도 등불을 들었으니-빈자 부자가 일여등(一如燈)을 밝혔으니-이 세상이 평등세계가 되는구나.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누구신가. 가비라국의 왕자이시다. 부귀와 영화가 온몸에 드리우고 행복과 안온이 가슴 가슴에 가득한 태자이셨다.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하시어 온갖 고행을 다 겪으시고 궁극에는 깨침을 얻으신 부처님이 되셨다. 나는 일체를 다 아는 자이고 또한 나는 일체를 다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아셨고 무엇을 이긴 자인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아셨다. 연기법의 실체를 깨치신 것이 다 아는 것이고, 마음의 오감과 마음의 욕망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이긴 자의 목소리이다.

마음속 욕망을 버려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 물리력을 조금 이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식욕·색욕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즐길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을 할 줄 알면 다 알았다고 뽐내고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겼다고 할 때도 정복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아셨다 이겼다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상세계의 원리를 깨친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속물적인 근성에 사로잡힌 인간이 지(知)라고 하는것 승(勝)했다고 하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세상사에 함몰된 상황을 의미할 뿐이다.

부처님이 깨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평등화이다. 인간은 계급화하는 사고의식에서 생명은 평등성이라고 깨쳐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계급화,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 계급화, 차별화는 자기는 남보다 다르다고 하는 선민의식에서 비롯하여 급기야 신권의식을 갖는 것이다.

인도 고대 사상가·종교가들은 선민적 신본주의에 의거하여 특수한 계급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본주의의 사고의식을 절대화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상하가 있을 수 없고 고하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연기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생명은 신비한 것이다. 무명한 중생의 눈으로 생명을 한 번 깊이 관찰해 본다면 신이하고 미묘한 삶의 방법을 갖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이러한 생명의 실상을 건너보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마구 살고 있다. 희생봉사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을 계급적으로 파악한 사람은 약육강식이 상식의 길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인간이 참답게 설 자리를 일탈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실상은 하나같이 삶의 권리를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직관하셨고 이 삶의 한 복판에 모든 여래의 생명체가 있음을 깨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뭇 생명은 종과 류를 달리하고 있어도 생명은 일여평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서로 양보하는 삶 추구

우리들 세계가 여러 형태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의식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본주의적 사고의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복의식이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인본주의에 중심을 두고 살려는 인간은 인간호혜평등의식이 생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여타의 다른 생명에게도 있다고 관계지울 수 있는 아량이나 도량을 키워 나간다면 생명사랑의 믿음으로 전이될 것이다. 이렇게 전이성숙하게 하려는 의식이 아뢰야식의 전변이다. 아뢰야식의 전변은 무명 삼독을 광명, 반야로 전환시키려는 환원적 발동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산하대지에 위치한 사찰, 거리에 등불을 밝히고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고 예찬 노래하는 것은 바로 무명삼독을 완전하게 환원시켜 반야광명으로 맞이하려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등불만 환히 대낮처럼 밝히고 그 속에 의식의 변화, 사고의 환원이 없다면 눈어두운 사람이 등불을 밝히고 암야를 거니는 것과 진배 없다. 환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비로광명을 밝히는 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 깨침의 마음으로 환치하는 법회인 것이다. 부처님 오는 등 밝히고 마음 밝히는 철학적 사고를 주신 초파일 정말 경하하고 경축드립니다.

소각기의 대중화 시대 선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형이동식 간편소각로 개발성공"

소각기의 작동원리 및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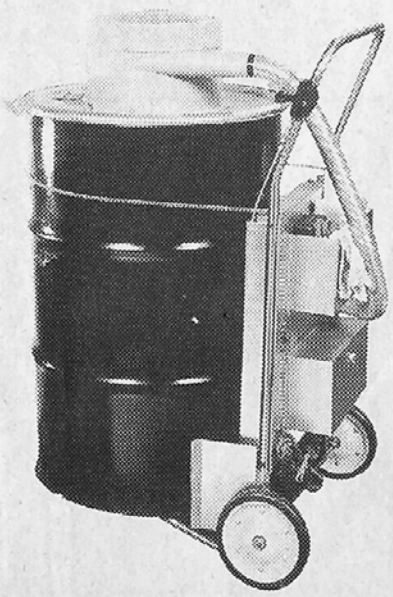
본 'CAN-소각기'는 연소드럼, 집진커버, 송풍기가 부착된 수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소드럼에 소각물을 투입한 후, 집진커버를 밴드클램프로 고정시키고 검시공을 통해 수동 점화시킨다.
② 점화후 송풍기를 작동시키면, 원형의 연소드럼 벽을 따라 공기가 주입되어 고속의 와류를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발생분진을 연소드럼의 중앙부로 회전상승 시킨다.
③ 발생매연은 집진커버를 통과하면서 싸이클론식 원심분리력에 의해 연소드럼 내에 계속 잔류하며, 이때 유독성가스의 열분해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④ 소각이 완료되면 5~10분간 냉각시킨 후, 소각물을 재투입하여 몇 차례 반복소각이 가능하며 잔여재는 적당량이 쌓이면 제거한다.

소각기 사양

- 처리용량 : 15 ~ 18kg/hr
- 총 중 량 : 52kg (드림 34kg 포함)
- 본 체 : Drum ø 570 × 870H [㎜]
  용적 0.22M³ / 재질 SS41
- 집진커버 : ø 600 × 200H [㎜](SUS 304)
- 송 풍 기 : AXIAL VANE TYPE
  19,000RPM × 0.25HP × 2sets 2.87³/ MIN

사찰, 포교당, 은행, 학교, 병원, 가정용 등



CAN-소각기
미국특허 No. 3791319호
실용신안출원중 No. 16352호

- 미국의 CROSSINBOW INC.에 의해 개발
- EPA(미국환경보호국)에 의해 공인
- "CAN-소각기"는 독창적인 유체역학적 설계
- 각종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간편소각기'입니다.
- 가정용 전원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료를 일절 사용치 않으므로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

소각시 주의사항

- 수분이 많은 것은 건조 후 소각하십시오.
- 연소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연소시 드럼본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 소각 후 약 10분 후에 개폐하십시오.

"연세대 보건과학 연구소에서 성능 입증"

대상 폐기물(100%)별 배기가스 성분의 평균농도

폐기물종류 측정대상물	종이	폐섬유	플라스틱 필름	고무	사무실 쓰레기	기름 걸레	기준치
평균NOx농도	37	160	52	176	100	180	200(ppm)
평균SOx농도	79	250	15	119	20	76	300(ppm)
평균CO농도	400	350	*100	550	250	58	600(ppm)
평균O₂농도	17.0	12.0	17.0	7.0	13.0	10.4	(%)
평균CO₂농도	3.0	7.5	3.2	13.2	6.9	10.2	(%)
분진농도	91.0	80.1	67.5	41.1	36.9	91.0	100mg/sm³
탁 도	0-1	0	0	*1-3	0-1	0-1	2도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십시오.
- CO, SO² 및 분진농도는 O² 12%일 때의 기준임.
- 감중율(잔여재/초기폐기물량)은 3~5%
- 이 성능시험은 1995년 2월 2일 '연세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함.

南陽 통신부 생산기술원 TBI사업 지원업체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07-22 ☎ 679-2799 675-5805 홍판:바트코리아 785-1362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내가 좋아하는 법구

부처님의 말씀은 불자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불자라면 자신의 생활에 등불이 될 한 구절의 법구를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계 내외의 명사들은 어떤 법구를 가슴에 새기고 있을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수시로 자신 비춰보는 '거울'



서 정 주 〈시인〉

拈花微笑(염화미소). 부처님과 가섭이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 받는 대화의 모습. 그 '말없음'의 세계야말로 수다스럽고 번잡한 우리 세상을 찬란한 중생계로 만들어 가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전등록〉



송 석 구 〈동국대 총장〉

若以色見我(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불능견여래) 부처님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이 곧 부처이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금강경〉



주 양 자 〈민자당의원〉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만약 삼세의 모든 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자성을 살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화엄경〉



강 우 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것이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緣起法頌〉



이 은 윤 〈중앙일보 국장〉

體露金風(체로금풍)
벌거벗은 몸에 금바람. 탐욕, 잡념을 다 떨어낸 상태가 되면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간다.



박 세 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無有淨法(무유정법)
淨法이란 법을 더럽히는 죄의 때가 없는 청정함을 뜻한다. 평상의 마음을 如法하게 하면 '정법'이 따로 없다는 것.
〈화엄경〉



이 정 부 〈불교TV 아나운서〉

나의 업은 청정한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깨끗이 하여 해탈케 하나니, 모든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경집〉



박 재 동 〈시사만화가〉

누구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너도 옛날엔 그랬느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잘 대하고 미워하지 말라. 언젠가 한 때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느니라.
〈법구경〉



서 돈 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법구경〉



홍 사 중 〈조선일보 고문〉

平常心是道(평상심시도)
조주가 남전에게 물기를 '어떤 것이 도인가' 하니 남전이 대답하기를 '평상의 마음이 道이다.'
〈조주록〉



문 희 웅 〈명성여고 교장〉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無所住) 마음을 내라. 집착을 떠나 無心으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은 나와 일체가 되고 모든 사물은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다.
〈금강경〉



이 상 범 〈시인〉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이 잘된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스며들지 않는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한 말씀.
〈법구경〉



한 기 호 〈주간신문협회 회장〉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르듯이.
〈법구경〉



민 희 식 〈한양대 교수〉

너희들은 삼계(三界)의 불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누추한 빛 소리 냄새 맛 부딪침을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고 애착하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성문이나 벽지불 또는 불승을 얻으리라. 〈법화경〉



김 대 성 〈문화일보 문화1부장〉

몸에 병없길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病苦로써 양약을 삼으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의롭고저 하면 의리를 상케 되나니 순결함으로써 사귐을 길게 하라. 〈보왕삼매론〉



F.테데스코 〈세종대 교수〉

죽음의 왕(염라대왕)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숫타니파타〉



이 기 영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歸一心源(귀일심원) 饒益衆生(요익중생)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
〈금강삼매경론〉



김 종 규 〈삼성출판사 회장〉

보살은 이웃을 이롭게 하면서도 '나'와 '남'이라는 생각, 베푼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제몸도,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복밭도, 업도 과보도 그 결과도 보지 않는다. 〈화엄경〉



김 정 환 〈동대부고 교장〉

心卽是佛(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이니 수행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이입사행론〉



전 창 열 〈변호사〉

몇 생을 닦지 아니하고 헛되이 주야를 보냈으며, 얼마나 살릴 헛된 몸인데 일생을 닦지 아니 하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리니 후신을 어찌하랴.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발심수행장〉



박 동 기 〈W.F.B.한국본부 회장〉

若人靜坐一須臾(약인정좌일수유)
勝造恒沙七寶塔(승조항사칠보탑)
사람이 잠시동안 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 만큼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낮다. 〈반주삼매경〉



송 춘 희 〈백련장학회 회장〉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따라 바람따라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게송〉



이 광 한 〈LG팀 감독〉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다.
〈보왕삼매론〉



조 영 황 〈변호사〉

平常心 不動心(평상심 부동심)
평상심은 마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평상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평상심을 지키는 것이 부동심이다. 〈전등록〉



김 지 견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화엄경 도리를 터득하면 붕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지상을 내려다 봄과 같이 상쾌할 것이다. 그러나 산에서 사는 작은 새는 숲속을 의지하고, 송시리떼는 여울에 살면서도 편안하니 어느 한쪽도 버릴 것이 없다. 〈화엄경소〉



정 재 철 〈민자당의원〉

雖多誦經(수다송경) 不解何益(불해하익)
解一法句(해일법구) 行可得道(행가득도)
아무리 많은 경전 외우더라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익 있으랴. 단 한 구의 법을 알아도 그대로 행하면 깨달음 얻으리. 〈법구경〉



강 부 자 〈민자당의원〉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묶은 지푸라기에는 비린내가 난다.
〈아함경〉



전 용 찬 〈청량리경찰서장〉

平常心 卽 佛心(평상심 즉 불심)
바로 옆집도 마음 없으면 발길이 안가지만 천만리 먼데라도 마음있으면 달려가듯 답답할 때 마음의 절에서 부처님뜻을 헤아려 보는 평소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임을 알아야 하겠다.〈전등록〉



김 징 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부처님 고살라국 어느 숲에 가 타탈리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드니, 숲의 신 바람 일으켜 타탈리 꽃잎 흩날리며 부처님께 공양하네.
〈잡아함경〉



이 계 진 〈방송인〉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갚음을 가져오리라.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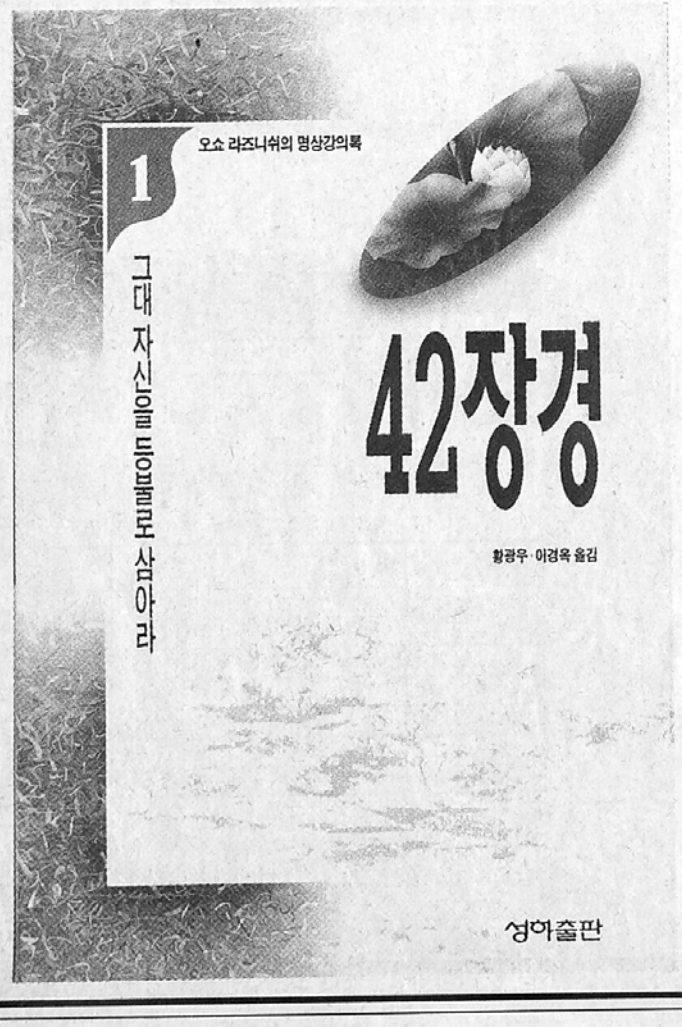
정 찬 주 〈소설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김 태 곤 〈가수〉

無量遠劫 卽一念(무량원겁 즉일념)
一念卽是 無量劫(일념즉시 무량겁)
무변의 원대한 겁이라 해도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내 마음의 한 생각이 무량겁을 담고 있다. 〈의상대사 법성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과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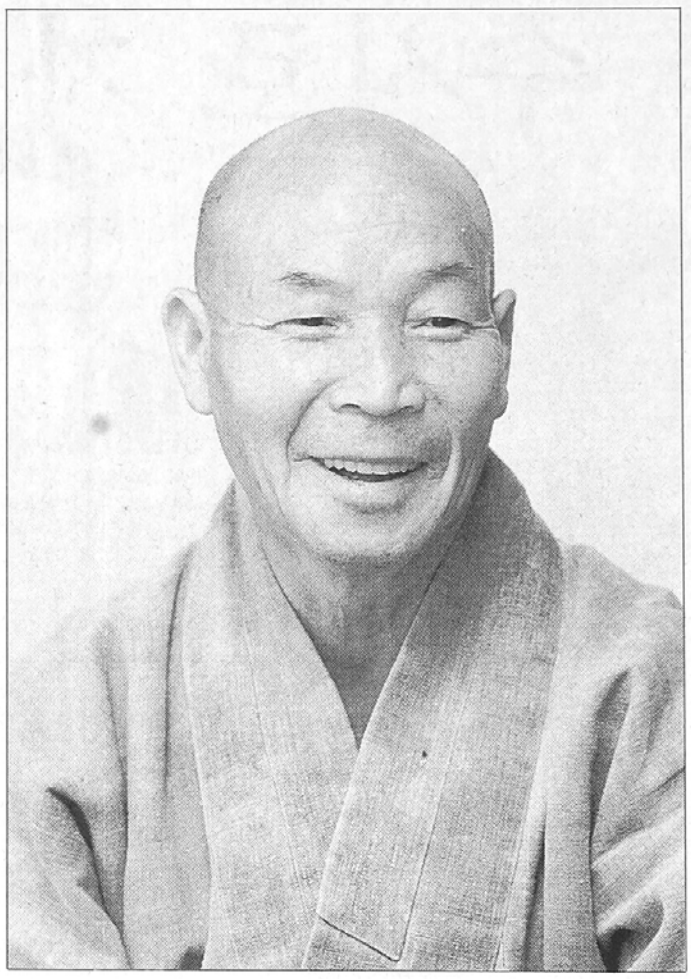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저·역자 /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가 격 / 각권 7,500원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발행처 / 도서출판 성하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

봉 축 지 상 법 석

"잘살려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활 안 스 님
〈조계산 천자암 조실〉



'나'를 비워야 바로보고 쓸줄아는 지혜 얻어
믿음 확실할 때 기도성취…회향하는 삶 돼야

사월 초파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주만유의 근원이요 생명 바탕의 기본입니다. 생명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의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천진지혜, 마음자리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본 바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난 뜻이 이와 같아서 천지등불이 되어 뭇 생명들에게 생명의 본 뜻을 알려주고자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생산법이 확실합니다. 모든 생명이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 생명의 뜻을 직시하여 궁극에는 마음 근본자리가 얼마나 밝은가 알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잘살려면 사는 법을 알아야 하고 사는 법을 알려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밝으려면 보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은 닦는 것도 쌓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뜻

그릇이 확실하면 다 수용할 줄 알고 몸과 마음이 밝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해집니다.

지구는 공전 자전과 풍마로 깎아지고 먼지로 분해돼 공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나의 다함이 없는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성청정을 견성하는 원리입니다. 견성은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생명의 다함이 없는 기본 원천입니다. 지혜는 상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도 아닌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대는 한마디로 나무 한 그루와 같고 지구처럼 큰 나무그늘과 같습니다.

나무는 처음 생성될 때에 불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한그루가 불을 만나면 나무는 불로 바뀌져 버립니다. 불로 한번 바뀌지면 다시 나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막힌 인연입니까?

부처님 말씀에 복은 하늘이 주고 진리가 주고 자연이 주고 천지가 주고 상대가 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되고 전체의 생명은 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비단 인간 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뭇 생명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 생명만을 위한 월권 또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산법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는 5천년인데 종합평가를 해 볼때 위대한 정치인도 없고 위대한 철인도 없고 위대한 학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커도 더 커야하고 아무리 해도 더 잘해야 하니 결국 밑바닥이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몸뚱이만 있고 눈이 없거든요. 지구가 돌 뿐이지 어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는 눈이 진짜 주인의 눈이요, 답할 줄 아는 눈이 자성의 참된 표현입니다. 자기 생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가 하나임을 분명히 직시합니다. 하나에서 유무의 생명이 탄생되고, 걸어가는 길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생명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밝고 끝없이 어둡고 끝없이 자유롭고 끝없이 부자유하며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가 똑같다 이겁니다. 뜻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와 상대가 동일한 터전에서 성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중에 할 일을 먼저하고 먼저 할 일은 나중에 하면서 일은 본인이 그르쳐 놓고 세상사람들이 나를 속였다고, 세상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상하다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 넘기는데 실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생명이 시작했는데 생명을 놓아두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입니다.

생명의 주인 '마음'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겨도 무생입니다. 무생지(無生地)서 생이 탄생되면 그 생 자체에 하자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큰 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쌓는 것이 아니요 바로 보았을 때 입니다.

그릇이 확실하다면 다 수용하고 심신이 공해야 합니다. 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그릇에 차이가 있다면 지구가 천번 만번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바로 보고 쓸 줄 아는 이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을 비어버리고 장사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도를 닦든지 염불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은 제불성현과 똑같습니다.

잘 살려면 밝아야하고 밝을려면 천진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생도 공부는 상근기가 필요없고 소승·대승이 필요없고 일등이 필요없고 근기의 많고 적음이 필요없습니다. 공부가 안되는 것은 마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고 오직 마음만 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타버리고, 차가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얼어버립니다.

예전에 광양 백운산에서 4년동안 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낫으로 손을 베었습니다. 손을 쥐고 방에 들어가 있으니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지더군요.

"나이 50이 되도록 이렇게 가난하더냐."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와요. 피를 보고 웃음이 나오고, 내가 이래야만 성불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 된장 국을 끓여 먹고 참선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에 비로자나 여래상 같은 큰 부처님이 나를 팔베게로 끌어 안으며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제불성현도 타고난 깃털을 쓰지 못하면 다 녹슬어 버린단다. 다 그렇게 외로웠단다. 너만 외롭냐" 이렇게 얘기해요. 벌떡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불하려 하니 가지고 있는 도를 모두다 주시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잘못 자기 탓

내 이름이 활안입니다. 살아있는 눈인데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죽은 눈이 되려하면 죽은 눈이 되고 또다시 산 눈이 되려고하면 산 눈이 되고해요. 이렇듯 생명은 확실해야 합니다. 각자 생명을 따져놓고 보면 어느 생명이든지 뒷처리를 다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것은 부모한테 의지해야하고 자식, 돈, 자기인격, 상대에 의지해야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나는 밤을 한 술 뜰 때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말없이 들으시요, 내가 과거 세상에는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상황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끝없이 의지해 왔지만 끝없이 모든 상대를 다 빛을 내게하고 상대를 다 보탬느끼게 하고 나를 의지하려는 곳에 다 기쁨만 주겠습니다"합니다.

공부를 안하는 사람이 계를 지키려 하고 경을 보며 참선하려고, 화두에 들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림이 없습니다. 때묻지 않는 확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 우주법계를 관장하는 것은 비로자나의 법체가 아니고 비로자나의 모양이 아니고 비로자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옛날에 방거사가 마조 스님에게 찾아가서 "스님 일체의 상대와 더불어 벗을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니 "한입으로 유무의 삼매상을 다 소화시켜야 너에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숨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을 미루지 말고 때가 되면 인정사정 없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도 우주 공간 속의 지구가 움직입니다. 모든 생명이 동시동처에서 같이 호흡을 해도 호흡의 기본량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천진지혜의 양도 그와 같습니다. 부귀영화나 제불 성현의 자격은 언제든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되는 이가 설계를 확실하건 불확실하건 요놈을 처리할 줄 알면됩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한 생명이 우주 시방법계의 주인 되는 이치 알게됩니다.

마음이 얼마만큼 확실하냐 체증하냐, 바탕이 얼마만큼 확실하냐, 이럴지언정 어디 딴 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상대도도 무생지서 탄생하고 붙은 뜨거운 것에서 끝나지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의 원리로 화하기 때문이요, 무생지서 생이 탄생된다면 그처럼 불과 같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릇이 불확실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릇이 아니라면 아(我)가 공해버려야 합니다.

실신의 건강을 헤아리는 것도 우주법계가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저장하면 끝나기 전에 다시 되돌려도 그 인격과 성불의 경지를 다 알려 주고도 모자라지 않고 이처럼 건강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서 건강의 댓가가 일체 중생에게 회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불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고 성불 안하면 안돌아 올 것입니다.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되어 여러분들 성불하기 바랍니다.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간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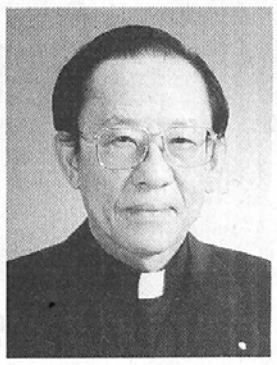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부처님 오신날 특집

타종교 성직자 봉축 설법

김 몽 은 〈대치동 성당 주임신부〉



"인류제도 원력 펴신 뜻 되새기며 집착 버립시다"

부처님 오신 날도 크리스마스 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자들은 경축행사로 바쁘게 보낸다. 물론 인류의 제도(濟度)를 위해 크신 길을 여신 은덕을 기리며 경축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탄생이 있지 않다면, 그날 하루만의 경축은 들뜬 축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런 뜻 깊은 날이 해마다 연례행사로만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답답한 심성이 되고,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설하신 그대로 자아(ego)없이 살아갈 수 있는 슬기를 터득하여 무사(無私), 무욕(無慾), 무소유(無所有) 등 경지의 성숙한 인간이 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인간을 비인간화로 몰고가는 무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타락된 퇴폐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슬기롭게 실천해 갈 수 있으며, 제도중생을 구현시켜 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한다.

온갖 부조화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종교인들이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 어두운 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일뿐이다.

사회가 점점 극악해지고 살벌해지는데 대해 종교인들이 깊이 참회해야 한다.

바른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은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각자가 스스로 체득한 바를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혔으면 싶다.

변 선 환 〈前 감리교 신학대학장〉



'응애' 소리는 대지혜일까

부처님은 탄생 당시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일곱번 돌고 사방을 보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말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아기와 똑같이 '응애 응애'라고 울었을 것같다. 그 울음소리를, 깨달은 선사들이 '소리없는 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들었을 것이다. 아기는 분별을 넘어선 주객미분 이전의 '무'의 경지, 진공무상 한가운데서 '응애'라고 소리쳤다. 그 무의 소리는 '나없는(無我)나', 무상(無相)의 자기의 실현이다. '우아독존'이란 자타(自他)가 없혀있는 상대차별의 세계속에서 타아가 아닌 자아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차별세계가 아니라 '지타불이(自他不二)'의 절대평등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이다. 아기가 '응애'라고 토한 것은 조주선사가 '무'라고 토한 '무자(無字)'의 화두와 같다.

대상화된 자아나 부처란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은수선사는 '살불살조'를 주장하였다. 어느날 은수에게 참회의 대상인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무엇을 향해 참회하겠는가고 물었다. 은수는 '노(露)'라고 대답하였다. 참회(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전체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므로 '큰 삼매'가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은 기독교인에게 경전이나, 부처님과 예수가 왜 동쪽으로 왔는가라는 본래적인 이유를 묻게 하며 진리의 근원을 향하도록 권연한다. 불자들처럼,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절대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불교와의 만남에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인

참회대상은 나로부터

종교의 비신화의 과제에 대하여 기독교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열어야 할 것이다.

시험삼아서 아기 부처님 처럼 '응애'라는 소리를 토해보라.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분별지(무명)일까, 반야의 무분별지(대지혜)일까. 증오일까, 대자비의 소리일까.

김 재 중 〈천도교 교령〉



불심으로 한국병 치료

'일체법무생 일체법무멸 약능여시해, 제불상현전(一切法無生。一切法無滅 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화엄경 권16 수미정산게찬품〉'이란 부처님 말씀은 세속의 인간고뇌에서 해탈하여 열반으로 가는 인간완성의 도반을 온 인류에게 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로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불성의 자리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발전적인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

불성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우리 천도교에서 말하는 시천주(侍天主) 즉 인내천(人乃天)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현실은 무책임하고 방종적인 자유와 배금사상이 팽배하여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성은 깨어지고 말세적인 징후마저 노정하는 정신적인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정신적인 사회적 병폐를 우리 종교인들이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소위 '한국병'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사람의 심성을 '불성'으로 개조하는 일일 것이다. 신도들이 모두 보살이 되어 내면으로는 최고의 인격인 '불성화'가 되어야 하며, 외면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선봉대로서 현실참여에 적극성을 띤 국적있는 호국종단으로 그 위상을 부상시켜 나아갈 것을 바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는 첫째, 사찰을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통념을 초월하여 민족정신문화의 '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3·1운동 당시 천도교·불교·기독교가 연합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통일의 성업

전국사찰 정신도량화

에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결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계가 종정스님,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여 불교 발전에 정진 하실 것을 마음깊이 바라는 바이다.

오 충 일 〈군산 복음교회 목사〉



분단 50년 수치세월 벗고 자비로 민족통일 길 열자

세속 도심의 생활을 떠나 잠시만이라도 산을 찾을 때면 명산이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절이나 암자를 만나게 된다. 때로는 길이 험한 산골에서 단아하고 청정한 모습의 절을 볼 때마다, 우리 사는 산하 어디서나 불심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 때마다 삼국 시대 이래 이 민족과 함께 해온 불교의 고마움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현세의 탐욕과 비명에서 자유케 하는 구도자의 길을 열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중생에게 구도의 길을 가게 했을 뿐 아니라, 민족과 함께 애환을 나눠온 불교는 때때로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의로운 싸움을 함으로써 민족을 지켜 왔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에 자리 잡은 절은 시정에 사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도량이었고 외적을 막는 전선이었으며, 이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간성이었고 민족문화 창달의 요양이었다.

올해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은 더욱 큰 뜻이 있는 듯 보인다. 탐심과 집념으로 풍요속에 날로 증가하는 모든 악과 어둠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50년의 민족사적 수치를 떨치고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남과 북, 모든 해외 동포는 하나됨의 인연을 깨우치고 자비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전쟁과 원수 맺음과 쌓인 한들이 모두 잘못된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고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을 찾아 통일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범죄로 병들어 가는 것과 함께 삼천리 금수강산이 모두 오염되고, 찢기고 탄식하고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자연마저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 탐욕이 지은 죄가 바로 우리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오심으로 온 누리가 크고 넓은 자비심으로 본래 자기 모습을 찾고, 제생명을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 742-1231

진 관 사
주지 진 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

약 사 사
주 지 장영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자광사
주지 이원행
대중일동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 822-9219 / 팩스:(042)822-9220

문화재 수리: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장 정규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 730-8072 (야)648-0930

보 경 사
주지 진 현
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 (0562) 62-1117, 62-0149

일 붕 사
주지 박대선(연성)
신도일동
초하루 보름법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산 13-2
☎ (0343) 73-6492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주지 평 중
대중일동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 444-4321, 7215

낙 산 사
주 지 석마근
신도회장 김관음행
유치원 원감 정 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0396) 672-2448

성 국 사
주지 덕 봉
신도일동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산 400-16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신도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 (0339) 57-2695/3916

청 룡 사
마야합창단
주지 김법운
합창단·신도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치악산 홍련암
주 지 운 호
신도회장 김정숙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교학2리 153
☎ (0371) 45-0448, 731-0448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서울 종로 대각사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조사 창건도량
조실겸 주지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부주지 불심 무심 노전 / 도문 보광 보월 / 선덕 법사 총무 / 월남 각천 / 경운 청청 무진
서울시 종로구 대각사
☎ 765-0972 / 팩스:742-2126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위탁운영제: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관장 이광우
임직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 646-6815~9, 646-0181~5

성 불 사
주지 도 원
대중일동
신도일동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8-1
☎ 400-5915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회장 김재일
회원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732-1206

법안정사(목동큰절)
회 주 김효경
포교원장 김현도
신도회장 원숙경
신도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 646-4975·653-4888 / 팩스:643-6136

관 음 사
주지 종 하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

사회 인사들의 한 말씀

삶속에 스며드는 생활불교 돼야

최 근 덕 〈유도회 회장〉



"참음이 없다면 모든 행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선가귀감〉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음의 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욕 바라밀'을 대중 속에 널리 펴 화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장 을 병 〈우리정경연구원 이사장〉



아직도 불교는 현대사회속에서 개인복락을 기원하는 경향이 많아 불교의 역할과 기능이 좁혀지고 있음을 느낀다.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대중의 삼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불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배 명 인 〈前 법무부 장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지만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기록등에 불교계에서 너무 소홀한 듯해 아쉬움이 있다. 후세의 중생들을 위해 훌륭한 불교의 역사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 철 〈국회의원 · 민주당〉



갈수록 자비와 평화의 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상 모두에 그 자비가 넘치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아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불탄일의 넓고도 깊은 의미를 새기며 불교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

김 도 현 〈문체부 차관〉



지난 역사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한 시대 한 문명의 지침이 된 적이 있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와 공존이 가장 큰 과제인 오늘날 불교는 또 한번 지도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까. 목마른 대지에 내리는 새 시대의 단비가 되기를 불교계에 바란다.

한 승 원 〈소설가〉



물질적인 부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불만이 누적되고, 인간사회를 동물적인 사회로 만든다. 후기산업사회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인간성 회복과 도덕 재건설을 위해서 불자들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김 상 연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법구경에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또 안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처럼 올바른 몸과 마음을 지니도록 계도에 앞장서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정 해 숙 〈전교조 위원장〉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 가르침을 등불삼아 말보다 실천으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최 재 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한 사람의 삼외 스승이 수천명의 학문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는 진정한 '삶의 스승'이 없는 시대이다. 불교는 이 시대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나는 등대가 될 참된 삶의 의미를, 이론으로써가 아닌 수행으로써 몸으로써 보여줄 스승 자리를 찾아야 한다.

박 제 천 〈문학아카데미 대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고향, 지치면 돌아가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고향, 생각만 해도 흐뭇한 고향, 가볍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불교이기를!

하 일 성 〈야구인〉



종교는 인간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요즘 불교의 사찰들을 보면 점점 현대화 서구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대화도 좋지만 전통을 보존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 건 상 〈성균관대 교수〉



생활속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걸었던 불교가 제 모습을 찾고 있는 듯해 반갑다. 분규를 추방하려는 자정의 노력과 국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생활불교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우 상 호 〈청년정보문화센타소장〉



범종단 개혁이후 변화를 시도하는 불교계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가 중생구제와 민족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김 상 현 〈교원대 교수〉



올해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생명의 지중한 가치를 얘기함이 오히려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이 땅에 나셨음은 인류사의 가장 빛나는 한대목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화합과 지혜가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서 정 윤 〈시인〉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부자로 만들지 맙시다. 부처님은 충분히 부자이십니다. 자신의 내세를 위해 인간이 필요한 것으로 부처님을 더럽히지 맙시다. 부처님이 보시고 싶은 건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종 락 〈서울신문사 기자〉



요즘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자들의 사회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타종교 신자들에 비해 사회문제에 대한 감각과 의식결여가 심각하다고 본다. 승려들에 대한 교육도 개혁종단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의식불자」를 키우기 위해 모든 불교인들이 각성하고 분발해야 될 때이다.

특별대담

독일문화원장 오트박사 VS 영산스님



◇오트박사(우)와 대담을 나누는 영산스님.

"불상 볼때마다 마음속에 평화"

비폭력적인 불교에 '매력'

독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20여년간 고국을 떠나 각국의 문화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프레트 오트 박사(55세 문학박사)는 3년째 주한 독일문화원 원장으로 한국에 근무하며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일 불상을 바라보며 '내적인 평화'를 찾고 있다는 오트박사를 안산 고려선원 주지 영산스님이 만났다. 〈편집자 주〉

—한국에 근무하신지도 3년이 되셨는데 한국과 한국의 불교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즐겁고 평화스럽습니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저는 언제나 한국의 불교에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신도님들의 신앙심이 매우 돈독하다는 것과 사찰의 아름다움 그리고 불교 문화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지요. 그런 감탄의 순간들이 한국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어떤 봉축인사를 하시고 싶으신지요.

▲자연이 다시 살아 숨쉬는 좋은 시절에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 주위에도 많은 연등이 달려 있는데 이 등의 빛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원장님의 종교관은 어떤 것입니까.

▲20여년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다보니 아주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거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풍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 때 인류는 아름다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제 생각은 '내적인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을 다니다 보면 불상이나 탱화에서 한결같이 평화스럽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상을 모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여러 형태의 불상을 봤는데 한결같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처님상을 보면 모사품이라도 구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떨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흉폭해져서는 안됩니다. 인류의 마음이 깨끗하면 범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든 언론이든 정치든 모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독일 사전을 보니까 불교를 소개하는 대목중에 한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불교 자체가 평화와 인간의 성불을 추구하는 만큼 폭력적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역사적으로 불교가 제 기능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131-80
☎ 742-0172

은평포교원
삼 보 사
주 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석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 352-6406

한국불교태고종
선 정 사
주지 상 운
신도일동
경남 김해군 대동면 주동리 994
☎ (0525) 31-6389

조동종
청 련 사
주지 윤 지 명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 379-393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독일포교원 보문사
주지 병 오
베를린 Neve christ str. 4
☎ 0049-30-3256440, 3225737

대한불교조계종
화 장 사
주지 석 우
신도일동
경북 달성군 화원읍 천내1리 516번지
☎ (053) 632-5516

대한불교조계종
선 석 사
주지 지 환
경북 성주군 월암면 인촌 8
☎ (0544) 933-9800

연 화 정 사
주지 정 명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5-183
☎ 887-6458

종남산 **송광사**
주지 지 원
크로마 하~프 합창단
회 장 이 우 숙(아란나행)
회원 및 신도일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 (0652) 243-8681, 8091

대한불교조계종
선 안 사
주지 도 심
신도일동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308-24
☎ (051) 864-1600, 865-7769

대한불교조계종
성지 비슬산 **유가사**
주지 김 문 성
대중일동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2동 115번지
☎ (053) 614-5115

마이산탑사
주지 혜 명
신도일동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 (0655) 33-2900, 32-0652, 32-007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문 수 사
주지 허 혜 정
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2
☎ 391-2061

충 효 사
주지 이 현 종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339-5
☎ 430-8585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 각 성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 474-0554 / 팩스:472-5292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주지 김 대 성
금강회, 금옥회, 청년회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삼방동 662
☎ (0525) 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서울 포교당
대 명 사
주지 허 원 명
금강선원 회 장 이 돈 우
대명사 신도회장 배볼성화
금강선원 참선회: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정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0호
☎ 553-4856~7

대한불교조계종
능 인 정 사
성동불교포교원
주지 법 경
육바라밀 회장 성장엄각
능인불자일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1339 / 팩스:462-1339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덕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신도일동
부산 광역시 북구 만덕동 32-2
☎ (051)334-3009

재단법인 선학원
여 여 선 원
원장 혜 운
신도일동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 (053) 622-0336, 629-4945 / 팩스:(053) 655-3825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25〉

무전

무전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워낙 거센 파도더미에 혼이 났던 터라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마음은 음울한 상태였다.

이런 무전의 형편을 여성의 직감으로 알아차린 합두가 그에게만 싸래기죽을 끓여 주었고 인담에게 처방을 의뢰해서 탕약까지 정성스레 달여 주는 것이었다.

"합두스님에게 한 가지 더 할 일이 생겼네"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저쪽 바위 위로 가서 막막하게 앉아 있는 그 스님의 뒷모습이 심상치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번명 같아서 얼굴을 슬쩍 붉히기까지 하였다.

이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 나왔다. 합두의 눈길이 그런 무전의 눈길에 마주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슬픈 보석과도 같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다행히 밖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그 인기척에 의해서 합두의 손이 무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제 곧 공양을 지을 시각입니다"라고 말하고 합두가 방을 나갔다.

약그릇의 약은 그대로 있었다. 무전은 끝내 그것을 마시지 않고 식혀버리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 사이의 약도 거르는 일 없이 달여서 무전에게 가는 일을 합두는 그만 두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녀는 아무런 감정의 자취도 일으키지 않았다.

해가 수평선에 닿을락 말락하는 때에 다시 약그릇을 들고 지대방으로 들어갔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저 식은 약은 내일 데워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떤 댓가가 있는지 모른다. … "내 몸이 사람들에게 요염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죄가 있는지 몰라"

무전은 아주 순한 짐승처럼 약을 마셨다. 빈 약그릇을 건네주다가 그는 이번에는 합두의 손을 잡아버렸다.

"이 섬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일 밖에 없습니다. 헤엄치는 일로는 어림 없습니다. 합두스님!"

이 말은 배를 타고 떠나자는 강한 암시였다. 과연 무전의 말소리와 몸이 하나로 떨리고 있는 중이었다.

합두가 비로소 그녀의 검푸른 눈으로 무전을 쳐다보며 무전에게 한 마디 던졌다.

"이 섬에는 이 섬으로 돌아올 배 말고는 어떤 배도 없습니다. 스님의 마음이어서 낫기를 빌 따름입니다."

그녀는 손을 지그시 뺐다. 상대방에게 어떤 실망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였다.

하지만 합두는 밥 짓는 시각에 돕기 위해서 후원으로 들어온 우녀에게 "앞으로 며칠동안 스님께서 무전스님을 보살펴 주시지요. 제가 함부로 간병실에 드나드는 것이 자꾸 꺼려집니다."

우녀가 그런 합두의 사연을 간파하였다.

"아닙니다. 합두스님이 더 정성을 드려서 무전스님의 병을 낫게 하세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아름다운 합두에게는 무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다. 아름다움이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떤 대가(代價)가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일찌기 지아비를 잃은 뒤 그녀를 사모하는 사내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있었거니와 이제 그런 세속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들은 말 한 마디가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둔한 직선(直線)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연꽃을 두고 아름답되 요염하지 않다고 한 '애련설(愛蓮說)'을 일용하면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한 대목을 합두와의 사연 따위는 다 녹아버린 것 같았다. 합두는 전혀 무전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녀 자신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수행만큼 바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죽여야 하였다. 옛날 어느 아름다운 여승 때문에 남자 둘이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뒤 그 여승은 제 얼굴을 잉걸불에 묻어둔 다리미로 지져버려서 추녀로 바꾼 일이 있었다.

바로 그런 일을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끝내 무전은 마음의 상태가 본래대로 돌아왔다. 간병실로 쓴 지대방에서 나와 눈부신 맑은 날의 바다 앞에서 그는 본래의 그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새삼 그의 겨드랑에 바닷바람이 드나들었고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탁 트인 파도소리가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 무전의 눈에 합두의 뒷모습이 보여도 언제 그녀에게 향한 흠모의 색정이 있었던지 모르게 한 집안의 도반(道伴)의 그것이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등짝을 탁 쳤다.

"이제야 무욕도에 시름 하나가 날라갔어! 됐어! 됐어!"

"그동안 고생을 시켜 드렸지요"

"아니라네, 됐어! 이제 됐어!"

"이 다음에는 제가 그런 고생 다 맡겠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나더러도 앓아 누으



그림 · 조향숙

합두의 뒷모습이 보여도 언제 흠모의 색정이 있었던지…
"이제야 무욕도에 시름하나가 날라갔어"
그들이 큰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풀썩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하기야… 장차 4만유순(由旬) 8만유순의 먼 행로를 가서야 겨우 수미산의 세계 밑에 다다를 것이니… 심신이 튼튼해야겠지요. 잘 보살펴 주세요. 굳이 출가한 수행자를 음양(陰陽)으로 갈라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남정네들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들 여자에는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겠지요."

우녀가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허물 없는 처지가 되자 합두도 한 마디 하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뜻밖의 대꾸였다.

"…호오 그렇다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4생(四生)의 자비로운 아버지(慈父)이기에 앞서 어린 아이이시겠네요."

우녀가 뜻밖이라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기야 마야부인이 낳은 갓난아기 이셨지요…."

"…"

"무릇 도가 높은 경계는 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마음 그것 아닌 적이 없겠지요. 그러니 무전스님도 아이처럼 잘 돌보아 주세요. 이 무욕도 도량의 어느 사람 하나도 장차 우주 속을 드나드는 큰 일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니 합두스님이 우주를 돌보는 셈이지요."

우녀가 약 냄새가 나는 후원을 나갔다. 합두는 삼발 밑의 불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

한동안이 흘러가서 약을 짠 뒤 그 약그릇을 들고 무전이 들어가 있는 큰방 옆의 간병실(看病室)인 지대방으로 갔다.

그녀가 약그릇을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놓았다. 그러자 무전의 손바닥이 그녀의 손등을 덮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용서하십시요"라는 무전의 간절한 말이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 나왔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수미산에 오를 사람이 무전스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우녀의 단호한 예감에 의하면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인담은 그런 예감 밖에 있었다.

"수미산 가는 일이야 기러기의 행로로 함께 가는 것이 옳겠지요."

"외기러기의 밤도 있겠지요."

인담이 말하였다.

"이제 내가 병 구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녀는 가타부타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장 합두가 달이는 약 처방을 다른 처방으로 바꿨다. 그 약을 인담이 손수 들고 가서 무전을 일으켜 앉힌 다음 먹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무전 쪽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인담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의 하나인 무전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에 힘이 났다.

"장부의 병은 장부가 아는 일이겠지! 장부의 기상도 장부만이 아는 일이겠지!" 라는 어떤 자부심까지 생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인담은 다른 사람들, 만화와 파현 불이 수원 수월 남각 들에게 번갈아 가며 무전의 병실을 맡게 하였다. 어느덧 합두와의 사연 따위는 다 녹아버린 것 같았다. 합두는 전혀 무전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녀 자신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수행만큼 바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죽여야 하였다. 옛날 어느 아름다운 여승 때문에 남자 둘이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뒤 그 여승은 제 얼굴을 잉걸불에 묻어둔 다리미로 지져버려서 추녀로 바꾼 일이 있었다.

바로 그런 일을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끝내 무전은 마음의 상태가 본래대로 돌아왔다. 간병실로 쓴 지대방에서 나와 눈부신 맑은 날의 바다 앞에서 그는 본래의 그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새삼 그의 겨드랑에 바닷바람이 드나들었고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탁 트인 파도소리가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 무전의 란 말인가"

"아닙니다"

"나는 앓아 눕는 일이 없을 것일세. 그냥 이대로 서서 이 세상을 다할 것이야… 왜 부처님들은 하나같이 다앓아 계신 녹처일까? 나는 서 있는 부처가 될 것이이하하"

"과연 만화스님 다운 큰 포부이십니다"

"무전! 자네도 나하고 다를 바 없는 큰 포부의 비구가 아니런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짐이라네… 부처님께 비는 일이 바로 부처님 옆구리에 바가가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들 사이에 인담이 나타났다.

"말로 정진을 다하는 중이신가! 하하"

"하하"

"하하"

그들은 이 도량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공중에 날리고 있었다. 그런 웃음소리는 어떤 군대의 진두(陣頭)에 서 있는 깃발과 같았다.

그런데 그들이 큰방으로 들어갈 시각이 되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풀썩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무전이었다.

"아니 이 사람이!"

하고 만화가 쓰러진 무전을 일으켜 세웠다. 들쳐 업고 방으로 갔다. 무전의 맥이 끊어진 줄 모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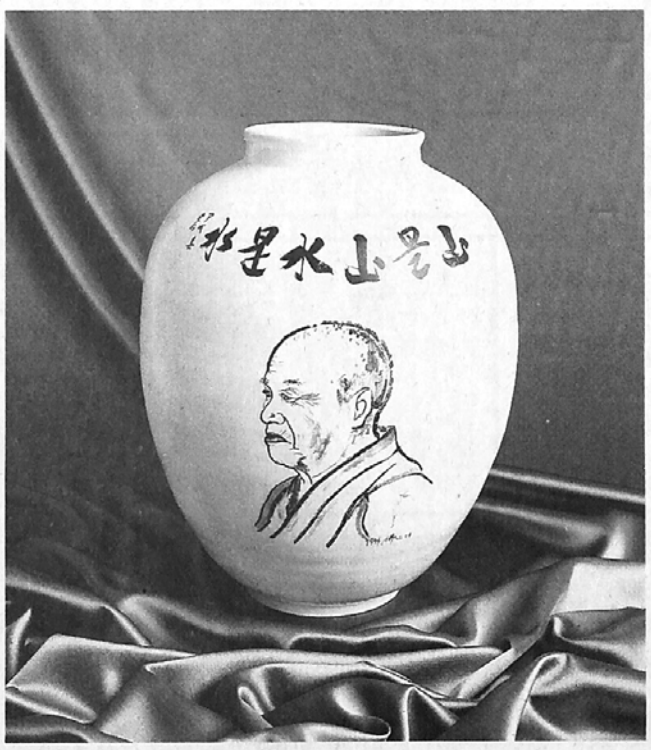
▶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1

우·리·곁·에·살·아·계·시·던·부·처·성·철·스·님·을·모·십·니·다

성철 큰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80평생을 자기 성찰에 힘쓰신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생각하게 하는 성철스님의 깊은뜻을 분청자기에 담아 전합니다.
한얼이 마련하는 문화보급기획 !
성철 큰 스님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위해
당대 최고의 작가들께서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마련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을 한얼문화와 함께 만나십시요.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
더욱 가깝게 느껴지실겁니다.



1994년 5월작 37×89
3대작가 공동작 〈글, 그림, 분청자기〉
(老村 李九榮 글 · 青岩 제작 · 금동원 그림)
우리시대 위대한 스승① 성철 큰 스님

기획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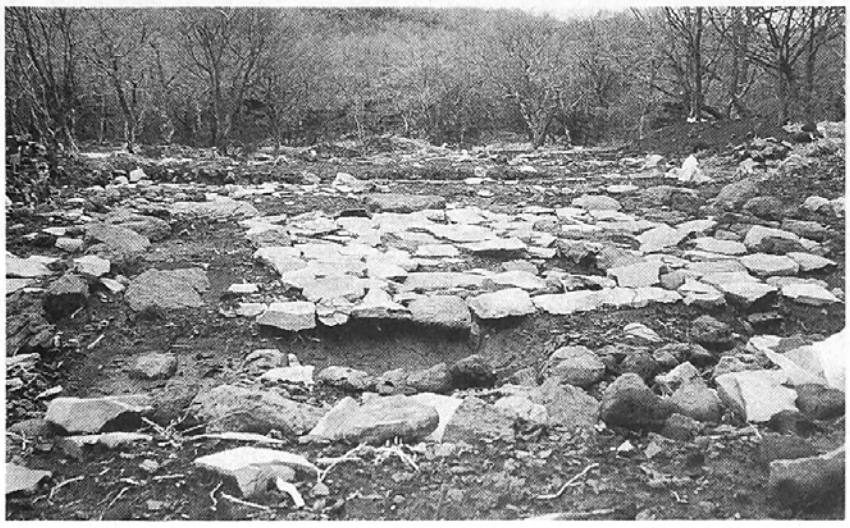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귀한 빛을 더합니다.

영원히 소장할 귀중한 작품으로 두번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얼 문화원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의 모습을 도자기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그 얼을 빛내기 위해 기획 보급하여 살아있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80개 한정 주문제작

한얼문화
종로구 견지동 87-1
견지사 BD 402호
작품문의 02)730-015 730-2858



◇해발 1천2백미터 높이에 있어 인적이 드문 관계로 지난 93년 발굴때 법당 긴 초석등과 기와·도자기 편등이 묻혀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한라산 영실 존자암지의 발굴 현장.



◇병진스님 作 발타라존자.

'한국 최초의 절'…성지로 재탄생

한라산 존자암지를 가다

2천5백년전 발타라존자 전법說
93년 발굴작업…복원 기다려

법당초석·부도등 보니 초전법륜지 실감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직계제자 발타라 존자가 불법을 널리 펴라는 스승의 명을 받들고 제주(탐라)에 도착, 전법에 나섰다."

문헌상으로 구전으로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의 현장. 지난 93년 발굴 고증까지 마친 "존자암지."

과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이 아니라 그보다 8백년 앞선 부처님 열반 직후인가.

발타라 존자가 9백 나한을 거느리고 와서 전법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전법륜지를 보게 된다는 설레임을 안고 한라산 존자암지에 오른다.

손에 잡힐 듯 다가서는 영실 기암을 마주한 채 영실 주차장에서 왼쪽 산길로 접어든다.

우람한 고목과 파릇파릇 돋아난 이름모를 야생초들로 우거진 숲을 헤치듯 20분쯤 걷자 수행문이라 불리는 자연석 일주문이 나타난다.

"이곳부터가 존자암입니다" 동행한 제주도문화재 위원 김봉옥선생은 존자암이 이미 민속학적으로는 물론 고고학·유물유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헌상으로 역사적 실재했음이 밝혀졌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동국여지승람 △남명소승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남관박물 △조선불교통사 △대장경 법주기 등 여러 곳에 존자암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대장경 법주기에는 "… 석가세존께서 열반하실때 무상의 법을 16대 아라한과 그 권속들에게 부탁하여 그를 호지하여 멀리 몰하지 않도록 하여 칙하여 그 몸과 제시주와 더불어 … 제 6존자는 자기 권속 9백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에 많이 나누어 살았고…"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18년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도 "법주기에 이르기를 16나한이 각각 주처가 있었는데 여섯번째 발타라존자는 중국말로 好賢인데 이 존자가 9백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에 많이 나누어 살았다고 하였다. 서로 전하기를 탐몰라주는 곧 탐라를 말한 것으로 지금의 제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존자암'의 이름은 발타라 존자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존자암지가 있는 영실 '불래(佛來)오름' 역시 '부처님이 오신 봉우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 발타라 존자와 그 권속들이 왔던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수행문을 지나 10분쯤 걸었을까. 아무리 가물어도 수량이 철철 넘친다는 계곡을 끼고 평평한 분지 존자암터가 나타났다. 군데군데 초석이 그 옛날 존자암의 규모를 알려준다. 가람의 형태는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가장 위편에는 국성재(國聖齋)를 지낸 제단이 자리한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단과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석종형 부도이다. 부도의 지름은 80cm, 높이는 약 130cm로 모양이 특이해 아직까지도 제작년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발타라존자가 직접 부처님의 사리를 이 부도에 모셨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기단은 8개의 돌로 나뉘어진 받침석이 받치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팔정도를 상징하고 사방 어디에서도 경배할 수 있게 한 점이 이채롭다.

법당터 왼쪽과 앞쪽에는 목탑이 자리 했을 기단이 남아 있다.

1651년 안핵어사로 왔던 이경억어사가 존자암에 묵고서 남긴 시에 "존자암은 名寺로 알려졌는데 / 황량한 반조각의 옛터로구나 / 천년묵은 외로운 탑이 있는데 / 한 방은 몇개의 서까래만 남아 있네…"

그렇다면 존자암은 임진란 전까지도 국성재를 지낸 호국도량으로 건재한 듯 싶다. 그렇다면 언제쯤 폐사된 것일까.

해발 1천2백미터라는 고지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기 때문인지. 지난 1993년 제주대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조사를 마친 존자암 유적은 다른 유적들보다 교란이 적고 비교적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와니 도자기 편이니 등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제는 초전법륜지로서 복원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학자들은 "해양을 통해 인도에서 직접 이곳 제주로 불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가야불교를 비롯 고대사에 남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을 통해 불교가 소수림왕 2년에 최초 전파됐다는 학설에 눌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부도. 다공질현무암으로 되어있는 석종형부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존자암복원추진위원장 주진아스님(법륜사 주지)은 "한국불교의 초전법륜지로서 존자암은 꼭 복원돼야 한다"는 서원을 세우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복원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스님은 전통사찰로서의 복원뿐 아니라 참선도량까지 함께 건립할 계획을 밝힌다.

'당5백 절5백'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제주도는 곳곳이 사지(寺址)요, 불교적 지명이 도처에 널려 있다.

한국 최초의 사찰, 그리고 한국불교의 초전법륜지로서 존자암이 여법히 복원되어 세계적 성지순례터가 되기를 기원하며 발길을 돌렸다.

〈제주=이경숙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리석은이의 장
남의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외로운 길 가기에
진념하라



이향원





불교 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6월 2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6월 4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 발 : 6월 5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 발 : 5월 27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네팔·태국 10일
· 출 발 : 5월 26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가람역사⑥

한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임혜봉 저
신국판 440쪽/ 값 7,000원

불교의 기원에서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까지 한눈에

일본에 불교를 전한 삼국시대부터 일제치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찬란하게 꽃피었던 기억과 화질의 아픔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인도불교 3장면, 중국초기불교 5장면, 우리 불교역사 92장면으로 구성된 「불교사 100장면」은 석가탄생부터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까지를 누구라도 읽기 쉬운 문체로 씌어졌다. 이 책의 출간을 기점으로 연구가 취약했던 부분은 보강되고 다른 부분은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불교사연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8-4 전화:815-1253/팩스:823-9106

홍명스님 에세이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저
신국판 352쪽/ 값 6,000원

홍명스님의 간결한 필치가 돋보이는 불교·도교·일반 세간 철학 그리고 문학 세계 탐방

내 문득 이세상 태어나니 이것이 生이런가
내 어느 때 이 생명 다하리니 이것이 死이런가
내 뜻밖에 生하고 死하니 어찌 내 몸 나라 하리요
업에 의해 괴동으로 살고 죽으니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본문 중에서–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청성빌딩 3층 전화:02) 921-8434/ 팩스:02) 929-3470

현대불교신문이 가려뽑은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고
부처님 오신 날 추천도서 3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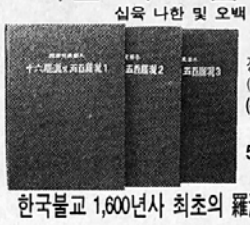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고양된 독서열기에 부응코자 재고도서 구정가 판매를 특별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대)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직통)

이제야 비로소

'나한'의 모습과 만난다

십육 나한 및 오백 나한집



정가 360,000원
(화집 27×39cm)
(분할가능) 3권 1질

500질 한정판매

한국불교 1,600년사 최초의 羅漢圖集 전격 출간!!

「羅漢」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羅漢 한 분 한 분 마다의 인격적 특징을 圖像化한 한국 최초의 佛畵圖本이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韓國佛畵圖本第三篇, 「十六羅漢 및 五百羅漢集」은 古來로 전해져 오고 있는 나한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왜곡되고 잘못 전해진 우리의 나한상을 바로 잡고, 麗末鮮初 무학대사가 남긴 정통 나한상에 근거해서 나한 한 분 한 분마다에 우리식 명칭과 佛心을 나타내는 贊辭를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羅漢集의 발간으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나한의 모습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입처: 불화전문출판 대흥기획 전화:02) 733-1016(대) 팩스:02) 735-7202

명찰순례 ①②③



최완수 저
각권 500쪽 내외
정가 권당 8,500원

"절을 알고 절에 가면 역사가 보인다"

전통 사찰에서 현대의 지식인들이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필의 현판 앞에서 까막눈이 되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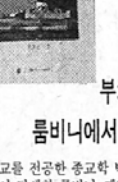
각 사찰에 면면히 전해져 온 역사의 숨결은 이를 일깨워 줄 만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실감하기 어렵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대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7 전화:323-5511 / 팩스:323-5611

민족사 산문선 1

현장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신국판 280쪽/ 값 5,500원

답답한 속이 확 뚫리는 생명법문!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하는 듯한 무공해법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날마다 다시금 나를 보게 하소서.
걱정근심 벗어나서 생명의 단비를 맛보는 순간
부처님은 이미 내 편입니다.
염불의 마음, 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도서출판 민족사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02)732-2403,4 · 722-7679 / 팩스:(02)739-7565

민족사 산문선 2

山寺의 향기를 가득 품고 신선하게 다기오는
열두 스님의 산사 이야기

제 뚱은 제가 누어야지



지묵·영담·무비·현진
효림·여연·원택·동붕
현장·선혜·법연·도법

신국판 216쪽/ 값 4,500원

복잡한 세상, 아무리 바빠도 한숨 돌리고 삽시다

여기 맑고 향그런 산사의 내음이 있습니다.
열두 스님이 털어 놓는 솔직한 이야기!
청량한 향내음 나는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풀어 주는 맛스런 이야기!
자, 이제 열두 스님과 더불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도서출판 민족사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02)732-2403,4 · 722-7679 / 팩스:(02)739-7565

나의 부처님 공부



김정아 저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작가는 불교방송국 〈살며 생각하며〉에 방송된 원고를 전면 개작해 진리를 추구하고 불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어떤 고상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내가 곧 부처인 삶의 청정언어록!

「나의 부처님 공부」는 '경전 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생각하며'와 '동화 속의 부처님' 등 크게 세 갈래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경외심,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 그리고 너무나 신비한 마음의 세계에 눈을 돌려 '내가 곧 부처인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문학 아카데미

장군 죽비



휴암스님 저, 신국판
상권 472쪽, 하권 480쪽
전2권 (각권 9,000원)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나의 불교적 방해는 서의현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 내부에 바로 불교적 한계가 있다. 그것은 서의현이 있거나 없거나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자신의 불교적 한계다. 내 자신 내부에 그 한계가 철폐될 때 서의현이라는 장벽은 나에게 하나의 허공이 될 뿐이다. 승단의 모든 악을 서의현에게 뒤집어 씌우는 서의현의 악의 상징화에의 성공이 우리의 단순한 한풀이로 머물지 않게 할 만한 개혁이란 진실로 어렵다. 이와 같은 불교의 문제점들을 안다면 스스로 검허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군죽비」 서문에서–

도서출판 명상 전화:02) 739-2520 팩스:02) 738-7709

화제의 신간

28년안에 햇빛 본 본격 구도소설

하산(下山)



이홍주 저/4×6판 양장본
248쪽/ 값 5,800원

작가 이홍주 스님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었던 문제작

저자 이홍주 스님은 왜 민통선을 넘으려 했는가?
그 일과 그 자신의 유작 「하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67년 자전적 장편소설 「하산」을 출간했던 홍주스님은
34세 되던 해인 1969년 민통선의 철책에서
지뢰를 밟아 이 세상을 떠났다.
한 편의 소설 같은 삶을 살다간 홍주 스님.
그가 남긴 전위적 구도 메시지.

도서출판 불지사 서울시 종구 장충동2가 188-6 뉴장충빌딩 3층 전화:02) 277-2676/ 팩스:02) 278-9118

삶에서 깨어나기



틱낱한 저/ 양미성 옮김
신국판 272쪽/ 값 5,500원

틱낱한 스님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명상의 향연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는 평화운동가 틱낱한 스님이 망명지인 프랑스에서 베트남 청년사회봉사단의 주요 간부였던 황형제와 그의 동료들에게 보낸 하나의 긴 편지를 묶은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이지만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호흡명상에 관하여 명료하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짜여진 명상지침서이다.

발행처 장경각 전화:(0599)32-7300 보급처 대원사:전화 (02)757-6717~9 /팩스 02) 775-8043

책방 여시아문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고양된 독서열기에 부응코자 재고도서 구정가 판매를 특별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대)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직통)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뜻



이정운 그림/불광편집부 편집
신국판 32쪽/ 권당 가격 1,000원

서점판매용, 단체주문용 별도 제작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는 재미있는 만화책!

불광출판부에서는 이번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뜻」이라는 소책자 만화집을 만들었다.
수십 년 동안 독실한 수행생활을 해온 만화가 이정문 선생이 그린 이 책은 부처님 일대기와 더불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현대적 의미를 강동적이고 교훈적으로 그리고 있어 신도교육, 어린이 법회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불광출판부 전화:02) 420-3200 팩스:02) 420-3400

무비스님

금강경 강의



무비스님 저
신국판 284쪽/ 값 5,500원

제대로 된 금강경 강의본을 만난다는 것

우리시대 대강백 무비스님의 번뜩이는 禪氣와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진 금강경 강의는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존재의 진실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제대로 된 금강경 강의본을 만난다는 것 행운 중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대) 420-3200/ 팩스:420-3400

인도불적답사기



윤호진 저/4색컬러인쇄
352쪽/ 값 10,000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초기불교를 전공한 종교학 박사 호진 스님의 인도 불교유적 답사기.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깨달음을 성취한 보드가야, 최초의 설법지 사르나트, 주요 활동무대였던 바이살리·라자그리하·쉬라바스티, 그리고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 등 부처님이 생전에 밟으셨던 길과 장소를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의 감상적인 수필류의 인도여행기와는 달리 110여 컷의 원색 자료사진을 곁들이고 현지 사정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인도 성지순례의 길잡이로 손색이 없다.

불교시대사 전화:02) 730-2500 팩스:02) 723-5961

가정포교사

불교만화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전화 723-8426,7

張二斗스님 山寺 에세이

산 속에서 산을 보는 법



신국판 280쪽/ 값 5,000원

슬프다! 삼계(三界)를 여의고자 하면서도, 진세를 초절(超絕)하는 수행이 따르지 못하니…

출가승의 생활이란 이속(離俗)에 있다. 머리를 깎고서도 세상을 향한 정긴 미련 때문에 탐업을 짓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지금도 산 속에서 출가정신을 지키며 피나는 정진을 하는 산승이 있기에 불도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산승의 모습이 우리를 욕망의 그늘에서 헌 걸음 비켜서게 한다.

산속에서 산을 보는 큰 스님의 큰 지혜!
1장/나는 올 적에 길을 잃었노라
2장/인연의 끝자락에 서서
3장/날개 꺾인 새여, 거북을 업고 어찌 날겠는가
4장/마음은 흘나에도 머무는 자리가 변하거늘

생각하는 백성 전화:02) 703-2367 · 706-2367 팩스:02) 718-5752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
300쪽/ 값 5,600원

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야기해 온 지묵스님이
그동안 지면을 통해 발표한 원고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엮었다.

우리출판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호 전화:02) 313-5047 · 5056

불교천자문



덕전 편저/자전편/2,500원
사경편/3,000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8개 경전에 나오는 한자를 중심으로
사경편과 자전편으로 나누어
한문 공부를 겸할 수 있게
편집된 책이다.

우리출판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호 전화:02) 313-5047 · 5056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풀이
신국판 400쪽/ 값 7,000원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법구경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각각의 게송에 맞는 적절한 비유와 용어 설명 등으로 법구경을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또한 법구경이 주는 지혜의 영역을 한 층 더 넓여 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02) 720-9372,3/팩스:02) 723-0646

불교학의 기본서

불교학 대사전



전관응대종사 감수
/값 70,000원

불교용어, 인명, 지명, 경전, 저서 등을
1,861 페이지에 걸쳐 5만 여의 항목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불교이해의 길잡이!

홍법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전화:02) 739-8745/ 팩스:02) 735-2344

공급처:불서총판 운주사 전화:02) 720-9372,3 팩스:02) 723-0646

불국토 건설 민족 통일을 발원한 불교책 6권

이 시대의 우뚝 솟은 94분의 고승, 법사가
100제의 법어, 설법, 논설을
6권의 책에 담아 불교를 알기 쉽게 엮은 책

1. 불멸의 성좌 410쪽 / 값 6,000원
2. 서천에 돋는 해 282쪽 / 값 4,500원
3. 소를 때려 수레를 때려 338쪽 / 값 5,000원
4. 지혜의 길 깨달음의 길 336쪽 / 값 5,000원
5. 깨달음의 큰 수레를 타고 482쪽 / 값 7,000원
6. 한국불교의 통일사상 400쪽 / 값 6,000원

오덕원 전화:02) 888-8944~5

재미있는 고승 이야기

부처 죽이기



임원응 엮음
신국판 295쪽/ 값 5,500원

42명 고승들의 삶 속에서 바라본 부처죽이기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들 밖에서만 찾으려 하는가.
누군가 부처를 구하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요,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는다.
그러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임제 선사 어록 가운데–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전화:02) 730-8976 / 팩스:02) 739-2180

큰스승 열 분을 만나십시오!

쉽고 재미있게 소설로 엮은 큰스님들의
감동적인 삶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듬뿍 얻으십시오.



고승열전 1차분 열 권으로 청담, 효봉, 만암, 동산, 금오, 만공, 전강, 고암, 경봉, 용성 큰스님 편을 펴냈습니다.

신국판 300쪽 내외/ 값 6,000원

언어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47 전화:363-2554~5 / 팩스:392-4619

실록으로 본

사 명 대 사



퇴경당 권상로박사 저 · 현이호 역
신국판 / 값 8,000원

광복 50주년을 맞아 선인들의 업적을 널리 전파하여 대사의 학문·신앙심·충성심·희생정신, 특히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참선의 길로 다시 돌아간 대사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고 후세대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여 이 글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문화출판사 전화:02) 739-0589, 732-7096

술 몽 쇄 언



김대현 저 · 님만성 옮김
A5판 264쪽/ 값 5,000원

월창거사 김대현이 조선 왕조
말기의 외우와 내환이 겹친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 민심을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쓴 책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서출판 을유문화사

일타 큰스님의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288쪽/ 값 5,000원

"깨달음은 찾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온다"

6백여 년 전부터 야운비구의 「자경문(自警文)」을 일타 큰스님이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일타 큰스님은 인간이 방황하고 윤회하는 까닭, 참된 나를 찾는 묘법, 해탈을 이루는 비결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8가지의 이야기를 곁들여 〈자경문〉을 재미있게 풀이하였다. 광소 불교를 어렵다고 느낀 사람이라면 이 책을 펼쳐 보라. 불교의 세계속으로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 587-6612 · 6613 팩스:02) 586-9078

웃으면서 깨치는 공자·장자…

–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 –

지혜의 배움터, 중국고전 – 누구나 한번은 읽어야 할 영양가 넘치는 책. 하지만 어려운 한자, 딱딱한 문구로 번번히 주저앉기 일쑤였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보석같은 중국의 고전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입니다. 대만의 세계적인 만화작가 '채지충'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고전만화의 세계.
이제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진수를 즐기십시오!





〈선설·육조단경〉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번뇌에 부딪치게 되지만 가장 큰 번뇌는 자기 자신에게 비롯되는 것!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두권의 책이 일깨워준다.

선(善)도 생각지 않고
악(惡)도 생각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기 본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선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며 자세이다.
(신국판 각권 값 3,000원)

호산문화 HOSAN MOONHWA CO., LTD. Tel. 313–2520~2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6–36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는 공자, 논어, 맹자, 장자 Ⅰ·Ⅱ, 노자 Ⅰ·Ⅱ, 열자, 대학, 중용, 사기, 육조단경, 선설, 한비자, 손자병법, 삼국지, 서유기 Ⅰ·Ⅱ, 소림사, 수호전, 요재지이, 육조괴담, 귀호선과 Ⅰ·Ⅱ·Ⅲ, 고사성어, 봉신방 Ⅰ·Ⅱ, 세설신어, 채근담, 백사전 등 현재 31권이 발간되었으며 당시, 당시삼백수, 송사는 내달 완간될 예정입니다.

살아선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던 성철스님을 더욱 생생하게 뵐 수 있습니다



누더기 한 벌, 몽당 색연필 한 자루, 안경.
비록 무소유, 무자취를 자랑으로 삼는 절집이지만, 한시대의 스승인 성철 큰스님이 남긴 것으로는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남기신 족적과 가르침은 가히 태산과 같으니, 스님을 두고 너나없이 이 시대의 스승이라 일컬음도 당연스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는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던 스님을 생전의 생생한 모습과 가르침을 담은 비디오 "스님, 성철 큰 스님" 다섯 편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벗으셨지만 다시 우리 곁에 오신 큰스님의 가르침은 미망에 허덕이는 우리를 일깨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디오 "스님, 성철 큰스님"은 성철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백련문도회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가까이서 스님을 모신 상좌들이 직접 리포터로 출연하여 일 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불교의 선맥을 바르게 세운 돈오돈수와 중도사상, 수행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컴퓨터 그래픽, 크로마키를 이용한 특수 화면 합성, 헬기 촬영과 미속 촬영 등으로 현대적 감각의 영상 구성과 함께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공개되지 않은 영상 자료와 취재중에 발견된 갖가지 문서와 사진 자료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 동안 스님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또 제자 문도들은 물론 당대의 비중 있는 고승들과 관계 학자들의 인터뷰를 채록, 객관적인 고증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비디오 "스님, 성철 큰스님"은 아래 장경각 미디어로 문의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값은 비디오 다섯편과 나레이션북을 포함하여 100,000원이며, 이 수익금은 "성철 큰스님 사리탑 건립"과 "성철스님 기념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장경각 미디어/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호, 전화 733-4277, 팩스 733-4279
장경각 미디어에 전화로 신청하신 뒤, 국민은행 006-01-0646-101 예금주 '이영기'로 일십만 원(100,000원)을 입금하시면 즉시 등기우편으로 "스님, 성철 큰스님" 비디오를 발송해 드립니다

한암스님 문집 '일발록' 펴내

법어·게송·서간문등 미발표 자료 묶어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



"허명을 멀리하고 난설(亂舌)을 경계하여 저술과 그 흔한 법어집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문하에는 항상 운수납자가 운집하고 불교의 대의를 믿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암스님의 법어와 게송 서간문 등 미발표자료를 묶은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을 펴낸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한암스님을 자비와 엄한 계율정신으로 후학과 중생들을 제도한 말법시대의 등불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문집의 간행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의 앞날에 조그마한 보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말로 출판동기를 밝힌 현해스님은 앞으로 월정사에 선교연구관을 설립하는 등 한암스님의 가르침을 잇기 위한 불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암문도회는 지난 26일 월정사에서 50여명의 문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암스님 탄신 120주년 생신제를 봉행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다. 〈운〉

교차로

9일 동대 정각원서 법문



청화스님(태안사 조실)은 오는 9일 오후4시30분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교직원, 학생, 불자를 위한 법문을 할 예정이다.

'통일광복민족회의' 공동대표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달 21일자로 '통일광복민족회의'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한편 스님은 지난 3일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오찬을 갖는다.

군장병 수계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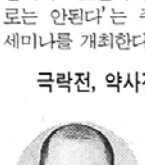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은 지난달 23일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청풍포교원에서 금륜정사(주지 덕현)가 주관한 '고승초청 군장병 수계법회'에 참석, 장병 1백60명에게 수계했다. 현재 5기갑여단 군법당인 청풍포교원은 법당을 마련하지 못해 부대내 식당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금륜정사(0351)866-0849

안양교도소 위문·수계법회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지난달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위문법회를 열고 수계식을 봉행했다.

노인복지 연합세미나 개최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노인사회복지,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의 연합세미나를 개최한다.

극락전, 약사전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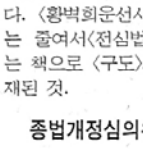
청우스님(강릉 락가사 주지)은 지난달 19일 극락전 약사전 낙성식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4년간 약사보전등 전각을 중창, 도량조경불사를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는 신원사 조실 벽암스님등 지역스님 1백여명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했다.

'태안사 새 주지 임명

종걸스님(48)이 지난달 24일곡성 태안사의 새 주지로 발령받았다.

종걸스님은 지난 70년 화엄사에서 도광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73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고 용문사 정혜사 주지를 역임했다.

황벽 전심법요' 펴내



이기영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월간〈구도〉 1백호 기념 부록으로〈황벽희운의 전심법요〉를 펴냈다. 〈황벽희운선사 전심법요〉는 줄여서〈전심법요〉라 불리는 책으로〈구도〉지에 8회 연재된 것.

종법개정심의위원장에



성문스님(전 봉은사 주지)은 지난 25일 열린 조계종 종법개정심의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번 간사에는 석호스님(범어사)이 선출됐다.

일본서 달라이라마 만나



홍선스님(흥국사 주지·한국티베트불교친선협회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티베트 달라이라마법왕 초청법회 및 환영만찬회에 석일산씨와 함께 참가 달라이라마 법왕을 만나 한국과 티벳불교교류에 대한 방안을 의논하고 왔다. 스님은 국내에 티벳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티벳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각종 자료 수집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진전 추천작가



서명스님은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추천작가로 선정됐다. 스님은 현재 사진작가협회 국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대한민국사진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거듭해 추천작가 선정기준인 12점의 점수를 받았다.

여불련, 사단법인 인가 받아



김묘주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지난달 21일자로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의 사단법인을 문화체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았다.



파주서 식목행사

법정스님, 샘터서강의도

맑고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회주 법정스님)는 지난 23일 오전10시 경기도 파주 대비양로원에서 식목행사를 가졌다.

회원 50여명과 함께 식목행사에 참여한 법정스님은 "푸른 국토 가꾸기에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스님은 27일 샘터 창간 25주년 기념강연회에도 참석해 '작은 것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승가대서 강연

김 대 중 이사장



김대중 아·태 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중앙승가대 초청 강연회에 참석, '21세기 민족통일과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대중 이사장은 "불교는 평화사상과 평등사상을 강조하고, 북한과 동질적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가장 적합한 종교"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통일 불자가 앞장서야"

김이사장은 "북한과의 교류는 문화·사회민간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를 앞세워 교류를 시작할 경우 그만큼 남북간의 정서적 괴리감을 좁혀가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잠재적 불교신자는 과반수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불교가 앞장서 교류를 시작할 때 북한의 거부감도 적을 것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재〉



소년가장돕기 수안스님 한마음 특별전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이 주최한 소년소녀 가장돕기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운현궁 미술관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오픈행사에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송석구총장, 정병조도서관장, 김광삼 본지 대표이사등이 참석 전시회를 축하했다. 수안스님 초청 특별전은 2일까지 계속됐다.



해인사 장경연구소 서울사무소 개원법회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지난달 22일 용산구 한남동 서울사무소에서 개원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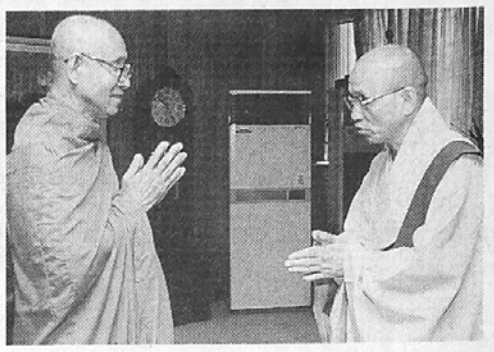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지관스님(해인사 주지), 혜창스님(총무원 호법부장), 평상스님(사서실장), 향적스님(교육부장), 원철스님, 무애스님, 김도현차관(문체부), 윤연법사(대원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종립스님은 "전산화를 통한 고려대장경의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연 개최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황명수)는 지난달 26일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57회 정기이사회 및 동국을 빛낸 동문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황명수 전 총동창회장이 제18대회장으로 유임됐으며 송석구총장 이연석(국회의원) 황명(문협이사장) 김대원(경찰치안감) 이두철(94년 원자력기술상수상) 김서영(경찰청 경무관) 김택근(편집기자회장) 이창식(MBC예술단상무이사)등 8명이 동국을 빛낸 동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태국 왕립불교대 총장 월주스님 예방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불교대학 총장 프라아마마메 다카리아 스님과 비서실장 프라 마하수라폰 수앞몸 스님이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한국과 태국의 불교교류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프라아마라메 스님은 지난 2일 용인지연농원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문화전 개막식에 참가하고 해인사, 중앙승가대학 등을 참배하고 지난 3일 출국했다.



국회법당 '정각선원' 문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사당내에 법당 '정각선원'이 지난달 27일 오전10시 개원됐다. 국회 정각회(회장 권익현 의원)는 이날 강석주(조계종 원로의원)스님의 증명으로 탱화를 점안했다. 국회법당 개원에는 송월주(조계종) 박서봉(태고종) 전운덕(천태종) 최지광(진각종) 이홍파(관음종) 스님등 각종단 총무원장과 여야 50여명의 불자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네팔 왕립아카데미 동국대와 학술교류

네팔 왕립아카데미 마딘 마니덕시트 부원장은 지난달 21일 오전11시30분 동국대 송석구총장을 예방, 네팔 왕립아카데미는 학술원으로 종교, 예술, 철학 등 문화함동의 진흥을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하고 동국대와 네팔간의 학술,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석구총장도 딕시트부원장의 제의에 동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학술 문화 교류를 약속했다.



갱정유도회원 조계사 방문

갱정유도회 회원 2백여명은 지난달 24일 '도덕성 회복및 밝은사회 이룩 하자는 캠페인을 종로3가~조계사 구간에서 펼치고 조계사에 들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총무원 간부스님들을 예방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사회에 꼭 필요한 운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크다"고 치하하고 불교와 유교가 함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강조' 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UN기구와 손잡고 세계구호활동 전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 재 일 회장**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가 UN 국제난민 대책기구(UNHCR)와 손잡고 세계인종을 초월한 구호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주선으로 외무부 UN국 사무실에서 UNHCR 고등판무관 히로미쯔모리와 협약을 맺은 김재일회장(사진)은 "불교계도 UN공식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합의에 따라 1차로 브룬디 난민을 우선 도울예정"이라며 "의과대 소속 불자 대학생 자원봉사요원을 모집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한 "지난해 부터 진행중인 모금운동의 하나인 '자비의 종'이 접수되기 시작했다"며 "금년가을부터는 UN에서 펼치고 있는 기금, 의약품, 인력봉사등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기아기구는 오는 5월22일~24일 서울에서 열리는 UNHCR 세미나에 참여한다.

범하스님등 49명 선정

문체부, 문화재위원에

문화체육부는 지난달 25일 문화재의 보존관리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자문할 문화재위원에 범하스님(조계종 총무부장)등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문명대 홍윤식교수등 24명을 재위촉하는등 앞으로 2년간(95년 4월26일~97년 4월25일)활동할 문화재위원 49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1분과=김동현(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김은영(한국과학기술원장) ▲2분과=안병희(서울대교수) 범하스님(조계종 총무부장) ▲3분과=임효재(서울대교수) 이원순(이원순(국사편찬위원장) 손병헌(성균관대교수) 정동오(전남대 명예교수) 김유선(원자력연구소 명예연구원) ▲4분과=황병기(이화여대교수) 유송옥(성균관대교수) 조동일(서울대교수) 김성수(숙대교수) 조흥윤(한양대교수) 강찬균(서울대교수) 윤용이(원광대교수) ▲5분과=정상린(상명여대교수) 김윤식(고대교수) 윤일병(고대교수) 김수진(서울대교수) 김태욱(서울대교수) 우한정(한국자원보존협회 사무총장) 오창영(서울대 외래교수) 원종관(강원대교수) 이인규(서울대교수).

게시판

▲종태스님 1주기 추모법회=지난해 조계종 개혁불사중 교통사고로 열반한 종태스님의 1주기 추모법회 및 부도제막식이 오는 8일 오전10시 구례 화엄사에서 봉행된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4일 복지관 우정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무의탁 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흥겨운 시간을 갖는다. (02)985-0161

▲광복전후 50년 자료 특별기획전=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종규)은 광복 50주년과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전'을 3일부터 9월30일까지 갖는다. (02)879-4597

▲청소년지도사 연수생 모집=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95년도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02)735-8165

▲전국불교청년지도자 대회=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6월3일·4일 공주갑사에서 '함께하는 자연, 나누는 생명, 피어나는 불국정토'라는 주제로 제14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

하·나·되·는·세·상·부·처·님·세·상

봉 축

한마음선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0343)72-3100, 1512 / 팩스 (0343)72-2746

사부대중 일동



◇지난달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사원경제 활성화' 세미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참석하는등 교계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생산불교로 거듭나자"

사회문제硏 '사원경제 활성화' 세미나 요지

재정공개 절실…관광상품 개발·생협 운영
스님 개인시주물도 종단상속 법안 필요

'사원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와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 공동주최로 지난달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현 총무원이 표방한 "한국불교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단의 물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산불교'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참석하는 등 '생산불교'에 대한 교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먼저 '원시불교시대 교단의 생산관'을 발표한 정인스님(중앙승가대교수)은 현 승가 재산관리의 헛점을 지적, "현재 시주물이 비구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그 비구가 열반 또는 환속한 경우, 그 유산들이 일반 사회법에 적용되어 형제, 친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도 종단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이었다"며, "비구 개인의 시주물에 대해서도 종단으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발표와 관련, 토론자인 박경준교수(동국대)는 "원시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고 재가자는 재정과 생산을 담당하는 2원구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의 생산관'을 발표한 곽만연교수(동아대)는 "방편지(方便智)는 세간에 있는 모든 생산활동을 뜻한다"며, "생산활동이 그대로 불행(佛行)이라고 하는 생산관이 확립될 때 비로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의 6바라밀을 통한 생산불교의 진취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기영교수(동국대)는 "인도에서는 부처님 입멸후에 유통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화폐경제가 시작, 불기 1백년경에 상업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며, "불교계 스님들의 경제적 신분보장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명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종헌 종법상으로는 사찰재정이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먼저 7~30명 이하의 신도 간부에게 재정을 공개토록 한 후, 점차적으로 재정공개 한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을 발표한 영담스님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불교의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불교의 종지와 포교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활동의 전제로서 △관광상품의 개발 △생활협동조합 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불교적 생산관과 경영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조계종단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57개 관람료 사찰의 관람인구 약 2천6백만명이 부담하는 관람료 1백73억5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사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종단내의 법률, 회계,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원경제기획단 설치 △합리적인 토지관리 △본사 및 주요사찰의 자산 및 재정 통제 △표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지속적인 의식교육 △스님들의 활동 △사회복지 및 교육사업 △신용협동조합·생수판매 사업 △단기성자금의 운영 등을 제시했다.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이에 대해 "이제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전환할 때"라며, "불교계가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벌이는 한편, 전문수행원을 설립해 수행기풍을 유지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료만 소개된 박호남씨(싱가폴민족학교 교장)의 '동남아 각국 불교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논문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각국 사원경제의 현황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재〉

바른신행 이정표 세우기 불교학자들 나섰다

利他·자기완성의 길 모색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4일 신행세미나


◇인환 스님


◇목정배 교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강건기 교수

귀의에서 사홍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우리나라 불자의 신행(信行)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바른신행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5월4일 오후 1시30분 동국대 동국관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비학문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신행'의 문제를 불교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 개념정립과 함께 올바른 신행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여는 이번 봉축기념 세미나는 불자들의 신행형태를 경전과 계율 등을 통해 비춰보면서 문제점을 과악, 불교신행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란게 교계의 기대다.

발제강연을 맡은 권기종교수는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이란 발표문을 통해 "불교는 자력적(自力的) 신행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현실은 미타신앙을 중심으로 관을 지장신앙 등의 타력(他力)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며,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에 불교적 교설이나 신행방법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불교의 본질이나 신행의 궁극적 목적이 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불자의 신행형태'를 발표하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불교신행의 기본"이라며, "모든 불교내의 사상적 흐름과 실천, 심지어 비불교적 요소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회통적 전통은 방편(方便)의 왜곡으로 신행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교수는 불교의 믿음이 귀명삼보(歸命三寶)로부터 사홍서원(四弘誓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서 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교수)은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을 통해, 원시불교경전 속에 나타난 신행의 지침을 살펴봄으로써 불자들의 신행과 일반 국민들의 바른 사회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한다. 인환스님은 〈법구경〉 제14품의 칠불통계(七佛通戒; 온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가 대·소승을 일관해서 바른 불교신행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5계파지(五戒把持)운동이 불교신행의 골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율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를 발표하는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장)는 오늘날에 맞는 불교사상과 불교신행을 확립하기 위해 △출가교단이 수지할 계목(戒目)과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를 현대에 맞게 정립하는 기구를 조직할 것, △한국승가 전체의 계율을 제정한 후 세계승가회에 이를 제출, 세계불교인의 계율로 승화시킬 것, △인류평화와 지구보존의 불교적 생명윤리를 UN에서 의결토록 할 것 등을 제의한다.

끝으로 정병조교수(동국대 도서관장)는 '불교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통해 현대적 개념의 불교신행을 새롭게 정의한다. 정교수는 불교신행의 단계로 △인과의 질서를 믿는 일, △현상세계의 공성(空性)을 체득하는 일,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의 구현, △생명의 실상(實相)을 통찰하고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 등을 든다. 정교수는 "불교적 신행은 절대자에 대한 귀의(歸依)의 의미가 아니라,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실천하는 수행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재경 기자〉

일제지정 문화재 재평가 작업

문화재 관리국 왜색짙은 명칭등 국민감정 수렴 개선

문화재관리국은 일제시대 지정된 국가문화재를 광복 50년만에 전면적으로 재평가·재정비키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26일 문화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경오 왜색이 짙은 명칭을 사용한 동래왜성 등의 성곽이나 사적지 등에 대한 국민감정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작업은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차례 지적돼 온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는 총 6천8백여점이며, 이중 일제시대에 지정된 것은 4천여점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은 1933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해방후에는 문화재 지정이 사실상 한동안 중단상태에 있었고 196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 보물로 지정된 것들은 해방후 일괄적으로 국보로 격상됐고 1963년 1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재지정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때의 분류기준이 애매한 점이 많았고 문화재의 이름 역시 일제시대 만들어진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이 문화재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경주 남산 瑜伽불교 성지였다"

동대 문명대교수 '신라문화' 10·11합집서 주장

우리나라 최대의 야외박물관이자 세계적인 유적지임에도 불구, 소홀히 관리돼온 경주 남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의 〈신라문화〉 제10·11집 합집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불교미술)는 '경주 남산불적의 번천과 불곡(佛谷)감실 불상고'란 논문에서 "남산의 수 많은 불적(佛蹟)은 신라 유가(瑜伽)불교의 영향으로 집중 조성됐으며 불곡(부처골)의 감실 석굴은 우리나라 석굴의 시원"이라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신인사와 칠불암, 남산 정상의 용장사(유가불교의 종찰), 장곡골의 삼화령 미륵삼존불, 약수골의 대마애 불입상 등으로 미루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어간 남산이 유가불교의 성지로 꾸며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랑세기' 제2필사본
노태돈교수 발굴발표

지난 89년 김대문의 저술인 〈화랑세기(花郎世記)〉의 필사본으로 추정되었던 〈화랑세기(花郎世紀)〉외에 또다른 〈화랑세기〉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노태돈교수가 지난달 22일 열린 역사학회 제325회 월례발표회서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 이 필사본은 1백60쪽으로 기존 필사본이 32쪽인 것과 비교하면 내용이 5배나 많을 뿐 아니라 발문에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향가도 나와 이미 소개된 〈화랑세기〉의 모본(模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태돈교수는 "92년 또 다른 〈화랑세기〉의 필사본을 찾아낸 뒤 원소유자(또는 위작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국대 이기동교수는 구(舊) 〈화랑세기〉 내용의 허황성과 자체(字體), 용어 등의 문제점을 들며, "이책은 조선후기에 쓰여진 연애소설류이다"라고 잘라 말하며 기왕의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정신문화연구' 58호 발간

허흥식교수 논문등 9편수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재)의 학술지인 〈정신문화연구〉 제58호가 나왔다.

이번 논집에는 보현결사의 제4대 주지였던 진정(眞靜)국사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의 불교사관을 비교한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논문 '진정국사의 불교사에 대한 지식과 사관'을 비롯, 기획논문으로 △비교종교학의 장래/이은봉 △한국 종교학의 회고와 전망/강돈구 △한국철학과 창조적 지성/정해창 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禪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은가?

禪수행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진제대선사의 선이야기

禪 백 문 백 답





본문 중에서

문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깨달았어도 습기는 除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답 그것은 모순이다.
물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결정을 하면 습기와는 상관이 없다.
번뇌가 곧 보리, 완전히 진리로 돌아갔는데
번뇌에 놀아나게 되겠는가?
경오년 4월 수선회와의 문답 중

문 스님께서는 화두를 目前에 두라고 하셨는데,
목전에 둔 화두 있고 화두 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하면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답 둘로 어떻게 쪼개져.
그건 온 정신을 목전에다 두라는 말이지. 목전에
두는 것이 숙달되면 앉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그렇고 누울 때도 그렇고,
어느 때건 한 생각 모으기가 쉽다.
경오년 동안거 정진대중과의 문답 중

하하, 알고 또한 알겠는가?
떨어진 꽃은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나,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
떨어진 꽃만 보냄이로다.
—서문 중에서—
큰스님의 말씀

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쉬운 대화체로 엮었습니다.

마랄난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651-1번지
TEL(053)252-4825 / FAX(053)252-7549
도서공급처 : 운주사 (Tel. 02-720-9372~3)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정보성** 사서실장 송종연

총무원장 박 서 봉
부 원 장 최혜초, 이금담
총무부장 윤자월
교무부장 정대은
사회부장 류우담
재무부장 우혜공
규찰부장 이지성

중앙종회
의 장 신벽산
부 의 장 박인공, 이운산

사정원
원 장 홍인곡
부 원 장 이백우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745-2030~2 / FAX : 745-6364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김 도 용**

■ 총무원
원 장 전문덕
총무부장 김도원
교무부장 박덕수
교육부장 김국성
재무부장 남궁도제
사회부장 이문덕
규정부장 변춘광
종정사서실장 박법전

■ 종의회
의 장 윤덕산
부 의 장 김국성
부 의 장 김길두

■ 감사원
원 장 주정산
감사위원 조진덕

■ 참의원
원 장 박형철
간 사 이상래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구인사 전문강원 김지복

총본사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0444) 423-7100~8 / 팩스 : (0444) 20-3399

대한불교진각종

■ 통리원
통리원장 최지광
총무부장 일 정
재무부장 성 초
재무국장 효 암
문화국장 회 정
건설부장 우 승
공무국장 대 경

■ 중앙교육원
원 장 도 흔
교법부장 휴 명
교법국장 덕 일
교육부장 석 봉
교육국장 관 중

■ 종의회
의 장 경 혜
부 의 장 법 광
대안화
사무처장 덕 정

■ 사감원
원 장 소 암
사감부장 진 당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 913-0751~3, 913-0803~4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김 대 천** 사서 김성진

원로원장 이혜웅
위 원 박종영, 김명우, 신경봉, 조혜경, 박삼우, 장영월, 김자월

총무원장 이홍파
총무부장 김지섭
교무부장 황법명
재무부장 김경철
사회부장 김성철
감찰부장 김화엄
조직부장 이종현
포교위원 정법성
종무위원 전동화

종회의장 정법륜
부 의 장 신무본, 정춘담
사무국장 지법정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홍지묵
역경부장 오혜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02) 763-3109, 3345 / FAX : (02)765-5851

부처님의 빛 아래 하나 되어 사는 세상을

불교총지종

종 령 록 정
통리원장 효 강
총무부장 원 봉
재무부장 법 공
사회부장 혜 암
교정부장 사홍화

중앙종의회 의장 송 하
부의장 우 승
사감원장 총지화
재단사무국장 지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2
☎ (02)552-1080~3 / FAX : (02)552-1082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

종 정 한혜붕
원로원장 심법목
총무원장 배일공
종의회의장 최법신
교육원장 이평신

포교원장 한원각
규정원장 서덕암
특별교구종무원장 고혜승
부산교구종무원장 현천호
광주교구종무원장 이백암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차성인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조성관
강원교구종무원장 류무송
경북교구종무원장 손원진
경남교구종무원장 김지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 (02) 857-5094, 853-0431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 구 하
의장 정 현 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인천시 낭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7 / FAX : (032)422-0413 / 서울사무소 : (02)730-0798~9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대산 (혜봉)

부 종 정 능봉 용 운
승정원장 월봉 기 원
총무원장 지강 만 청
종회의장 혜공 제 선

사정원장 각화 청 암
교육원장 대진 영 담
문화원장 대월 법 홍
교리연구원장 김인덕 교수

■ 총무원 : 충북 충주시 교현2동 539-21호
☎ (0441) 43-3000, 44-3000 / 팩스 : (0441)845-5150

법 륜 사

주지 이 일 지

신도일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2 장승B/D
☎ 814-9946

흥 륜 사

주지 정 법 륜

대중일동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032) 865-1133~4

강릉 괘방산 등명락가사

주 지 청 우 스님
총 무 진 종 스님
신도회장 곽기웅 거사
가섭회장 신호승 거사
서울신도회장 보 광 거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7
☎ (0391) 44-5337, 44-5475

대한불교 보문종

보 문 사

주 지 황 법 준
총 무 이 법 선
교 무 김 진 우
재 무 오 인 태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
☎ 928-3797, 926-9752

불 광 사

주지 강 자 현

신도일동

인천시 서구 석남 1동 덕불산
☎ (032) 583-5238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차 동 광

대중일동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64번지
☎ 993-3161~3 / 주지실 993-5002 / FAX : 993-3164

대한불교천태종

삼 광 사

주 지 변 춘 광

총무 박자정 재무 황대묘
노전 박지문 노전 김갈성
신도회장 김찬권

대중일동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 (051) 808-7111~5 / FAX : (051)803-1332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보현사

주 지 도 완
신도회장 이 달 영

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 544
☎ (0391) 42-9437

찬불가 새영역 개척

본사초청 오느름 실내악단 공연 성황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한 부처님 오신날 봉축 오느름 실내악단 초청 '불교음악의 밤'이 지난 26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렸다.

젊은 불자국악인들의 불교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 준 이날 무대에서는 김희경씨의 신작 찬불가요 동요및 찬불가가 공연됐다. 특히 전통불가조 '화청' '축원' '보련'이 안숙선명창, 덕신스님, 조주선씨에 의해 소개돼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오느름 실내악단외에도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과 대한불교어린이합창단 단원이 출연했다.

승무, 법고춤과 찬불가, 창이 조화를 이루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찬불가의 새로운 장르 개척의 서곡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열린 오느름 실내악단의 공연 장면.

호진스님 부처님자취 순례 '인도 불적 답사기' 펴냈다



◇호진스님



원시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한 불교학자가 부처님의 자취를 찾기 위해 부처님이 거쳐간 장소들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이야기들을 묶은 〈인도 불적 답사기〉가 나왔다. 저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호진스님.

저자는 인도여행에 앞서 6개월간 관계서적 20여권을 탐독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세차례 인도를 찾으며 호진스님이 만난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깨달음을 성취한 보드가야, 최초의 설법지 사르나트, 주요 전법무대였던 바이샬리 라자그리하 쉬라바스티 그리고 열반의 당 쿠시나가라 등 부처님이 밟으셨던 길과 장소를 뒤좇으며 호진스님이 만난 부처님은 당시의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역사속의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고타마 싯타르타인 나와는 다른 존재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고백에서 이 책은 기존의 지나치게 감상적인 수필류의 인도여행기와는 분명 다르다. 아울러 일기식으로 현지 사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 인도여행의 길잡이로도 손색이 없다. 〈불교시대사, 1만원〉

성철스님 회고전

4일부터 한가람미술관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성철스님 회고전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살아 생전 성철 스님의 일상생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주명덕씨의 사진 1백여점과 스님 열반이후 1년6개월간 전념해 그려온 대형 초상화 40여점이 전시된다.

'사찰 장엄미' 사진전

관조스님 서남미술관

사진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소개해 온 관조스님의 5번째 개인전 '불교사진전'이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서남미술전시관(마포 다보빌딩 4층)에서 열린다.

〈승가 1.2〉〈열반의 길〉〈자연〉〈소(蘇)이끼와 바위〉〈수미단〉에 이어 한국 사찰의 장엄 관련사진 95점을 담은 8번째 사진집 〈대웅전〉 발간과 동시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부안 개암사, 부산 범어사, 금룡 직지사등 전국 18곳 유명한 대소 사찰 건축의 장엄을 담은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스님 유치원 다녀올께요"

감동 드라마 'HBS 인간기행'

지리산 도계암 여섯살 보리의 이야기



◇지리산 도계암에 사는 보리와 혜관스님의 이야기가 6일 오후 5시5분 HBS 채널에서 방송된다.

지리산 맑은 바람 속의 작은 절 도계암.

도계암에 사는 보리는 올해 산 아래 마을의 유치원에 입학했다. 5년전 절문앞에 버려졌던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스님, 유치원 다녀 올께요"라는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커 있다. 외톨박이르 혼자 남은 절에서 '엄마스님'인 혜관스님과 함께 사는 보리는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천진스레 자라나고 있다.

유치원에 가는 보리 꼬마 승복대신 예쁜 새옷을 입고, 그간 깍아버렸던 머리에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밤송이 같은 보리.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와 살지는 않지만 슬프지 않은 어린 보리의 눈망울이 6일 오후 5시5분부터 한 시간동안 HBS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같이 놀 친구가 없어도 스님께 어리광을 부리면 심심치 않다"는 보리는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혜관스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아침 신나게 유치원을 향해 간다.

여섯살 어린 보리의 가슴에 부처님 오신날은 어떤 연꽃이 피어 날까.

산골 암자의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그 소박한 생활상이 도계암의 하루와 함께 화면을 채운다. 혜관스님과 보리의 하루. 그 하루는 엄마스님의 분주한 손짓에서 뛰놀다 지쳐 잠든 보리의 쌔근거리는 숨소리까지 이어진다.

HBS 는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보리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프로 '인간 기행'의 여덟번째 이야기 '보리'를 통해 우리는 진정 부처님이 오실곳이 어디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원우 기자〉



◇지난달 22일 열린 천태 예술제 공연 모습.

천태예술제 佛音한마당

천태종 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개최한 제4회 천태예술제가 지난달 22일 오후7시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예술제에서는 청주 명장사 관음합창단, 천태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과 천태어린이 무용단의 고전무용 '심청전'이 1부 순서를 장식했다.

방송 하이라이트

채널마다 '부처님 특집' 다채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방송가에서는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겨 보는 이색 다큐멘터리등이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이번 특집에는 성철스님과 틱낙한스님 관련프로가 집중 편성된것이 두드러진 특징.

한편 5월7일 10시에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은 btn,BBS,KBS,Ytn,에서 전국에 생방송한다.

btn ▨우리들의 부처님(1일 오후2시20분~35분) 부처님 일대기를 에니메이션 실사로 제작한 어린이 교육용프로.



▨북한불교의 어제와오늘(3일 12:30~13:20)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불교의 현주소를 조명해본다.

▨특별초청대담(3일 13:30~14:20) 고은선생과 틱낙한스님의 특별대담이 열린다. 지난 20일 현대불교신문주최로 구룡사에서 갖은 대담이 방송된다.

▨달라이라마의가르침(4일 13:30~14:20) 티벳의 정신적 스승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달라이라마는 티벳의 정치적인 스승으로 많은 지식층을 이끌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친근한 모습은 고도로 복잡한 사상과 감각적인 논쟁을 다룬 한편 단순하고 유머가 풍부한 그의 신선함도 느낄 수 있다.

BBS ▨부처님 오신날 축하쇼(7일 12:10~14:00) 부산에서 마련한 공개방송으로 태진아, 강산에, 임주리 등 인기 정상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나눈다.

▨세계로간한국불교(7일 14:00~15:00) 미국, 대만,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번져간 한국불교의 개척현장을 소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KBS1 ▨특선 다큐「불교 유적지를 찾아」(7일 10:50~12:00)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구도 영상기행이다. 중국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여황제이자 불교의 후원자였던 측천무후가 왕위에 올라 사원과 불상을 대폭 확장하여 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현장을 소개한다.

중국 3대 불교예술인 용문석굴과 정토종의 실제창시자인 선도대사의 도량인 행적사도 소개된다.

▨KBS 특별 초대석(7일 12:00~1:00) 김지견교수(정신문화원)의 진행으로 의상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신라시대 원효스님과 함께 불교 부흥운동을 펼친 의상스님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본문화를 발굴하여 정리해 본다.

▨경주 남산 불상 머리 어디로…(14일 20:00~21:00) 경주 남산은 잘 알려진대로 신라 불교의 상징. 110곳이 넘는 절터, 80여개의 불상, 70여개의 석탑에 관한 기록이 있음에도 현재 남아있는 30여개의 불상은 절반이상이 훼손돼 있다. 이들 불상이 누구에 의해 훼손됐으며 어떤 정도로 유실됐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추적한다.

MBC ▨틱낙한스님(7일0:20~1:10) 베트남의 불교지도자인 틱낙한스님은 프랑스의 보르도우 근교에서 수행센터 매화마을을 이끌며 난민구호운동, 강연, 집필을 하고 있다. 틱낙한 스님의 수행과 활동을 통해 불교의 내면적 각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여행해 본다.

▨성철스님을찾아서(7일 08:10~09:00) 성철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사상과 업적을 재조정해 본다.

원택스님이 리포터로 등장하여 성철스님이 남긴 사상적 업적, 3천배의 의미를 되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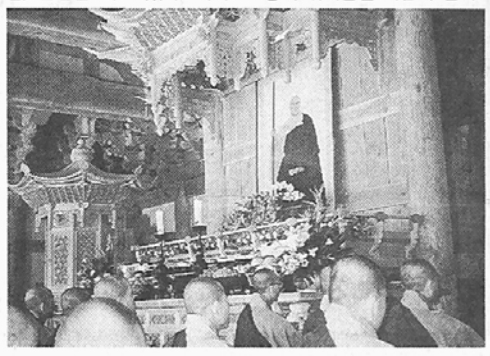
SBS ▨젊은 인생(06:00~07:00)조계사의 장수팀, 도선사의 사랑팀, 지장사의 행운팀이 참가하여 불꽃튀는 대결과 화합을 다진다. 연꽃만들기, 불교교리 스피드 퀴즈 등으로 대결하고 택견체조 시범 및 배워보기등이 펼쳐진다.

▨성철큰스님(7일9:30~11:30)생전에 강조하셨던 혹독한 3천배의 전 과정을 보고 '현실이 극락이고 모든 것이 부처님이므로 남을 섬기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누더기 한 벌로 일관한 무소유의 삶, 그 누구보다 투철했던 수행정신을 제자들의 증언으로 들어본다.

교통관광 TV ▨불교성지순례(7일 10:10~11:10)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도문명의 발상지로 떠난다.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성도의 부다가야,처음설법지 사르나트 열반에든 쿠시나가라등 4대 성지와 사헤트 마헤트와 라지기르등 8대 성지를 답사한다.



Q채널 ▨석가모니의 발자취(7일 14:00~15:00) 영화 '리틀붓다'의 촬영을 추적한 작품으로 중생구제를 위해 한평생을 보낸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의 위대함을 더듬어 본다.



◇ MBC가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방송하는 '성철스님을 찾아서'의 한 장면.

EBS ▨사랑이있는 사회(7일 오전 8시~9시))사찰로는 처음으로 노동자 야학과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특수아동 조기교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운영하는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과 대전에서 자비원과 법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증실스님의 자비와 사랑실천이야기가 펼쳐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 연수생 모집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에 나가 포교활동을 수행할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 12명(스님 6명, 재가자 6명)
참가자격 : 신심이 견고하고 신체 건강한 50세 이하의 불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시험일정 : 5월 20일(토) 오후 3시
원서마감 : 5월 19일(금) 오후 5시
접 수 처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접수서류 : 이력서 2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모집방법 : 1차 필기시험(불교교리, 불교상식, 영어로 출제)
2차 면접실시(영어회화)
연수기간 : 1995년 5월 30일 ~ 12월 2일(6개월간 실시)
연수과목 :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특별 초청 특강은 제외)
불교기본교리, 한국불교, 불교영어어휘, 강연실습, 외국인과의 실습, 수련대회 등

연수자의 혜택
1. 연수자 전원에게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2. 교육비 무료,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에게 장려금 지급
3. 수석 학생(스님 1명, 재가자 1명)에게 해외 특별포교순례를 보냄
4. 성적이 우수하고 원력이 있는 자에게 해외사찰 및 관광사찰의 안내원으로 추천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 내 전화 : 720-7060~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김정락

봉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부처님 오신날

축

제1차 포교사 연수교육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포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포교원에서는 포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포교사들이 일선 포교현장에서의 포교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포교사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부산·경남지역-5월 21일(일) 10시 ~ 16시 30분
광주·전남지역-5월 28일(일) 13시 ~ 18시
전주·전북지역-6월 4일(일) 11시 ~ 17시 30분
대구·경북지역-6월 11일(일) 10시 ~ 16시 30분
서울·경기지역-6월 18일(일) 10시 ~ 16시 30분

장 소
부산·경남지역-부산불교교육대학 ☎(051)818-8659
광주·전남지역-광주불교대학(향림사 내) ☎(062)375-7603
전주·전북지역-화엄불교대학(전북불교회관) ☎(0652)75-0108
대구·경북지역-대구불교대학(보현사 내) ☎(053)255-4873
서울·경기지역-총무원 1층 불교회관 ☎(02)720-7060

대 상 신규 포교사 및 포교사증 갱신 대상자

준비물 포교사증, 필기구, 교육비 무료, 점심제공

참 고 이외 지역(충청,강원,제주) 포교사님들도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여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김 정 락

너무 영험해서 금서가 된 자미두수!!!

자미경 운명비결

자미도수 144도표판
「자미경 운명비결」- 인간통계학의 데이타베이스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우주적 안목을 바탕으로 수천년 이어온 인간 통계학이자 삶의 큰 흐름 자미두수!!!

중국의 자미두수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 체계화하고, 고대 중국인들의 인간에 대한 통찰을 현대화한 인간 통계학.
단순한 흥미위주의 역술서가 아니라 최초로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화한 전문 역술인을 위한 본격 역학서이다.
성좌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보다 쉽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성좌도의 구성요소인 12궁과 12운, 보조성들에 대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의식구조에 맞춰 재해석하고 쉽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해당되는 명과 궁을 펼치기만 하면 개개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석훈/337쪽/13,000원(한정판)

신령스러운 자미경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미두수, 그러나 일반인들도 쉽게 자미두수의 신비한 비의를 깨칠 수 있도록 설명된 한글판.
김석훈/458쪽/10,000원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 주역

주역 연구사상 최초로 지동설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의 변화를 이용하게 해줄 경이로운 지혜서!!!
서우선/556쪽/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3번지 문학아카데미 TEL/764-5057, FAX/745-8516

5만불자 연등행렬 '장엄'

여의도 봉축대법회 걸음마다 '인류문명 선도' 서원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세상'을 기원하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여의도 광장에서 5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혜암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지광 통리원장, 대한법화종 대호 총무원장 등 각 종단 대표와 권익현 국회정각회장 박찬종 전신민당 대표, 전 일본 불교회 대표, 직할교구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대법회는 명고 명종을 시작으로 관불 헌향 헌화 헌다 대구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 예불 정근 축원문 봉축사 법어 초파일송가 발원문 기원문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혜암스님이 대독한 이날 법어에서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생명의 존귀함은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는 법어를 내렸다.

봉축사에서 월주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체득하여 청정수행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비원력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오늘에 계승하고 미래의 인류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자"고 말했다.

법요식에 앞서 4시부터 식전행사로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의 범패, 48개 연합합창단의 합창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부처님 오신 날을 한층 장엄했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오후 6시부터 여의도를 출발 마포~공덕동 로타리~아현동 로타리~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조계사 앞까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제등행렬은 특히 오색연꽃 등을 단 BBS 교통통신원 택시 1백여대가 선두를 화려하게 장식,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중앙승가대, 봉은사, 종립학교, 도선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석왕사 등의 순으로 각 장엄등을 앞세우고 실시됐다. 4시간동안 진행된 제등행렬은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8km의 거리를 연등으로 환하게 수놓았다.

대구시민 위한 기원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무공스님)가 오는 7일까지 다양한 봉축행사를 펼친다.

지난 25일 시청앞 광장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기념행사의 막을 올린 봉축위원회는 5월1일, 2일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와 1천여명이 참석하게 될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개최하며,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청소년 수계법회, 외국인 노동자의 밤, 각종 위문법회 및 봉축법요식등 20여개의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충북 조공법회등 열어

청주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도 다양한 위문법회를 펼친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될 이번 위문법회는 풍주사 용화사등 8개 사찰과 한국불신 충북불교연합회 등이 청주 소년원을 비롯, 청주여자교도소, 군부대, 경찰서, 보육원등을 한곳씩 전담 방문해 불서보시 및 위문잔치를 갖는다.

또 충북불교연합회(회장 월성스님)는 5월8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지역·단체기관장들을 초청, 조공법회를 갖고 6일 오후 7시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제등행렬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암연 법요식

수원사암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매산국민학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수원지역 30개 사암주지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통령 383사찰에 연등

김영삼대통령은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383개 사찰에 봉축연등을 달고 1만5천여 사암주지스님과 신행단체대표들에게 봉축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불교신도회(회장 곽정출의원)는 4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도심 밝힌 평화의 탑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자비광명의 탑이 지난 27일 시청앞에서 점등식을 가졌다. 평화의 탑은 오는 8일까지 속진에 찌든 도시민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준다. 〈박재완기자〉

부처님 대구서 또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빌며

부처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한울님의 자손임을 자긍하는 민족,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는 민족임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 끊이지 않고 人災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오신 날을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억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 한강의 다리가 동강나더니,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수 많은 생명이 사라졌음은 물론이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구에서 또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나봅니다. 물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대형사고가 연발하더니 지하로 옮겼다고 야단입니다.

부처님, 이번 대구의 폭발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빚어졌다 합니다. 파출소에 가스냄새가 난다고 신고한 시민에게 쓸데없는 걱정말고 가서 점심이나 먹으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녁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떠넘겨 줄 수도 없는 기막힌 일에 아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비하신 부처님은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나 한탄했을 뿐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 희생자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슬플 때는 우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면 아침 등교시간에 맞춰 일어난 사고로 수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 당했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 저주하고픈 심정입니다.

부처님, 어린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왜 청소년들이 죽어야 합니까. 꽃은 피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꽃은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관련기관에선 돈 몇푼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물질만능의 시대이니까 생명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하려 하겠지요.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수 많은 청소년들, 그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부처님, 시민의식이 결여된 탓입니다.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 없다는 상식의 결여입니다. 적당주의에 물든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나 하나만 잘되면 아무래도 좋다는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웃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을 주십시오. 개인의 욕망이 모든 재앙의 근원임을 깨닫을 수 있는 머리를 주십시오.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만대를 살 수 있는 평화가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사고로 참변을 당한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요. 그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치유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삼가 희생자의 영전에 머리숙여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사원일동>

여성불자 사회봉사 앞장

보현행원단 지난 21일 창립 본격활동

교계안팎으로 불자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만의 자원봉사단체인 보현행원단(회장 심혜민)이 지난달 21일 오후7시 국제호텔 연회장에서 창립됐다.

60명으로 구성된 보현행원단은 그동안 강원도 소쩍새마을, 교도소, 감호소 등지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와 복지시설에서 폭넓은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해외서도 봉축 "열기"

美·加·獨등 불교단체들 일제행사

대구 포교지단 출범

조계종 전국포교사단 대구지단이 지난 22일 오후 2시 대구 보현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 지단장에 무공스님(동화사 주지), 이 수석 부지단장에 조동성 포교사가 선출되었으며 지단 세칙도 토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불련 포교주간 선포

6일 헌혈법회 등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는 지난달 29일 「불교의 희망 청년붓다 1600」 출범과 동시에 오는 7일까지 「부처님 맞이 포교주간」을 선포, 본격적인 봉축행사를 펼치고 있다.

대불련은 4일 광주연등보시 5일 서울·인천지부 노동보시 6일 헌혈법회 등을 펼친다. 특히 지부별로 제등행렬에서 오체투지 및 우슬착지결의를 한다.

해외 전법 현장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열기가 뜨겁다.

미국 북미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6회 국제퍼레이드가 7일 맨하탄 유니온스퀘어 파크에서 열린다. 미국내 15개국 사찰 2천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될 이 퍼레이드는 봉축법요, 법문, 독경에 이어 펼쳐진다. '인류평화, 전쟁없는 세계' '인류 한가족의 이상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퍼레이드에는 한국 12개사찰이 참여한다.

카나다 주재 26개국 불교승가회(회장 양일스님)도 합동봉축법요식을 7일 오후 5시부터 토론토 시청앞 광장에서 봉행한다. 기념사와 축원, 축가로 펼쳐지는 법요식에 이어 국회의사당까지 제등행렬로 이어진다.

한편, 온타리오 연합봉축위원회는 봉축 포스터 부착, 일일찻집 등을 통한 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독일의 사찰에서도 봉축법요가 이어진다. 보문사는 7일 오후3시 베를린 불교협회 법당에서 법요식을 갖고 13일에는 각안스님 초청법회도 가질 계획이다. 종지사는 7일 오전 11시 베를린 법당에서 법요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 뜻을 현지 신도들과 함께 기린다.

이밖에도 독일 내의 대만 스리랑카, 베트남계 사찰들도 13일부터 21일까지 각종 법회와 세미나등 기념식을 갖는다.

원광대 출신 한의사들

'금강의료봉사회' 결성

원광대 대불련출신 한의사들이 지난 15일 '금강회 의료봉사회(회장 우정순)'를 결성, 지난 23일 청주 금강회관에서 첫 무료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1백여명의 청주 주민에게 따뜻한 의술을 베푼 금강회 의료봉사회는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원광대 대불련 출신으로 구성, 의술을 통해 사회에 보시하고 스스로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아 지역불교 신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승가대 개편' 내달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통해

조계종 교육원 주최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가 지난달 2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려 지방승가대 개편에 관한 논의를 6월 세미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인사 송광사등 16명의 강주 및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강원'명칭도 세미나를 통해 변경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 예산에 편성된 지방승가대 지원금은 교육지원비와 강사연구비, 학술논문집 발행에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교육원 회의에 일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승가대 교재 전과목을 재편집 교재의 통일을 기하고 번역문을 추가키로 하는 한편 치문과 사집에 대한 번역과 주해를 하기로 하고 비교종교학은 내년 4학년 과정부터 강의키로 했다.

초파일 화재 주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설치와 촛불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만해도 부산 소재 2개 사찰에 불이 나 법당이 전소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냈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각 사찰과 협력해 화재예방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국 각 사찰도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 운집한 불자들의 얼굴은 맑고 따사로운 하늘빛처럼 평온해 보였다. 5시, 봉축 법요식이 시작되고 곧 이어 대구가스폭발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다. 잠시 숙연했던 몇 분이 흘러가고 행사는 차질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바로 전날 대구에서는 1백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있었다. 여의도 법요식은 온 국민의 아픔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인재(人災)가 있은 바로 다음날 개최된 대형행사였다. 그러니만큼 5만여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니 즉석에서 참사 사상자 돕기 성금을 모은다거나 법회후 헌혈 캠페인 행사가 있었더라면 부처님 오신 의미를 한층 더 새기는 뜻 깊은 봉축대법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아쉬움 남긴 법요식장

각 종단과 대구지역 사찰에서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위로금을 전달하고, 천도재를 올려주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뜻밖의 사고로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참사 유족들을 위한 돕기에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불자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동체대비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며,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한결 뜻깊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여름엔 시원하게/겨울엔 따끈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품질보증 UL



게르마늄 목화 온돌침대

어버이날 맞이 30~20% 효도세일

1995.4.28~5.7(10일간)

건강에 좋은 온돌입니다.

(무광) / 매트 : 화강암 / 재질 : 원목 / Size : 2100×163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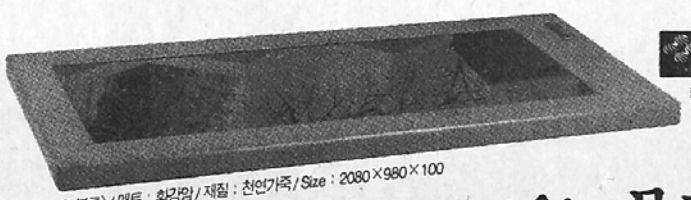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원적외선 Bio 목화 게르마늄 온돌침대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몸에 좋다는 게르마늄, 온돌침대.
그 건강효과가 사용자의 입에서 입으로,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르마늄은 NK세포와 식암세포를 증강시키며,
먹는 산소라고 불리기도 하며,
원적외선 작용에 의한 혈액순환 개선에서
안마, 점질효과로 인한 피로회복 촉진,
온돌바닥에 의한 허리건강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목화 온돌침대로 바꿔보세요.
더이상 건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전화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 드립니다.



(S보료) / 매트 : 화강암 / 재질 : 천연가죽 / Size : 2080×980×100

비자카드 LG 삼성카드

카드소지자 3~18개월 분할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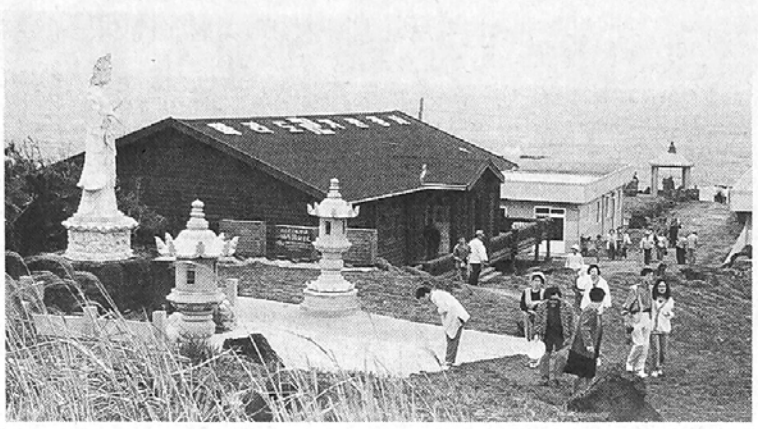
목화 온돌침대 찜질방

(02)208-7974/5, 209-6378

부산 (051)412-9351, 416-0807

목화 온돌침대 대리점모집

전통과 신용의 상징 목화가 지사 및 대리점주를 모십니다.



◇분단50주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기원정사는 통일염원 1백일 기도를 입제한다. 매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있다.

마라도 '기원정사' 분단 50년 통일염원 백일기도

낙도의 목탁소리 북녘하늘로…

부처님 오신 날 입제…광복절 회향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찾는 길은 하늘을 날고 땅을 가로질러 다시 물길을 헤쳐 가야 한다.

'마라도 불교성지 해수관음 기도도량. 기원정사'

큼직한 사찰 안내판이 배에서 내리는 신혼부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마라도는 10만여평의 작은 섬이다. 넓은 초원위에 동화속 그림같은 집과 사탑들이 살고 있다. 기원정사(주지 정관)는 20여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 남쪽 해변가에 자리해 있다. 종각, 대웅전, 요사채와 12척 높이의 해수관음상이 최남단 사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기원정사는 해방 50주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일기원 1백일기도 준비로 부산하다. 8월 광복절에 회향하는 이번 기도는 분단 50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가 힘한 바다를 건너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이면 3천여명의 관광객이 마라도를 찾고 있어 종교를 초월, 연인원 1만여명이 통일기도에 참석할 전망이다"는 정관스님의 설명이다.

"마라도 주민은 대부분 불자입니다. 땅끝에 살지만 통일염원은 이곳 주민도 간절합니다. 마침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곳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대법회가 열린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도가 관광지보다는 통일성지로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이장 김행남(61)씨는 처음 맞는 기원정사 1백일 기도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마라도에 사찰이 건립된 것은 지난 87년. 작은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1883년 이후 1백년만에 부처님집이 처음 마련됐다. 당시 정관스님과 제주지역 불자들은 마라도 남단 언덕배기에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 "자비와 광명이 마라도에서 한라산으로 한라산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덮어 광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소서"라며 원을 세웠다.

기원정사의 대웅전은 통나무 법당이다. 짠 바다바람으로 단청을 하지 못해 별장을 연상케하지만 대웅전은 60평 규모의 제법 큰 법당이다.

법당내에는 국내사찰에서 보기드물게 용왕탱화가 자리해 있다. 바다만을 바라보고 사는 주민을 위한 토속신앙이 함께 한 것이다. 그러나 기원정사의 창건의의를 보여주는 것은 법당 우측에 자리한 산신전이다. 기원정사 산신전에는 두마리의 대형 호랑이 그림이 탱화를 대신하고 있다. 주지 정관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백두산의 숫호랑이와 한라산의 암호랑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기원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통일법당이다.

기원정사에는 동시에 5백명 수용가능한 수련원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불편없이 기도정진할 수 있다. 기원정사는 앞으로 이곳 수련원을 이용 2박3일 단기출가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마라도는 근래까지만 해도 풍랑으로 희생된 업저지의 설화가 얽힌 '할매당'이 주민의 안녕을 맡아왔다. 기원정사가 창건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초하루, 보름 그리고 바다일을 나가기에 앞서 부처님을 먼저 찾는다. 정기법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개방된 법당은 마라도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원정사는 불교성지로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 그곳에 섬이 있어 가야 하기보다는 이제 그곳에 통일염원 불교성지가 있어 꼭 가야만 하는 우리의 땅이다.

〈마라도=이준엽 기자〉

불교 실버타운 건립

조계종 복지재단… '보리수마을' 10월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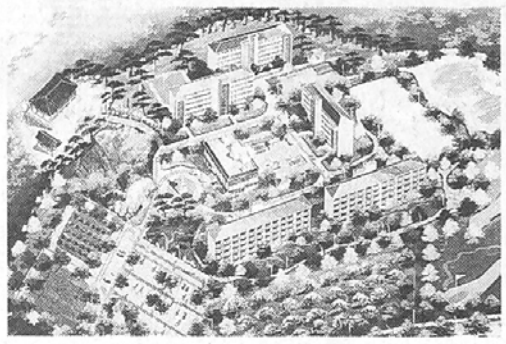
유료노인종합복지시설 '보리수 마을'(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번지)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송월주스님)의 첫번째 사업으로 전개된다.

조계종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될 보리수 마을은 부지면적 2만여평, 연건축면적 7천평의 대규모 타운으로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대표이사 이덕천)가 지난 92년 11월 설립인가를 받아 93년 10월부터 시공을 시작, 현재 80%의 공정을 마친상태다. 보리수마을은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되면 주거시설을 갖춘 15평형 3백60세대에 7백여명이 입주 가능하게 되며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종교시설·여가시설등도 갖추게 된다.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제반 경비는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부담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입주자 모집 및 홍보 각종 행사진행, 입주자를 위한 불교신앙시설 설치 및 복지프로그램등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할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첫 중점시범사업으로 전개되는 유로노인종합복지시설 보리수 마을은 앞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임종복지시설 설치운영·의료공제사업등의 제반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36번지에 건축중인 '보리수 마을' 조감도.

국제 포교사 양성 계획

조계종 연수과정 거쳐 해외전법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 전법교화에 앞장설 국제포교사가 종단차원에서 양성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총12명(스님 6명, 재가자 6명)의 국제포교사를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험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해외사찰이나 관광사찰에 파견 전법교화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언어 구사능력 미약, 특정국가 편중, 교포대상포교,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해외포교사의 활동파악이 어려웠던 점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제포교가 새롭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포교원은 이번 연수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며 외국인과의 실습, 수련대회를 갖는등 내실을 기하는등 종단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02)720-7060~4

제주영탑 30기 완공

한마음 선원 광주지원 법당 준공

제주지역에 최초로 불교 영탑공원이 생겨 시선을 끌고 있다.

한마음 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4월 23일 영탑공원 준공 및 대행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영탑은 30기. 앞으로 4천여평 부지에 총3백20기를 세울 계획이다. 연일과 6바라밀 상징 지붕, 4성제 기단형의 흰색 영탑에는 3대의 영가를 지속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

전 제주지사 신구범 우근민 씨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명의 근본이 불(佛)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의 보배이며 마음의 선장인 주인공의 뿌리를 찾아 영원히 죽지않는 길을 열어 나갈 것"를 당부했다.

한편 한마음 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도 4월 29일 법당 준공 및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를 지역기관장 및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사경공덕원 개원법회

사경공덕원(원장 한불은)은 지난달 30일 녹수청산에서 2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보우대사 탄신기념 봉찬대재

양주회암사 사부대중 1천명 동참

허응당 보우대사 탄신 4백30주년기념 봉찬대재가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기도 양주 회암사 옛터에서 봉행됐다.

제주 고관사(주지 도립)와 서울 법화정사가 주최한 이날 대재는 찬불가, 반야심경, 헌화, 추모사에 이어 법화경예찬 득손, 바라춤, 도량법성계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방송 공공DB 사업 제외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국가공공DB사업에서 불교방송이 제시한 '불교정보'와 '해외교포거주현황'이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 공공DB진흥부는 지난달 21일 금년도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52개업체의 73개 과제가 확정된 이날발표에서 불교방송의 제안과제는 '심사점수의 미달'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성지 중창불사

낙산사, 4년만에 보타전 회향

강원 양양 낙산사(주지 마근스님)가 보타전을 비롯한 대규모 관음성지 회향불사를 지난달 23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관음성지 종합불사는 일주문, 해우당, 심검당, 보타락과 7관음성상, 32응신상, 1천5백관음상을 모신 보타전이 4년만에 조성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성지 회향법회를 계기로 모든 불자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음을 쫓아 이타행을 몸소 실천하자"고 말했다.

경찰가족위한 대법회 인천경승단 지난28일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지단(지단장 법륜스님)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흥륜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나라와 경찰가족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날 기원 대법회는 인천지방경찰청 김광식 청장을 비롯, 인천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장과 경찰간부, 경승실장, 경찰가족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했다.

남북 공동 법요식 北거부 접촉 실패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추진중인 남북공동 법요식 개최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남북공동 법요식 개최를 제의한 바 있는 조계종은 지난 21일 실무접촉을 위해 시현스님(총무원 문화사회부장)과 법안스님(실천승가회 민주통일 위원장)을 북경에 파견했으나 조불련측과의 접촉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날 시현·법안스님은 북한 조선 종교인협의회 장재철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5월 2일 이전에 2차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고 행사자료를 첨부해 이를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날 축제 개최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원장 선진규)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련원에서 제 7회 봉화산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부모님 은혜 호천망극(昊天罔極)이로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글짓기, 사생대회 등의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부에는 민속씨름, 특기자랑, 연예인과 청소년 합동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대구·경북 본사협 구성키로

조계종 동화사, 불국사, 은해사, 고운사 본말사 2백50여 스님들은 지난 25일 경주 롱코드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화시대 대비와 불교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성된 4개 본사 협의회는 각 본사 주지스님을 지도준비위원으로 도영, 운성, 동명, 설송스님을 실무준비위원으로 임명하고 오는 6월 2차 모임을 갖고 정식 출범키로 했다.

검정고시 일정변경 유감표명

교육부(장관 김숙희)는 지난달 20일 검정고시 일정변경과 관련 교계단체에 공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준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불교인권위 인권상 선정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 26일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선정 발표했다.

부산 찬불합창제 성황

부처님의 법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은 제1회 찬불합창제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3천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불교합창단협의회(회장 김경선)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합창제에는 한마음선원합창단, 범어사합창단 등 7개 지역합창단이 참석했다.

조계종, 사찰운영위 구성 저조

지난달 25일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가 4월27일 현재 5개 본말사 96개로 전체 사찰 1천7백76개의 6%에 불과 대책미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교방송 사장 선출위서 선임

불교방송 사장이 앞으로는 이사회내 '사장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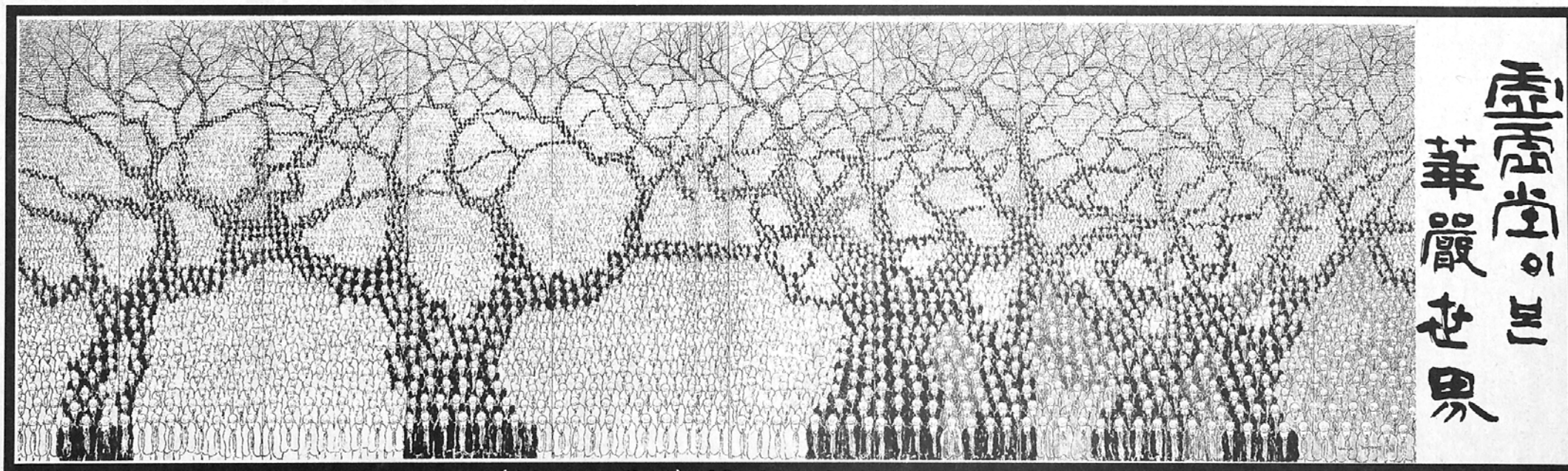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 간담회는 당초 계획했던 이사회 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개최됐다.

조계종 스님 BBS 출연 중단

조계종 방송특위가 '조계종 스님의 불교방송 출연 중지'를 촉구함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됐다.

이번 진행자 교체에 따라 '차한잔의 선율'은 이선미 아나운서부장, '자비의 전화'는 이영일 종교문화부장과 한정섭법사가 진행한다. 또한 '살며생각하며'는 태고종의 법현스님, '불국토의 아침'은 연기영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현대불교 부산지사(051)634-5114 대구지사(053)813-9976



허허당스님의 팔만 사천동자(화엄법계도) 20년간의 방황과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낸 대작 불사!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 법계도) 20년간의 방황과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낸 대작불사

끝없이 펼쳐진 화선지에서 생명 생명들이 가득 넘쳐나는 그 아름다움은 차라리 그림이라기보다 수천 수만의 부처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나투는듯해 참으로 신비하고 기이하기조차 하다.

스님께서 이작품을 그리면서 석가모니불을 팔만사천번이나 염송하며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고 팔만사천번의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가사를 입히고 팔만사천번의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 점안을 했다고 하니 그 공덕 이루 말할 수 없다.

각계신문이 앞다투어 이시대의 최고 걸작이라 칭송을 서슴치 않았던 허허당(향훈)스님의 영혼의 세계를 우리모두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虛虛堂(법명 : 향훈스님)

1956. 11. 15일생
경북 고령 덕곡에서 태어나 1974년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하여 해은스님을 은사로 1976년 득도 향곡선사문하에서 선수행을 쌓음
1978년 경남·남지 토굴에서 도반, 무념스님과 함께 정진을 하다 문득 깨달은 바 있어 붓을 잡기 시작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선수행과 함께 본격적인 선화작업에 들어감.
현재 지리산 안국사에서 정진중. .

전시경력

1984.제1회 虛虛堂 繪書展 으엿차 하(중앙화랑)
1986.제2회 〃 〃 어디로 갈꺼나(르노와르아트홀)
1989.제3회 〃 〃 생명의 걸음으로(이야기마당전시실)
1991.제4회 〃 〃 가고가고 또 간다(예술마당 솔) 가고가고 또 간다 사회집 출간
1992. 제5회 〃 〃 이 희 꼬(벽아미술관)
1995.제6회 〃 〃 허허당의 화엄세계 부처님오신날 기념전(서울역문화회관)
1995. 9. 허허당 만행일기 수필집 출간예정(옷깃에 별을 달고 달을 담아서)

허허당 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법계도)

예약보급안내 • 예약시 ₩190,000 작품인도시 ₩300,000
• 예약일로부터 15일이내 전달합니다.

불사에 전념해온 삼전불사에서 스님과의 인연에 따라 20년에 걸쳐 완성한 이시대 최고의 선화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법계도)를 영인본 10폭병풍으로 제작 215점을 한정예약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전시장소 : 서울역 문화회관(1·2층)
전시기간 : 1995.4.29~5.10
예약처 : 三田佛事(조계사후문)
전화 : (02)735~5293, 732-6096
예약구좌 농협 053-01-227202 국민은행 058-01-0317-258(예금주 : 하상전)

한국형 저탕식 가스보일러

귀뚜라미 가스보일러는 한국형 온돌에 적합한 저탕식 보일러로 열교환기를 99.9%순동으로 만들어 집수명만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 골드 가스보일러



품질관리대상 • 신기술NT마크 획득

30여년 전통의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는 발명특허 등 400여가지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화, 자동화, 정밀대량생산,
98.5%부품국산화로 세계시장을 제패하겠습니다.

귀뚜라미 가스보일러

30여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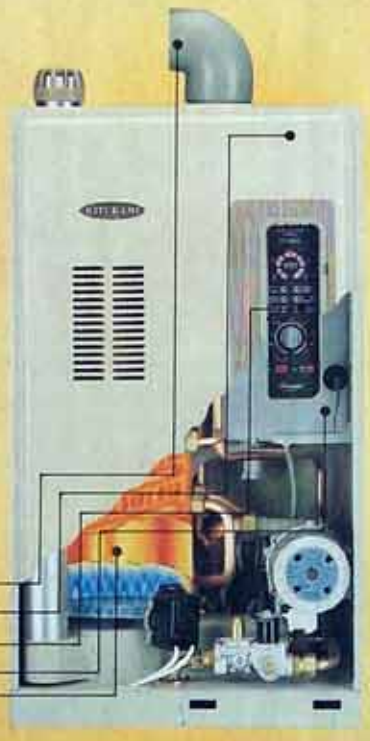
1,200만 고객께서 키워주신 귀뚜라미 보일러!

무료서비스와 세계시장 제패로 보답하겠습니다.

디럭스 가스보일러(저탕식)— 세계적인 신기술인 가스누출탐지기가 장착되어 안전에 빈틈이 없습니다.

- 한국온돌에 적합한 저탕식 구조로 온수량이 풍부하고 훨씬 경제적입니다. (순동 99.9%열교환기 사용)
-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가스누출탐지기에 의해 경보음이 울리며 바로 보일러 가동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99.9% 순동으로 만든 본체에다 가스가 통과하는 모든부분을 알루미늄주물화하여 완벽한 기밀성을 유지하여 안전하며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360° 설치가 가능한 연통에 안전한 강제급배기 방식(FF)
연소가스 자동배출기(DC모터)
가스누출을 원천봉쇄하는 가스누출탐지기
압력이 없어 안전한 개방형 팽창탱크
한국온돌에 적합한 저탕식 구조(99.9% 순동 소재)



• 모델명 : RGS-20,000H
• 용 량 : 20,000Kcal/h
• 열효율 : 90%

디럭스 기름보일러— 고장이 날수있는 외부의 모든장치를 저희 귀뚜라미가 고장이없게 직접 만들어서 보일러속에 다 넣었습니다. (팽창탱크,순환펌프,분배기,자동장치)

- 세계적인 터보소용돌이버너가 연료를 거의 완전연소시켜 연료절감과 공해방지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보일러 외부에 있던 각종장치가 보일러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 설치가 간편하고 고장이 적습니다.
- 기름가열장치가 부착되어 겨울철에도 경운기기름, 여름용경유를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가 절약됩니다.

보일러 가동을 자동제어하는 복합자동제어장치
압력이없어 안전한 개방형 팽창탱크
세계적인 터보소용돌이버너(세계 50개국 특허출원)
기름가열장치가 부착된 온수터미널(분배기)
내장형 고성능 순환펌프



• 모델명 : TURBO-17D
• 용 량 : 17,000Kcal/h
• 열효율 : 92%

귀뚜라미 저탕식 가스보일러

귀뚜라미 디럭스 기름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판매(주) 796-1384
귀뚜라미보일러 서비스(주) 793-9000
(주)귀뚜라미 가스보일러 (032)578-5131
귀뚜라미전자공업(주) (0544)53-4025

귀뚜라미보일러 SINCE 1962

로켓트 보일러공업(주) (032)675-7771
로켓트 기계공업(주) 786-1927
귀뚜라미보일러(주) (0542)73-6040
청도정밀공업(주) (0542)71-0999

특수영업팀 792-8430

현대불교 전법

22 국내외 포교현황
23 좌담 '차세대 포교'
24 포교사 설문분석
25 전법현장
27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만약 부처님이 녹야원(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날 수 있었을까. "비구들이여 모든 이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 가지말고 혼자 떠나라"고 당부하신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녹야원의 최초 설법에서 비롯됐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이 '부처'로 공인된 진리의 첫 성지 현장순례(법정스님의 '인도기행'과 고은씨의 '신왕오천축국전' 발췌)를 통해 '전법'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흙으로 조각된 부처님 최초의 설법모습.

내가 가본 녹야원

인간의 근원적 모습

법 정 〈스님〉

사르나트의 옛이름은 선인(仙人)이 사는 므리가다바(鹿野苑). 일설에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브라흐마닷타왕이 이곳을 사슴들이 살도록 내놓았기 때문에 '사슴의 동산'이 되었다고 한다.

녹야원의 상징은 입구에서 서쪽으로 우람하게 솟아있는 다메크탑(大法塔塔)이다. 이 탑은 굽타시대(서기 320~650년)에 세워진 것으로 상층부는 허물어져 있지만 현재도 높이가 43m, 기단은 직경이 36m에 이른다. 지상에서 11m까지는 커다란 돌로 둥글게 쌓아올렸고, 그 위는 벽돌탑으로 되어 있다.

이곳 어디쯤에서 부처님은 최초의 설법(初轉法輪)을 하였을까? 〈전법륜경(轉法輪經)〉에서는 최초의 설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 두 개의 치우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 중도(中道)를 깨달았노라. 이 중도에 의해서 통찰과 인식을 얻었고, 광안과 깨달음과 눈뜸과 열반에 이르렀노라."

중도(中道)는 불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다.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적당한 태도를 가리킴이 아니라, 대립적으로 생각되는 양극단을 부정하고 가장 합당한 자주적인 행동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다.

녹야원의 드넓은 경내에는 여기저기 승원(僧院)과 전각(殿閣)의 터가 남아 있고, 한쪽에 아쇼카왕 석주가 깨뜨려진 채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뛰놀았을 사슴들이 이제는 우리에 갇혀 사육되고 있다.

녹야원 후문 쪽으로 나가면 '사르나트 고고박물관'이 있다.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뛰어난 소장품들이 많다.

바른쪽으로 돌아서면,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초 설법의 모습을 새긴 전법륜상(轉法輪像)이 이곳에 있다. 눈을 아래로 뜬 소년처럼 앳된 모습, 온화하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이런 미소야말로 인간이 지녀야 할 근원적인 속모습이 아닐까. 광안과 고요를 머금은 잔잔한 이런 미소야말로 인류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코와 손가락이 약간 파손되어 유감스러웠다.

4박5일 동안 사르나트에 머물면서 나는 이 불상이 좋아서 세 차례나 박물관을 찾았었다. 불상 앞에 마주설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감응이 어떤 것인가를 거듭거듭 헤아리게 되었다.



◇녹야원의 상징인 다메크탑.

지혜의 등불 비추니

고 은 〈시인〉

부처님은 깨달은 뒤의 기쁨을 전통적인 수행자들의 방식대로 혼자 지니고 있으면서 그 기쁨을 흠뻑 누리는 것으로 진리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그의 진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매우 고민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이곳 사슴동산까지 2백5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맨발 걸음으로 왔던 것이다. 그의 최초 설법을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바라나시에서 20리쯤 되는 곳의 광원 한군데이다. 사르나트.

부처님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 하필 이 곳 사슴동산에서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쉽게 풀린다.

우르벨라 마을 처녀 수자타의 우유죽을 얻어마심으로써 다섯 동지로부터 "과계자다! 너는 타락했다!"라는 규탄을 받고 그들이 떠나버렸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세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그들은 부처님의 말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만큼 부처님의 말은 간절한 바 있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두 변(邊)이 있는데 출가자는 그 두 변에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두 변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이 중도의 각성이야말로 부처님의 대각(大覺)을 가능케 했고, 바로 이 선언이야말로 그의 최초 설법(說法)의 서설(序說)이었던 것이다.

중도, 이것이 곧 8가지 바른 길이 아닌가. 지혜의 등불을 비추어 여래의 청정한 몸을 보게 하시나니….

진리의 처녀지, 진리의 첫 성지인 이 사슴동산에서 비로소 부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처로 공인된 것이다. 물론 그가 부다가야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새벽부터 우주 만상의 축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현실의 사람들로부터 '아,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시여'하는 칭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유적지의 갈색 흙빛돌 바닥의 일부가 남아있고 부처님의 명상처라고 전하는 대지(臺址)도 있다.

최초의 설법 광경을 흙으로 만든 조각에 색을 칠해서 부처님과 다섯 제자를 안치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의 그것에 견줄 바 없이 질박한 것이었다.

본디 녹야원은 3세기 무렵의 아쇼카 왕조에는 하나의 승원(僧院) 도시여서 그 규모가 자못 큰 대사원과 건물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13세기 회교도의 승니(僧尼) 대학살과 승원 파괴로 수트파만 겨우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전법 여행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부인도의 카필라바스푸(Kapilavastu)에서 태어 나셨다. 쿠시나가라(Kushinagara)에서 열반하시기까지 광막한 인도대륙을 누비며 숱한 중생들을 교화하셨다. 당시의 인도에는 마가다(Magadha)·코살라(Kosala)·아반티(Avanti)·밤사(Vamsa) 등의 대국들이 있었다. 그 이전의 인도문화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데 반해, 주로 간지스유역이 문화 중심지였다.

부처님의 교화행적 또한 간지스강의 중허리부분에서 행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분의 발길이 자주 머문곳은 사르나트(雜阿含經)에서 슈라바스티(舍衛國)에 이르는 곳이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라지·기르(영축산)·나알란다·바이샤알리(Vaishali)·비데하 등은 특히 부처님의 중심적 전법 루트였다. 녹야원에서 사위국까지는 약 450㎞. 천백리가 조금 넘는다. 동서의 발자취로는 비데하에서 상카스야(Sankasya)까지로 약 250㎞, 600리 남짓이다. 이 반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입화등이 이루어진다.

당시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도보에 의해서 이 길을 왕래하셨다. 그분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벳살리에서 쿠시나가라까지 걷는데 약 6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의 여행길은 1년 남짓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리라고 본다. 전도 초기에는 주로 남부인도의 마가다에 오래 계셨다. 그것은 빔비싸라왕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기에는 주로 북부인도의 코살라가 그 무대였다. 반면 만년에 이르면 중부인도, 특히 바이샤알리를 중심으로 교화활동을 펴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이 멸망하였고 북부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면 크게 넓은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2천5백년 전의 열악했던 환경을 염두에 두면 그의 행적은 가히 초인적이었다. 뱀수와 독충, 미개인이 우글거리는 사막한 지역을 그는 묵묵히 여행하셨다. 혹은 나무밑에서, 혹은 동굴에서 노숙하면서 기약없는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다.

소크라테스가 '거리의 현자(賢者)'였다면 부처님은 진실로 '길을 가르치신 성인(聖人)'이셨다. 그는 길에서 나셨고, 그 길 위에서 색신(色身)을 버리셨다.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덧없이 흘러가는 오늘의 중생들에게도 그분은 영원한 도반일 수 있다.

정병조 교수
〈동국대 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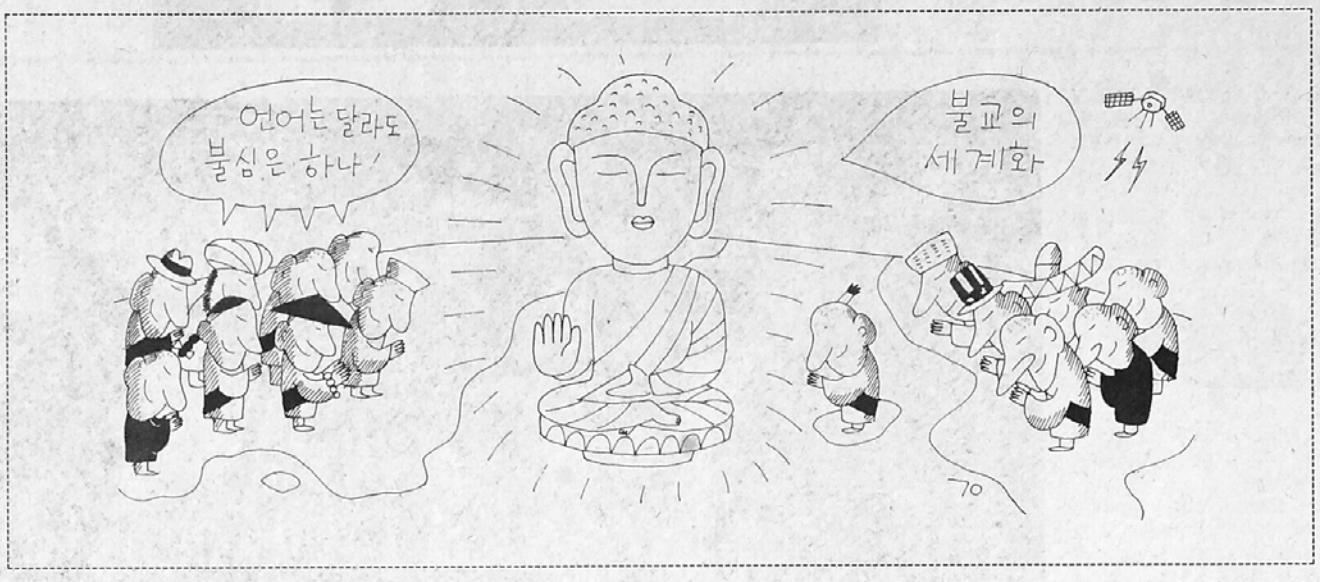
남북 450㎞ 동서 250㎞ 노숙하며 험한길 왕래

우드텍 자연주의
집안으로 옮겨놓은 대자연의 숨결
온돌전용 나무 마루재 우·드·텍

거실에서 주방·온돌방까지
원하는 곳 어디나…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휘어짐, 뒤틀림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온돌 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포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레스 처리로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재와 목재의 접합부분을 전용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하는 네다레스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평강동 VILLA
• 현대건설 [illegible] 주상복합
• 나산건설 보래매 주상복합
• 나산건설 서초 주상복합
• 동부건설 우면동 VILLA
• 진동아건설 압구동 VILLA
• 현대건설 중천봉의 VILLA
• 해성 DEPT(점포용)
• 롯데 DEPT(점포용)
WOODTEC
ESI 한일건설주식회사
우드텍 사업부: 강남구 도곡 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화빌딩 전화 579-2793~4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3-5(덕영빌딩)
전화 572-0662 / 팩스 575-9728
주요업종 건설업종 · 종합 주택 · 시설기획 ENG · 건설자재 레저산업 통시설 스포츠 엔터
서울 대리점 구산 프리레이션 (02)515-9653~4
코인상사 (02)564-3171
경기 대리점 이건산업 (0341)987-9151~9
씨닉스 (0342)701-8055
진흥주택 (0331)282-7528
웅진실업 (032)549-2218~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금림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경동보일러 (042)932-3680

부처님 오신 날 특집 / 포교 현황



사찰·포교사 '절대 부족'

절 70% 산중에 몰려… 수용 공간 한계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포교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수치·분석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하화중생의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포교방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선교에 나서는 기독교와 비교할 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1994년 현재 불교 사찰은 총 1만6백34개, 승려는 3만8백11명이다. 이에 비하여 교회는 총 4만2천5백89개, 교직자 수는 8만4천5백5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5세 이상 종교인구의 비율은 불교인 24.4%, 기독교인 18.2%, 천주교인 5.9%로 집계되어 기독교계의 비율은 24.1%로 불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불교포교의 문제는 신도수에 비하여 신도를 수용할 사찰이 부족하다는 점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도를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신도를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포교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표 참조)

70%이상의 사찰이 대도시 근교를 벗어난 산중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이 집주변의 사찰을 통하여 불교에 접하기는 아직 쉬운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인적 요소로서 승려와 포교사의 수적 열세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포교전담자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님은 포교사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이원적 수행 특성으로 미루어 선승과 포교승으로 구분할 때 승려만을 포교의 전담자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함께 재가불자들의 역할범위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재가포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기대는 생활불교의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란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부 종단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포교사 자격증을 주어 전문포교요원을 양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포교사가 포교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포교사의 위상 정립의 측면에서, 일반불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근처에 있는 포교당에서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스님과 포교사를 통해 생활화된 불교의 참 정신을 배움으로써 대중들이 불법에 쉽게 다가서게 하는 것이 포교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도심의 사찰불사와 함께 포교사의 확충과 위상정립의 과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박미영 기자〉

◇ 종단별 포교당·포교사수

종 단 명	사찰수(교당)	승려(교직자)	포 교 사
조 계 종	1,694개	10,056명	4,000명
태 고 종	2,455개	4,708명	1,251명
천 태 종	140개	457명	
진 각 종	118개	254명	

◇ 6대도시 사찰 분포

종 단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조계종	215	211	69	21	15	34
태고종	356	42	54	56	26	29
천태종	6	3	2	1	1	1
진각종	13	10	18	1	5	

세계속 한국불교

1백86사찰 "목탁소리"

60% 美집중… 교포위주 운영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은 모두 1백86곳이다.

지역별로 미국 106, 캐나다 9, 아르헨티나 3, 브라질 1, 스위스 1, 스페인 3, 영국 1, 독일 2, 폴란드 9, 체코1, 러시아 1, 유고 1, 우크라이나 2, 우즈베키스탄 1, 키르키스탄 1, 헝가리 1, 일본 33, 중국 1, 인도 2, 홍콩 2, 싱가폴 1, 스리랑카 1, 남아공화국 1, 호주 2곳등이다.

미국에서 1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불교전문지 트라이사이클에 나오는 사찰광고 총 127곳을 살펴보면 한국계사찰은 5곳에 불과하다. 또한 작년 영국에서 발행된 불교단체 주소록에 수록된 273개 단체에서 한국계는 찾을 수 없다. 이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현황을 상당부분 대변해 주는 통계다.

100여년전 국력의 쇠진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원인으로 이민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불교도 함께 나갔지만 교포사회에서 불교가 조직화된 것은 최근 몇십년에 불과하다. 현재 전세계에 2천4백17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교포교의 소극적 일면이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종단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원력 또는 교포사회의 자생적 움직임에 의하여 외국에 한국사찰이 건립되어왔다.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는 교포사회의 불자들 사이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을 향한 불교 포교라기 보다는 한국인 지향의 불교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외포교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서구사회는 기독교중심문화가 초래한 여러가지 병폐에 직면하여 있으며, 그 돌파구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 및 동구지역은 종교적 억압상태에서 갓 풀려나 종교적 진리를 구하려는 염원이 뜨거운 곳이다. 그러나 서구사회에 불교를 알리는 행보는 교서적의 발간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불교를 접하는 길은 서적을 통해서이다. 아직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외국어서적은 종류가 많지 않을 뿐더러 보급률도 극히 저조하다. 전문도서관까지 갖추고 각국어로 번역에 착수한 타지역 불교권만큼 성장하는 것은 당장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 소개책자 정도는 시급히 발간하여야 하리라 본다.

티벳불교가 앞서 있고 남방소승불교, 일본불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생활 전반의 세계화를 눈앞에 둔 지금 해외포교의 문제가 더이상 국내적 여건의 미비로 늦출 수 있는 시기가 아님을 감안할 때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들 수 있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우선 지금까지 물심양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포교의 일선에서 분투해온 한국사찰에 대한 종단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계종의 예산이 책정된 만큼 앞으로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포교사의 양성도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포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언어로써 불교교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이다. 조계종 예산이 올해부터 책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체계적 계획 하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포교에 개인적 원력을 가진 젊은 스님들의 참여도 동시에 요구된다.

세째, 각종 외국어로 된 포교서적의 발간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불교를 접하는 길은 서적을 통해서이다. 아직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외국어서적은 종류가 많지 않을 뿐더러 보급률도 극히 저조하다. 전문도서관까지 갖추고 각국어로 번역에 착수한 타지역 불교권만큼 성장하는 것은 당장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 소개책자 정도는 시급히 발간하여야 하리라 본다.

네째, 국제선센터가 있어야 한다. 선의 본고장을 찾아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벽안의 구도자들은 그동안 한국불교의 무관심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 많았다.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포사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심 깊은 불자를 비롯 지역불교를 이끌어 가게 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해외포교의 과제는 단기적 계획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불교가 내부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필요를 절감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연변

북한전법 가교 역할

도문 불교협 설립계기 활기

연변은 한민족의 정기가 발원하는 백두산을 남서쪽에 두고 동으로는 연해주와 남으로는 두만강과 접하는 지역이다. 현재 8개 시현으로 구성된 조선족자치주의 총인구는 1백97만명이고 이 중 81만명이 조선족이다.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발해의 문화가 융성했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개척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간도협약으로 일본이 임의로 영토를 청나라에 넘겨준 후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만큼 연변은 우리 민족의 정기가 깊이 스며있는 기간의 지리, 문화적 단절로 민족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임을 알고 스님은 심양에 백산사를 설립 한민족의 예절교육 및 민속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등 한국인의 정신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가불자연합회에서는 이 지역에 문화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불법홍보의 움직임이 빠르게전개되고 있다. 바로 연변불학원의 사적복구 및 불학연구 작업, 도문시 불교협회에서 복원한 화엄사, 진각종의 심인당 설립추진 및 백산스님의 문화운동, 재가불자연합의 문화관 설립 계획 등이 연변포교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연변불학원은 연변지역의 한민족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지역불교연구와 불교신앙으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하기위해 설립된 이래 1994년 5월 12일에는 중국 인민정부로부터 정식인준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3년부터 정암스님과 도문시 불자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지면서 1994년 3월에는 조선족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중불교단체인 도문시 불교협회가 설립되었고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사찰인 화엄사를 복원하여 조선족스님인 고도스님을 주지로 모시고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각종에서는 연변교포와의 인연이 닿으면서 흑룡강성에 있는 교포집을 심인당으로 활용,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재 교당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곧 불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산스님(모충사주지)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문화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지역의 한민족이 오랜 곳이다.

한 때 이 지역에는 수월, 용성스님의 덕화로 서른 곳이 넘는 한국사찰이 자리하기도 했으나 공산화와 더불어 이 절들은 모두 사라지고 불교는 꺼져가는 듯 했다. 그러나 80년대 중국의 개방정책과 더불어 종교정책에 변화가 왔고 불자들은 개인적으로 집에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 지역에서 현재 기독교의 진출이 활발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전 돈화시에 있는 중국사찰의 초파일법회에 3만명이 참가할 정도로 불교정서가 강한 곳이다.

현재 연변은 정책적으로 공산화이후 파손된 종교건물의 복원이 허가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지역의 포교활성화는 북한불교와의 교류내지 북한 포교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갖고 있다.역사적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이 지역에 불교를 되살리기 위해 범종단적인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유·를·꿈·꾸·는·이·들·에·게·보·내·는·한·구·도·자·의·푸·른·노·래

총각스님, 요즘 뭐하세요?

혜민스님 지음

혜민스님, 장가 가세요!

기도를 잘하는 젊은 총각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의 염불소리는 가을날 보름달 같아서 속진의 세월에 찌든 사람들의 입장을 녹여 내리는 신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스님의 염불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스님의 염불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살이는 번민과 한숨의 잡초들이 쉴새없이 올라오는 것이어서 마음이 몹시 심란한 때가 많습니다. 심란한 세상살이의 때를 벗어내고자 그날도 그 절을 찾아 올라온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그 총각 스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스님의 이름도 몰랐으므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노스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른 노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노스님, 지난번 염불 잘하신 그 총각 스님이 보이질 않네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 그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기미, 나는 총각 스님 아닌가." 〈본문 중에서〉

들녘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6 TEL 337-0296~7 FAX 338-9640

봉 1995년 동림 동문회 정기총회 행

모시는 말씀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람 수호와 수행정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며 석탄 봉축행사 준비로 공사다망하시겠습니까.
불보살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모든 일 원만히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95년 동림동문회 정기총회와 5기 동문 환영회를 다음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보고싶은 얼굴 동문회에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1995년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남산 타워 호텔(본관1층) 젤코바 홀 전화 (02) 236-2121 (교) 291
회비 3만원(기념품 증정)

불기 2539년 4월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회장 성 웅 합장

본부:남장사(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 (0582)31-0047 / 서울사무소:능인정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좌담:차세대 포교

부처님 오신 날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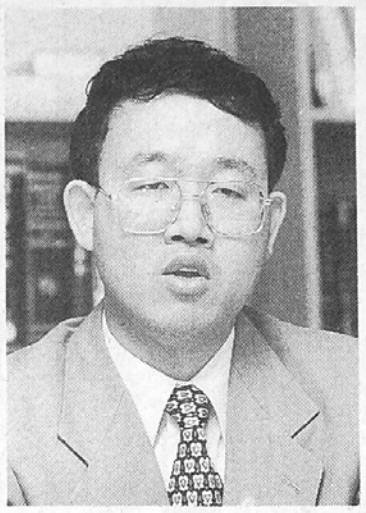
불교적 가치 심어 새시대 주역 양성

21세기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시대를 대비해 불교계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어느 때보다 미래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청소년 포교가 요구되고 있다. 차세대 포교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청소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차세대포교의 문제와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영담 스님


선진규 법사


이용교 박사

이용교박사:제가 먼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청소년 문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근로청소년들이 관심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심성교육과 놀이문화,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포교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의 청소년 문화는 과거의 청소년 문화 즉 기성세대의 문화적 배경이 유교나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는 서구 중심적이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 됩니다.

기성인들의 정서와 사고가 유교적 윤리의 기본인 3강5륜을 기반으로 하는 충·효·장유유서·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오늘날의 청소년은 개인적·자기중심적인 사고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흑백논리에 압각한 서구 모방적 문화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세대 가치관 형성

선진규법사:서구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접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문화의 근본이 유교나 불교적 정서를 깔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지요. 저는 청소년 문화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발한 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면도 굉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서구문화의 영향, 즉 기독교 문화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세대 포교를 논하는 것은 서구문화를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장점을 취하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철학의 사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입시지옥,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의 부재, 인신매매, 마약 등 청소년들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종교계가 앞장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델을 저는 과거 우리의 문화사 속에서 청소년 문화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접목 차원이 아닌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영담스님:오늘 논의된 것처럼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서구지향적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배출하는 학교제도가 서구적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 되었지요. 그곳에서 양성된 교사가 서구적 가치를 찬양하고 전통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유치원이나 학생회 여름학교를 통해 다년간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부딪쳤습니다만 일선 교사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교육 자체가 인성교육 보다는 입시교육 위주지요. 당연히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불신감이 굉배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불교가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 더불어 살려는 마음의 양양 등 불교계가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토건설의 밑거름이라 생각하면 종단과 스님들의 각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선진규법사:교육문제에 대해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서구식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선 일선 교육자들이 각성하고 있는 듯해 위안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서당이나 강원에서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서당은 충·효·예와 사회윤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덕성함양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은 생명의 존엄과 더불어 삶의 미덕을 가르치며, 존재의 본질과 현상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생활 양태가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여기에 경쟁에서 야기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궁극적 삶의 질서를 참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교육의 부재를 부르짖으면 짖을수록 전통 교육의 가치가 숭고함을 절감합니다.

영담스님:저는 국민학생을 상대로 방학을 이용해 임간(林間)학교를 개설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은중경을 가르쳤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교신자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포교를 한다는 소승적 입장 보다는 민족의 장래와 개방화시대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불교적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의 잘못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불교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일 등이 중점 사안이겠지요. 사회교육 차원에선 사찰을 개방하여 유치부·초·중·대학·청년·장년·노년부 등 각 계층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지요. 특히 칠석 백중과 같은 전통문화를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규법사:우선 차세대란 시기적으로 21세기를 지칭한다고 보며, 연령층으로는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세대는 무한개발시대로서 살아 남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그런 시대로 봅니다. 이것은 국내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불교가 청소년 포교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가 주안점 입니다. 종파주의적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타종교인들은 벌써 준비를 완료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불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몇몇 열성적인 분이 있지만 세부적이고 종단 전체의 입장에 선 대책이 먹연한듯 합니다.

이용교박사:현재 한국의 인구분포는 불교대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친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 사회를 주도하는 그룹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컨데 사립 초·중·고·대학의 설립자나 병원 운영권자를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구호가 실제 피부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물론 통계상 파악되지 않는 불교의 사회복지나 장학 활동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력과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선진규법사:이제 불교도 타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덕성함양 교육 필요

영담스님:그렇습니다. 비관적으로 말할 수만 없는 것이 청소년 포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통의 근간이 남아 있으므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스님들의 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키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종단적 차원에서 대책기구나 연구소를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라 봅니다.

이용교박사: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연구하는 측면과 문화를 연구하는 측면은 다릅니다. 비행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나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선도개념은 아닙니다. 개개인들이 자신을 드러내 놓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속에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성, 교우관계 등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공동체문화이거든요.

선진규법사:저는 청소년 문화의 사상적 바탕을 불교의 연기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연기법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연기란 존재론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인과응보사상을 고취시켜 강한 책임의식을 앙양시키고 혼돈의 문화에서 탈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케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불교적 인생관을 정립시켜 주면 청소년의 인격에 적극적 활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개방화시대를 맞아 적응력있는 인간이 되리라 봅니다.

절마다 상담실 운영

이용교박사:청소년과 밀접해지기 위해 불교계는 각 사찰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찰을 놀이마당으로 개방하여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장애인·학생 등 각각에 알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찰에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며, 청소년 대상의 문서 포교정보제공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발더 나가 국내의 성지순례, 청소년국제교류, 외국불교청소년과 연합 축제등도 좋겠지요.

선진규법사: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는 몇가지 사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인된 2천여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약 80% 정도가 기독교 성향입니다. 둘째는 교사불자회, 대학생불자회, 청소년불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교육에 나서는 일입니다.

셋째는 청소년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인된 지도자들의 구심체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역시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신바람 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찰의 개방, 불교도의 의식개혁 등이 선결되야 합니다.

영담스님:사찰개방과 스님들의 의식개혁, 청소년 포교의 전문기구가 필요하고, 청소년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놓고 차세대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종단의 몫이라 봅니다. 모쪼록 조국통일과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전종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참 석 자
영담 스님 〈부천석왕사 주지〉
선진규 법사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장〉
이용교 박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사찰개방 청소년 사회교육으로 활용
불자화보다 대승적 인성교육 — 영담 스님

인과응보사상 고취해 책임의식 갖게
지도자 배출 시급한 과제 — 선진규 법사

국내외 성지순례·국제교류 활성화로
공동체속에서 自我 찾아줘야 — 이용교 박사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임채수
사무국장 우학수
(051)464-2020

부산자유시장번영회
회장 심용보
(051)633-8785

인삼당약국
대표약사 박정환
부산시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3층
(051)632-0023

부산불교거사림
회 장 서건남
부회장 엄영건
(051)805-1280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이하우
이사장 박주천
(051)818-8659

부산불교녹야회
회 장 허건구
총 무 정은택
(051)814-6687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 상 호
(051)633-9120

선사 선행회
회 장 이 숙 향
회원일동
부산시 남구 대연5동 294
☎ (051)627-4985

부산불교고등학생지도연합회
회 장 이종판
총 무 김원수
(051)464-2020

염 불 암
주 지 성 수
신도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7
☎ (0343)71-2300, 3680

지리산 철굴암(구용화사)
주 지 동 파(김상우)
신도일동
경남 하동군 화계면 대성리 1620
☎ (0595)83-6513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 용인양로원 • 서울광명의원
• 노인문제연구소 • 청주광명의원
• 군포 광명의원 • 대전광명의원
이사장 김각현 외
임직원 및 후원회원 일동
☎ (02)203-3677, (0335)34-3677

부처님 오신 날 특집 / 포교사 설문분석

"직업 포교사제도 희망" 87%

本紙 전국포교사 4백명 대상 조사

일선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재가포교사들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직업포교사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종단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포교해야 할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꼽았다.

이같은 사실은 현대불교신문이 전국의 포교사 4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포교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통일교재 발행 시급

사회변화에 대응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포교방식을 묻는 질문에 포교사들은 유치원 수련원 등을 설치해 대중접촉을 넓혀가야 하며(27.8%) 포교당을 확대하고 법회를 늘리는 방식(26.1%) 불교언론을 통한 불교홍보(23.3%) 컴퓨터통신 등 정보매체 이용(21.1%)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우선적인 포교대상으로 중고생(34.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국민학생(17.2%) 일반인(16.2%) 대학생(9.9%)의 순이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 연령층을 중요한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소자 빈민 장애인 등은 각각 3.6%, 6.3%, 5.4%로 특수포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을 나타냈다. 현재의 주요 포교대상은 주부(29.8%) 중·고·대학생(28.4%) 직장인(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활동 중 겪는 애로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2.1%가 마땅한 통일교재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포교사의 위상에 대한 인식부족(18.1%)을 꼽았다. 이밖에도 기복신앙에 치우친 신도들의 신앙행태(16.5%) 및 신도들의 열의부족(15.7%) 제각각의 경전해설서의 난무(11.8%) 등을 들었다.

포교교재와 관련해 42.8%의 포교사들이 자체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며, 서점 및 불교용품점에서 교재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는 포교사도 38.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통일된 포교교재 발행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자가포교당 운영 24%

포교사가 된 동기에 대해서는 불교공부를 하다보니(36.7%) 또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였다(33.3%)고 답해 비교적 적극적 동기에 의해 포교사가 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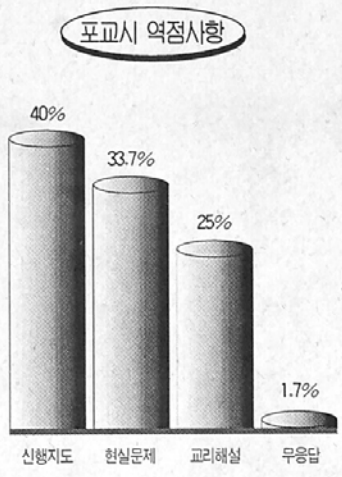
포교사들은 자격취득 후 대부분(68.3%)은 계속 활동했으며, 현재도 사찰 및 불교단체의 상임포교사(46.7%)나 자가포교당을 운영(23.3%)하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 활동하는 포교사도 25.0%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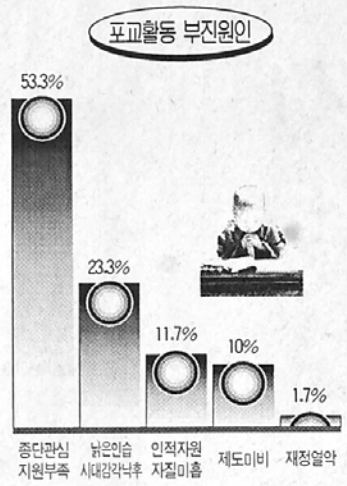
포교활동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신행지도(40.0%)와 현실문제 상담(28.3%) 교리해설(25.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활동횟수는 월4회 이상이 55.0%에 이르러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소임과 역할에 대해 56.6%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으며, 일할 기회가 더 주어지길 바라는 응답자도 25.6%나 되었다.

그러나 자가포교당을 운영하는 포교사의 경우, 26.7%의 응답자가 포교당운영을 포기하려 한적이 있었으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21.7%)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다른 가족이 생계를 분담하고 있다는 포교사도 10.0%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포교와 관련해 영·유아원 청소년공부방 등 병행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10군데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직업포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86.7%의 응답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여자보다 남자들이 이 의견에 더 적극적이어서 생계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우선 포교해야" 59%… 재교육 의무화 찬성

품계구분·자질향상 시급… "자격 고시제 실시" 80%

한편 포교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품계구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1.7%가 '그렇다'제고에 대한 강한 희망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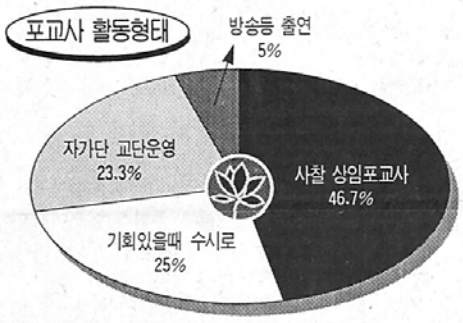
재교육 안받았다 45%

포교사 재교육과 관련해 모든 응답자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교육의 정기적인 의무화에 55.0%가 찬성을 표했다.

재교육시 개설희망 과목으로는 포교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설법 및 상담이론(42.9%) 교리·경전강좌(21.4%) 의식집전 교육(14.3%)을 요청했다. 이밖에 종교관련 법률교육, 전산교육 등의 과목설치를 원했다.

소속종단으로부터 재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포교사는 절반에 가까운 45.0%에 이르렀으며,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 포교사 양성제도에 문제점이 많음을 확인해 주었다.

현재의 포교사 숫자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숫자보다 자질향상이 시급하며(40.0%)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35.0%)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장애인·빈민등 특수층 포교 무관심 보여

이는 종단차원의 정기적인 재교육 실시와 중장기적인 포교계획에 따라 포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포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8.3%의 응답자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포교사들은 타종교 특히 기독교의 포교활동과 비교해 불교의 활동은 응답자 전원이 열세라고 답했으며, 종단차원의 관심 및 지원부족(53.5%)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낡은 관습과 시대감각의 낙후(23.3%) 포교사의 자질 미흡(11.7%) 제도의 미비(10.0%) 등의 순이었다.

기독교의 포교방법 가운데 꼭 도입해야 할 것으로는 지역단위 모임의 활성화와 상부상조하는 조직력, 적극성, 사명감, 복지사업 및 사회운동을 통한 포교, 신문·잡지 등 문서포교의 적극 활용, 어린이 청소년 등 차세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들었다.

〈정성운 기자〉

설문·응답

◇포교사가 된 동기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아서(15.0) ▲개인적 신념에 따라(33.3) ▲불교공부에 관심을 갖다보니(36.7) ▲가족 및 주변의 권유(13.3)

◇포교사 자격취득 후 줄곧 활동해 왔는가 ▲계속 활동했다(68.3) ▲현재는 중단상태(6.7) ▲자격만 취득하고 활동은 안했다(13.3)

◇현재의 활동 형태는 ▲사찰 및 단체의 상임포교사(46.7)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25.0) ▲방송·언론 등에 출연(5.0) ▲자가포교당 운영(23.3)

◇월평균 활동 횟수는 ▲월평균 1회(15.0) ▲월평균 2~3회(25.0) ▲주 1회(11.7) ▲주 2~3회(15.0) ▲매주 1회 이상(28.3) ▲무응답(8.3)

◇(활동중인 분에 한해) 현재의 소임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13.3) ▲대체로 만족(43.3) ▲일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25.0) ▲주어진 일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어려움(21.7) ▲주위의 만류(5.0) ▲무응답(73.3)

◇재정 상태는 어떤가(본인의 인건비는 제외) ▲적자상태다(11.7) ▲겨우 유지하는 정도(28.3) ▲괜찮은 편(10.0) ▲무응답(65.0)

◇포교당을 전업으로 운영하는가 ▲전업이다(25.0) ▲본인 또는 가족이 다른 생계수단을 운영하고 있다(10.0) ▲무응답(65.0)

◇포교와 관련해 병행하는 사업은 ▲영유아원(1.2) ▲청소년공부방(1.3) ▲없음(97.5)

◇포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현행대로가 적당(13.3) ▲종단의 교육기관에서만 해야 한다(13.3) ▲종단 위탁의 교육기관에서 해야 한다(33.3)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자격고시를 실시(33.3)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교육 보완(50.0) ▲기본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

재교육시 설법·상담·교리강좌 개설 희망

교재 자체제작 43%, 신행지도 역점 40%

다(10.0) ▲모르겠다(8.3)

◇(활동하지 않는 분에 한해) 기회가 생기면 포교활동을 하겠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26.7) ▲검토해 보겠다(6.7) ▲자신이 없다(3.3) ▲무응답(63.3)

◇포교활동 중 어려운 점은 ▲마땅한 통일교재가 없다(22.1) ▲제각각의 경전해설서가 너무 많다(11.8) ▲지도해 주는 곳이 없다(7.1) ▲신도들의 열의 부족(15.7) ▲포교사 위상에 대한 인식부족(18.1) ▲노력에 비해 대우가 소홀(8.7) ▲기복신앙에 치우친 신도들의 의식수준(16.5)

◇포교활동 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교리해설(25.0) ▲신행지도(40.0) ▲현실문제 상담(33.3) ▲무응답(1.7)

◇주로 상대하는 포교대상은 ▲노인(4.1) ▲어린이(8.1) ▲직장인(24.3) ▲주부(29.8) ▲중·고·대학생(28.4) ▲군대·교도소(5.4)

◇포교자료 구입경로는 ▲서점·불교용품점에서(38.1) ▲경전 활용(11.9) ▲자체 제작(42.8) ▲불교대학 교재활용(4.8) ▲아는 사찰 지원(2.4)

◇(자가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에 한해) 포교당 운영을 포기하려 한 적이 있었(3.3)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기본교육을 보완(40.0)

◇총무원이 향후 포교활성화를 위해 힘써야할 부분은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정착(23.2) ▲역경사업 등 불교문화의 전파(9.0) ▲사회복지활동의 강화(20.0) ▲포교활동에 대한 지원(16.8) ▲포교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보급(15.5) ▲포교사 자질의 재심의 및 관리 강화(15.5)

◇소속종단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었다(45.0) ▲있었다(43.3) 취득 후 평균 3.8회 ▲무응답(11.7)

◇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26.7) ▲대체로 불만족(25.0) ▲매우 불만족(8.3) ▲무응답(40.0)

◇재교육 불만족의 이유는 ▲교육장의시설(6.0) ▲교육내용(50.8) ▲교수진의 자질(17.9) ▲교수방식(23.9) ▲기타(1.4)

◇포교사 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재교육 의무화(25.6) ▲재교육의 정기적 실시(30.9) ▲보편적인 내용의 재교육 실시(16.9) ▲전문적인 내용의 재교육 실시(26.6)

◇전문교육의 개설희망 과목은 ▲설법·상담이론(42.9) ▲교리·경전강좌(21.4) ▲의식집전교육(14.3) ▲생활불교 관련강좌(9.5) ▲사회복지학(4.8) ▲불교관계법·전산강좌(4.8) ▲기타(2.3)

◇현재의 포교사 수에 대한 의견은 ▲많을수록 좋다(18.3) ▲이미 포화상태(1.7) ▲숫자보다 자질향상이 시급(40.0)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35.0)

◇직업포교사 제도에 대한 의견은 ▲제도적 지원 통해 정착시켜야(86.7) ▲개인의 역량과 열의에 맡길 일이다(10.0) ▲모르겠다(3.3)

◇포교사 위상 높이기 위한 품계구분은 필요한가 ▲필요하다(61.7) ▲필요치 않다(28.3) ▲모르겠다(10.0)

◇가장 우선적으로 포교해야 할 대상은 ▲미취학아동(7.2) ▲국민학생(17.2) ▲중고생, 청소년(34.2) ▲대학생(9.9) ▲일반인(16.2) ▲재소자(3.6) ▲빈민계층(6.3) ▲장애인(5.4)

◇사회변화에 대응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포교방식은 ▲유치원 수련원 등을 두고 대중접촉을 넓혀가는 방식(27.8) ▲포교당을 확대하고 법회를 늘리는 방식(26.1) ▲컴퓨터통신 등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방식(21.1) ▲불교언론을 강화함으로써 불교를 홍보하는 방식(23.3) ▲기타(1.7)

◇타종교, 특히 기독교 포교활동과 비교해 불교의 활동 정도는 ▲아주 열세(66.7) ▲대체로 열세(33.3)

◇뒤쳐진다면 그 이유는 ▲종단 차원의 관심 및 지원 부족(53.3) ▲낡은 인습, 시대감각 낙후(23.3) ▲제도의 미비(10.0) ▲인적 자원, 자질의 미흡(11.7) ▲재정사정 열악(1.7)

◇타종교의 포교방법 중 도입할만한 것은 ▲지역단위 모임(33.3) ▲인재양성(9.1) ▲적극성, 사명감(21.2) ▲사회운동 통한 방법(15.2) ▲문서포교 적극활용(12.1) ▲차세대에 대한 관심(9.1)

◇포교의 다양한 방편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영유아원(33.3) ▲양로원(6.7) ▲고아원(3.3) ▲병원(15.0) ▲청소년공부방(26.7) ▲군부대·교도소(8.3) ▲기타 무응답(6.7)

봉축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0433) 43-3615 팩스(0433) 43-3620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철 웅
본·말사 대중일동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567
☎(0416) 841-6221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조실 법원 진제 주지 일로 무공
부 주 지 태일 총무국장 도영
교무국장 각정 재무국장 오정
기획국장 지도 호법국장 법현
포교국장 한우 선 원 장 금모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053) 982-0101~2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녹원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교수일동, 임직원 일동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260-3114 (안내)

학교법인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월주 스님 학장 송산 스님
이사 석주스님 송산스님 종하스님 정우스님 현근스님 지하스님 지선스님 명훈스님 서돈각 주영운 박완일 홍윤식 엄종일
감사 선걸스님 범산스님 무상스님
사무처장 수완스님
교학처장 종석스님 총무처장 정인스님
기획실장 금정스님 교학국장 각밀스님
총무국장 선진스님
불교학과장 태원스님 사회복지학과장 보각스님
도서관장 종범스님 빅구수행관장 혜남스님
빅구수행관장 보각스님 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
불교사학연구소장 홍선스님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 이경호 교수
불교사회문제연구소장 영담스님
신문사 주간 불교교육원장 홍선스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925-5507~9

전법의 현장

부처님 오신 날 특집

"What am I" 영어로 佛法 전한다

이색포교

혜당스님 영어학원

"효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filialduty!(필리얼듀티!)"

"그래 우리는 효도라 표현하지만 서양인들은 filial(필리얼)-자식의, duty(듀티)-의무라는 두 단어를 합쳐 자식의 의무라 한단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 너희들도 효도는 '자식의 의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거라."

영어단어 하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 단어속에 숨어있는 삶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선생님, 혜당스님의 영어강의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황승우선생님 영어교실' 토요일 수업이 한창인 이곳에서 스님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효사상을 동서고금의 영원한 진리로서 풀어내며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준다. 칠판 가득히 들어선 영어단어들은 스님의 법력이요, 애정이자 포교방편의 화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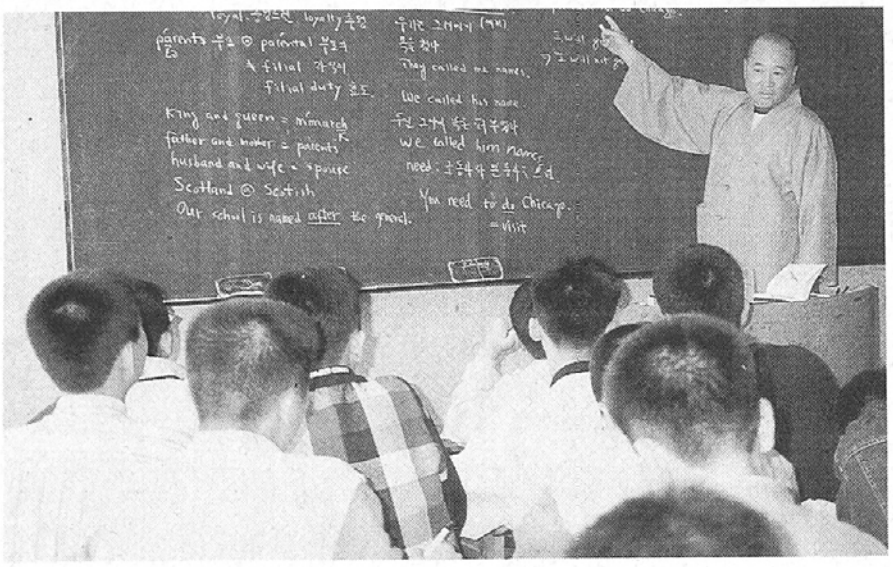
'황승우'는 혜당스님의 속명이다. 일제 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혹독하게 가난했던 소년시절, 4형제의 큰형으로 행상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그 어려움속에서도 세동생들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첫째동생 환병우는 국민학교 교사로 둘째동생 환지우는 시인이자 대학교수로 막내동생 환광우는 노동운동가로 키워냈다.

광주일고 광주서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80년, 처절했던 광주 항쟁때 동생들과 광주의 아픔을 겪은 황승우 선생님은 머리를 깎고 입산, 수도에 몰입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바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전공인 영어를 방편삼아 펼치고자 스님은 다시 속세에 몸을 던졌다.

매주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스님은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담양읍 수북면 오정리의 '금타선원'에서 수도와 정진, 포교에 힘쓴다. 스님은 신도들의 시주금을 일체 받지않는 걸로 유명하다. 영어학원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스님은 농촌마을에 재투자하며 농촌불자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스님은 "부처님이 설하신 영원한 진리를 지혜의 눈을 열어 전하는 것이 영어 강의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포교이자 교육입니다"라며 활짝 웃어 보인다.

스님의 영어교육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의 철저한 실천에 기초를 둔다. 육바라밀을 근간으로 법구경, 금강경등의 영문법구를 우리주변의 일들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설명한다는 것이 스님의 포교방법론이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진이고 인욕인 육바라밀입니다"라고 스님은 말한다.



◇칠판 가득히 들어선 영어단어들은 혜당스님 포교방편의 법문이다.

영문법구 생활과 연결 강의

"가르침이 곧 육바라밀 정진"

4년째 스님의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장우석군(금남중 3)은 "영어는 물론이고 가끔씩 들려주시는 선생님의 옛날 고학시절이야기도 저희들에겐 큰 공부가 돼요"라며 한번 학원에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은 몇년씩 계속해서 다닌다고 소개하기도. 스님은 자신의 고학시절 이야기를 '스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는 한권의 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대학 교환교수로 미국서 유학을 하며 평생 배워온 영어를 이웃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포교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로서 교육자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는 혜당스님.

학원 강의실에 나란히 앉은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혜당스님 그가 품고 있는 'What am I?(홧엠아이)-내가 뭘꼬?' 라는 화두가 심어지고 있는듯했다. 〈광주=이은자 기자〉

새벽 4시, 오늘도 불자들과 함께 새벽예불을 시작하며 구룡사의 하루를 연다.

하루 3번 예불시간이면 어김없이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하며 10여년을 호흡해왔다.

지난 85년 가을 당시에는 허허벌판이던 양재동 알대를 천막 하나 짊어진 채 처음 들어서 주택도 듬성듬성 보이는 이곳에 천막법당을 만들었다.

초창기시절 천막법당에서 만 2년, 가건물에서 또 2년반을 불자들과 함께 하면서 포교의 텃밭을 일구었다. 교통이 불편해 오지 못하는 신도들을 직접 차를 운전해 포교당으로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신도들과 함께 찾아가 상담도 해주면서 구룡사 부처님 품안으로 하나둘씩 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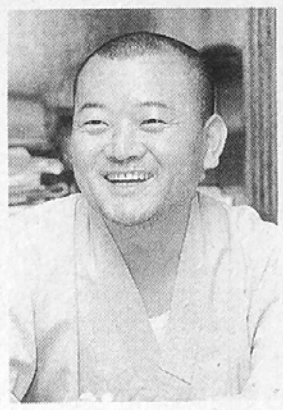
초하루 법회 하나로 십여명의 불자가 모였던 활동이 이제는 정기법회에 2천여 불자가 성황을 이루고 한달동안 40여차례의 법회가 열린다.

고승초청법회, 칠불법회, 무량법회, 관음법회, 화엄법회, 가족법회, 청년법회 등 각기 다양하게 분화된 법회도 불자들의 요구와 동참으로 엮어낼 수 있었다.

코흘리개 어린이로부터 청년, 학생, 성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부처님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로 구룡사는 언제나 분주하다. 그리고 얼마전 부터는 외국인노동자들까지 구룡사를 찾아 법회를 본다.

여기에 불교대학, 어린이 유치원, 결혼상담실, 진리의 전화, 구룡예술단 등도 불자들의 관심과 열의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의 구룡사를 있게 해준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신심 하나로 불교포교에 동참해준 여러 불자들의 공로다.



정우스님 〈서울 구룡사 주지〉

"포교당을 내집처럼 편안하게"

천막법당 시작…이젠 월 40여 법회 2천불자 참석

신심깊은 1만불자가 모여 '한가정 한부처님 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만분의 부처님을 모셨고,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자 불자가족들이 스스로 모여 지역법회도 활성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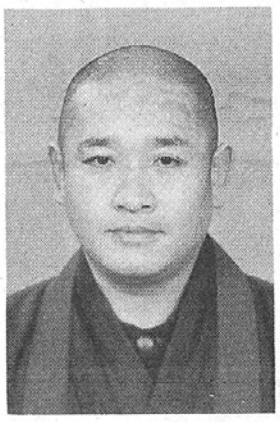
이 지역법회와 더불어 부처님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구룡사 신도들이 앞장설 것이다.

서울에 이어 최근 일산, 탄현, 중동, 송탄, 평촌,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 11개의 룡도사 분원 포교당이 들어서 포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있다.

지금 구룡사소극장에서는 극단 신시가 7월 공연을 예정으로 뮤지컬 '님의 침묵'을 맹연습중이다.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법열을 다시금 느끼며, 도심속의 부처님품안 구룡사에서 불자들과 함께 불국정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포교당이라 해서 법문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108배를 하고 찬불가를 부르며 그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케 해주고 싶다. 신도 하나하나가 포교당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사찰을 자신들의 가정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지인 내 몫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전법했다



지현스님 〈용화 청량사 주지〉

'경운기 포교'로 농촌 불심심기

다양한 프로 개발…교회다니던 어린이 다투어 찾아와

지현스님은 경운기와 트럭을 동원해 법회를 마치고 두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불자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해 주어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었다. 불심을 꽃피우려는 이러한 노력을 벌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뜻이라 여기며 용기와 힘을 얻어 문화강좌 및 서예교실을 개설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열심히 줄을 선다.

불자들의 호응이 높아 신도법회, 중고등법회, 기타교실, 청량사 풍물교실, 마하불교어머니합창단 등도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법회에 나오는 회원들로 룸비니 합창단을 들 가운데 절반이 넘게 법회에 나오며 재산국민학교 전교생 2백명중 1백20명의 아이들이 회관에 나온다. 요즘은 아이들이 더 적극적이다.

여름 수련대회때면 영주, 안동 아이들과 함께 농촌주민을 초청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되는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활발하게 법회가 이루어지자 자신감을 얻어 명호면에서도 신도법회와 어린이 법회를 개설했다.

청량사를 중심으로 각면에 법회가 이루어지자 불안을 느꼈는지 이때부터 이교도들의 시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지역면장 승인하에 사용하던 회관은 기독교인들의 저지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자들의 불타오르는 불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한 불자는 조그마한 시골 체육관을 무료로 빌려주기도 했고 또 어떤 불자는 경운기와 트럭을 동원해 법회를 마치고 두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불자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해 주어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었다. 불심을 꽃피우려는 이러한 노력을 벌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뜻이라 여기며 용기와 힘을 얻어 문화강좌 및 서예교실을 개설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열심히 줄을 선다.

불자들의 호응이 높아 신도법회, 중고등법회, 기타교실, 청량사 풍물교실, 마하불교어머니합창단 등도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법회에 나오는 회원들로 룸비니 합창단을 92년에 창단하여 해마다 시민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올해도 5월4일 정기공연을 앞두고 어린 부처들이 한창 연습중이다.

농촌불자들의 가슴 가슴 마다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길 두손 모아 기원하며 더욱 포교에 매진할 생각이다.

봉축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천불사
회주 허도봉
신도회장 허보은
경남 양산군 웅상읍 매곡리 304
☎(0523)82-1463

불교조각원 불교조각연구소
불사의 전당
대표 이진형/직원일동
전시실: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882
☎556-0541~3 팩스 556-0543
예장·물장 증공·주공 부산시 진구 부암3동 산 628 ☎804-8907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국사)/김혜진(시영사)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진(시흥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359-7766, 353-3004

직지사 대구포교원
회주 정혜창
대구 수성구 지원 대구 서구 지원
원장 도일 원장 정업
☎(053)754-8629 ☎(053)557-3599

한국불교
연화꽃꽂이연합회
회장 심보명
〈회원일동〉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1번지
☎925-0435

정법불홍포를 위하여 進一步 發一段하는
부산불교 실업인회
회장 김정태
고문 강병중 상임부회장 서춘석 부회장 조영준
부회장 백봉도/최 찰/최용원/김윤환 감사 정호철
감사 박수복 총무이사 박영근 재정이사 배영호 특별사업이사 김진석
회원일동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7-14 국제오피스텔 1805호
☎(051)466-7174~5 팩스 466-7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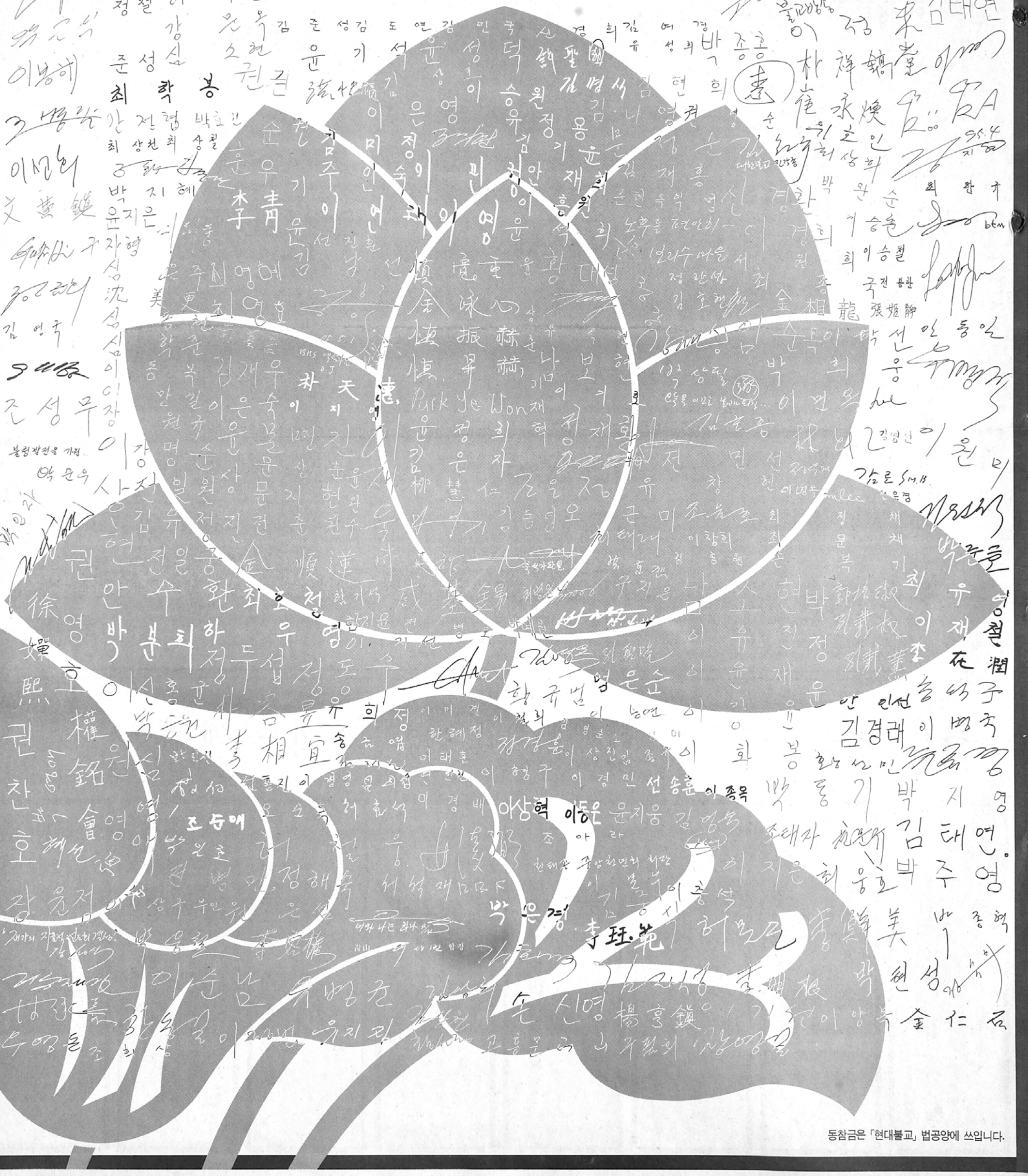
부산불교 전시관
대표 조재원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152
☎(051)632-7393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대중일동
인천 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4
☎(0349)32-3070

나도 전법사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밝히옵니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상 온갖 생명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
불자들의 서원을 여기에 담아 봅니다.



동참금은 「현대불교」 법공양에 쓰입니다.

지구촌 전법 이야기



◇행원스님은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전해 주겠다고 결심, 66년 첫 해외전법의 길에 나선다. 〈사진은 일본으로 기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스님의 환송객들.〉

교포들 "한국불교 믿고 싶다"
도쿄서 셋방법당 열고 보니…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1>

숭산 행원스님 ①

인연의 길을 따라

참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거침이 없는 역사의 물결, 그 속에 휩쓸리는 사람의 역사는 모래톱처럼 서걱 거렸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휴전선, 독재와 부패, 부패와 4. 19, 혼돈과 정치, 정치와 5. 16….

어수선한 것은 속세의 일만도 아니었다. 이승만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정화의 깃발은 올린 불교계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 혼란의 물줄기는 끝이 없었고 끝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끝을 향해 치닫는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두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절인연은 한 시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면 또 다른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은 인간의 현실이었다.

"비구들이여, 모든이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행원스님은 전도선언을 외치신 부처님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혼자서 가는 길, 그 외로움을 이제 스님의 현실로 받아 들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 됐다. 더이상 일본은 갈 수 없는 나라, 가서는 안될 나라도 아니었다. 반대의 외침도 36년의 뼈저리는 역사는 물밑에서 서걱이는 모래톱으로 남아 있어야했다. 이 또한 어수선한 시절인연의 한 과정일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행원스님은 일본행을 결심했다. 그것은 해외전법의 첫 결심이기도 했다. 스님의 일본행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싹이 텄다. 초동에 있는 동국대의 기숙사 지하실이었다. 이 기숙사는 본래 일본 서본원사의 별원이었다. 종단일을 맡았던 스님은 이 별원을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지하실에서 4천여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지하실의 4천구 유골

"일본군의 뼈무덤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쩌기는. 원수의 유골인데 파묻어 버리든지 어디 바닷물에 던져버리지…"

놀라움과 새로이 솟아나는 분개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아니, 그럴 것이 아니야."

스님은 달마회를 이끄는 몇 사람과 의논해 그 유해들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화계사로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그 일은 금방 소문이 났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가족의 생사를 몸서리치며 궁금해 하듯.

소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에서 잘관급 인사들까지 화계사로 몰려 왔고 가족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 그 유해 발견은 국교 정상화에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정식으로 스님들과 정치인을 보내 유골을 인수해 갔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에 흩어진 동포의 유해를 찾아 왔다. 그러니까 양국간의 유해교환이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점을 지우듯 이뤄진 것이었다. 물론 이 행사에 행원스님은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 1966년의 일이었다.

이때쯤 행원스님에게 편지가 왔다.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날아든 그 편지는 일본의 국회의원 오요다시 요시오의 것이었다.

'스님, 일본으로 와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입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한국의 절을 원하고 한국의 불교를 원합니다'

당시 일본에도 한국인 스님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본식 스님이 되어 일본식 불교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반쯤 무당이 된 경우도 있었다.

불자 없는 궁핍한 생활

행원스님의 일본행은 요오다시 요시오만의 채근이 아니었다. 한국의 정부에서도 일본에 갈 것을 권유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다. 당시 동경에 평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은 북한의 것이었다. 절이 북한 것이란 점은 문제될 것이 없었는지 몰라도 정작 큰 문제는 그 평화사가 교포들을 세뇌시키고 북으로 이송시키는 거점이란 점이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들은 마침내 행원스님을 일본으로 가게하는 현실적

> *"스님, 일본으로 와 주십시오. 일본에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들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절을 원하고 한국의 불교를 원합니다."*

이유로 굳어졌다. 일본, 도쿄에 도착했을 때 반겨준 사람은 오요다시 요시오였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거듭거듭해 오던 요시오는 "고려사를 쓰라"는 후한 인심도 내보였다. 그러나 그 고려사는 이미 몇달전에 불타 버려 횡뎅그레한 터만 남은 사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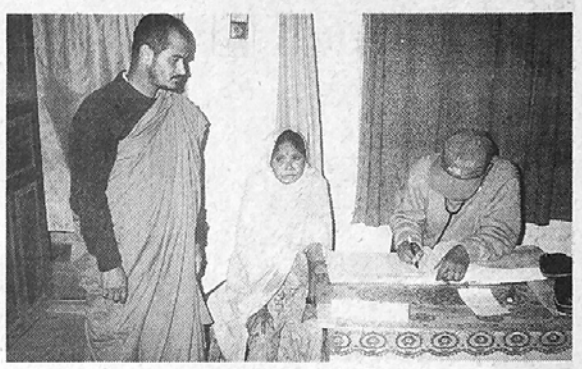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행원스님이 일본에서 포교를 한다면 2천만원을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란 명분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던 정부측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행원스님은 그 정부의 약속을 믿고 도쿄 신주꾸에서 집을 고르고 있었다. 1천8백만원이면 사찰로 쓰기에 충분한 집을 살 수 있었다. 적당한 집도 골라 두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에 신청한 지원금은 몇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점찍어 뒀던 집은 한 일본인이 사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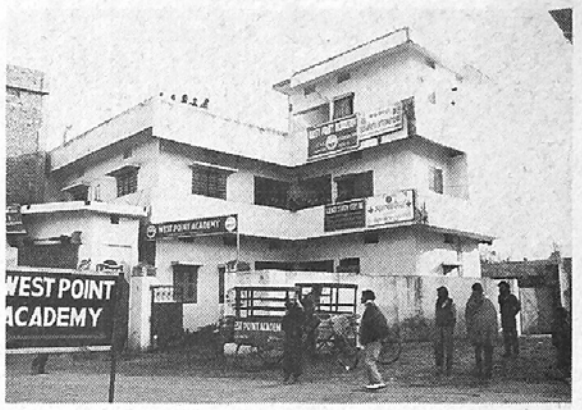
할 수 없이 다보이주에 셋집을 얻었다. 다달이 7만엔이란 큰 돈을 주어야 했다. 궁핍의 일본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신도도 없이 홀몸으로 시작한 일본 포교에서 넘어야 할 벽은 수 없이 많았다.

〈임연태 기자〉

사카족의 후예들

사찰 세우고 교육사업도





◇자신의 뿌리를 알게된 사카족들은 조상에 대한 긍지가 높다. 이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의료봉사를 하거나(사진 위) 학교를 설립, 교육사업에 열정을 쏟기도 한다.(사진 아래)

'동족의 나무그늘은 시원하다.' 부처님께서는 샤카족의 최후를 재촉하러 가는 코살라 국왕의 길목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업의 법칙은 위대한 성인의 종족마저 멸망시켰다. 이후 불기 2539년을 헤아리는 오늘 샤카족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샤카족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카필라바스투를 중심으로 네팔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의 샤끼방세(샤끼란 샤캬의 음변화)라는 카스트 전체를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샤끼방세는 인도 비하르주에만도 10%를 차지할 만큼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종족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역사의 그늘 뒤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네팔의 룸비니에는 옛 카필라 왕국의 후손들이 흙먼지와 뙤약볕 아래 단돈 700원(45RPs)의 일당을 벌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최첨단 문명을 동원한 룸비니개발계획의 화려함 뒤에는 타국인들의 부처님 성지건설 계획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역하는 후손들의 얼굴이 역사의 아이러니로 숨어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산스님에 따르면 네팔의 샤카족들에게 특별한 신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교수, 의사 등의 지식인도 있지만 다수가

최근 '부처님 후손' 인식 불교귀의 활발
네팔·인도에 거주…대부분 중하층 생활

중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샤카족스님인 마이트리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다. 스님은 네팔 현지에서 국제적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룸비니에서 가난하고 병든 네팔인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인도에 거주하는 샤카족들도 공식적으로는 카스트제도가 폐지되어 직업선택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관습적으로는 신분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샤끼방세는 중하위층에 머물고 있다. 인도 전체를 통털어 놓고 보면 샤끼방세들 중에는 불교를 신봉하는 이도, 부처님이 조상이었음을 아는 이도 높은 비율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부의 파트나와 북부의 샤카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샤카족과 직접 교류를 가지게 된 법륜스님(정토법당)에 따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파트나에서는 상업, 부동산업 등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춘 샤끼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특히 역사교육을 통해 이들은 10여년 전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다. 부처님이 조상임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들 사이에는 불교로 개종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선조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면서 '나무붓다'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들은 또한 아쇼카 보드 비하르라는 불교단체를 조직하여 사찰을 건립중이며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사찰이 완공되면 법륜스님을 통하여 한국불상을 모시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샹카시아 지역의 샤끼들은 이와는 달리 대대로 불교를 신봉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교육수준이 높아 대학출신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불자회를 조직 현재 회원이 천여명에 달한다. 스리랑카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들은 강한 신앙적 열정으로 뭉쳐있고 앞으로는 교육, 포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 모임의 회장은 팔리어를 배워 힌두교의 일부로서가 아닌 불교를 알고 가르치려는 야심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손들의 가슴마다에 메아리치고 나아가 네팔, 인도 전역에 불교문화가 다시 찬란히 꽃피는 날 샹카시아, 파트나 샤끼들의 헌신적 노력은 결실을 거둘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박미영 기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신심 깊은 보살님 두 분만 찾습니다
조용한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갈
신심 깊은 보살님 두 분에게
무료로 침식제공하오니
뜻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사실곳
경기도 양평군 불광산 정토원
■연락처
서울 238-3285, 233-2500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 · 변비 · 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 (02)552-1470(대) / 팩스 :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4242-511, 48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 011-267-251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흥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다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억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제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요.
이회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정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서울 은행(영동)하실분 연락 바라오며 비닌츤 절대 보장해드립니다. ■무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모실 분 · 학실 분 연락주시면 편성해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조각실(불교미술원)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부처님오신날

갤로퍼 특별 사은 판매

국내 정상의 4륜구동 갤로퍼가 불기 2539주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여
이 땅의 佛者 들께 특별판매를 실시합니다.
아무리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궂은 일도 거뜬히 해내는 車, 갤로퍼 –
갤로퍼와 함께 하십시오.

특별사은판매

대상 : 전국사찰 및 스님(승적 소지)
불교신도회 및 불교관련단체
기간 : '95. 5. 1~5. 31(출고기준)

사은 1 특별 장기무이자 분납

사은 2 특별 우대금리 적용 – 연리 10%
(24개월 이내 분납시)

사은 3 최장 60개월 할부판매 (자체할부식)

사은 4 특별사은품 증정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소로 문의바랍니다.

※ 본 모델차량은 갤로퍼 인터쿨러 SUPER EXCEED

뛰어난 안전성

가상 안정된 역학적 구조인 사다리꼴 차체 형상과 초강성 스틸재질의 샤시 프레임, 뛰어난 고장력 차체강판 및 도어 임팩트바, 그리고 고강도 강철 범퍼와 그릴가드 및 첨단 ABS 장착으로 탁월한 안전성이 돋보입니다.

전천후 주행성능

급코너링시 안전한 선회보장과 고속주행시, 횡풍 극복 능력으로 차체의 쏠림이나 떨림이 없으며 빗길이나 빙판길, 진흙탕길 등에서도 탁월한 접지력으로 바퀴의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또한 최저 지상고 215mm와 최첨단 LSD를 장착, 험로 주행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다목적성

국내 4륜구동 차량중 가장 많은 탐승인원(6명)과 넓은 적재공간, 주행중에도 2, 3열 시트를 펼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 플랫기능등 3열식 시트의 변환기능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경제성

디젤연료의 사용으로 유류비가 일반 승용차의 1/3 수준이며, 잔고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되는 싼가격의 소모성부품 보급으로 차량유지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차체 및 엔진의 견수명으로 높은 중고차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현대 갤로퍼 **서울, 인천지역은 갤로퍼 전문영업소에서만 판매합니다.**

안전과 야성의 자부심
뉴·갤로퍼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경인지역 갤로퍼 전문판매영업소

현대그룹사옥전시장 746-3465 동대문 921-6480 광화문 722-7111 북부 998-0515 성동 215-0234 송파 424-3871 강남 515-6071 관악 874-0361 영등포 636-1383
서초 597-7501 불광 388-0993 원효로 719-7955 시흥 831-4766 강동 489-0521 노원 948-0833 강서 601-9490 성수 498-6986 인천 867-2981 부평 524-4500
남인천 428-8450 이천 637-0235 포천 535-9321 의정부 877-0440 성남 758-8088 부천 664-9844 원당 966-2405 구리 553-6066